hyunbulnews.com

현대불교

제853호 2011년 9월 14일 수요일 (음력 8월 17일 · 불기 2555년 · 주간)



죽음이 괴로운 것은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 죽는다고 별거 있습니까?
- 안성 석남사 회주 정무 스님

'공존과 상생'으로 통일하자

조계종 남북교류 기조 발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불교계만이라도 '공존과 상생'의 원칙으로 대북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정부의 5·24대북제재 조치 이후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조계종이 불교계의 대북교류 원칙으로 '공존과 상생'을 제시했다. 이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MB정부의 대북기조 변화에 앞선 발표로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남북 불교계의 위상 변화가 기대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9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대장경판각 1천년 기념 남북합동법회 봉행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집권후반기 MB정부 대북기조 선도할지 주목

교구본사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 규모에 관심

'퍼주기' 안되려면 북측의 변화 예의 주시해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남북문제는 공존과 상생의 문제이다. 불교계는 앞으로 공존과 상생으로 대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고 지거나 자존심 문제로는 더이상 남북관계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자승 스님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각층 각 분야에서도 '공존과 상생' 원칙을 깊이 이해·실천하는 자세로 대북관계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브리핑에서 "지난해에 이은 두 차례의 방북을 통해 남북 교류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를 대비한 인적·재정적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2010년 1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방북 당시 평양 등에 인도적 시설 지원을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조계종은 이번 방북을 계기로 종단 차원의 대북지원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방북단에 해인사(선각 스님)·마곡사(원혜 스님)·대흥사(범각 스님)·쌍계사(성조 스님)·신흥사(우송 스님)·법주사(노현 스님) 등 교구본사주지와 조계사(토진 스님)·도선사(혜자 스님)·보문사(덕문 스님) 등 도심 또는 직영사찰주지를 포함시킨 것도 북측 상황을 종단구성원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이번 방북을 통해 교구본사 차원에서 대북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교구본사 단위의 활동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은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담 스님은 "민간차원의 교류활동은 남북 정부 간 문제와 상관없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종교단체를 비롯한 문화교류는 대규모 행사 등 인적교류가 보장돼야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남북 교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마다 진행돼 온 부처님오신날과 8·15 남북공동법회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남북불교계가 함께 복원한 금강산 신계사와 묘향산 보현사 등에 대한 성지순례 및 불교문화재 공동 복원 등 문화교류 행사를 남북한 당국이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의 지원이 '퍼주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남측의 노력만큼이나 북측의 태도도 중요하다.

영담 스님은 "북측은 북측대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나눔 송편은 더 맛있어요 종로노인복지관(관장 정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6일 '한가위 송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관 어르신들과 신한생명 직원들이 함께 빚은 송편은 홀몸어르신 31가구에 전달됐다. 글= 천진영 기자, 사진= 박재완 기자

고려대장경은 평화와 희망의 상징

남북 불교계, 묘향산서 대장경판각 1천년 기념 남북합동법회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대북제재 조치 이후 막혔던 남북 물꼬를 불교계가 텄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총무부장 영담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장 일면 스님 등 37명은 9월 3~5일 대북제재 조치 후 최초로 북한을 방문했다.

대북제재 조치 후 첫 방북

불교계가 남북교류 물꼬 터

민족문화수호 한마음 다짐

조계종 방북단(단장 영담)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위원장 심상진)과 5일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서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하고, 민족의 화해 협력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묘향산 보현사는 1937년 해인사 대장경판인경본 전질을 소장하고 있는 사찰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봉행사에서 "한민족에게 고려대장경은 단순한 불경(佛經)을 새긴 것이 아니라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요, 합심과 단결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대장경 조성을 통해 국난을 극복했듯이 이제 남북의 화해와 협력,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불련 심상진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합동법회가 민족 화해와 단합,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며 팔만대장경을 더 잘 보존하고 빛내는 데 기여하는 또 하나의 '통일불사(統一佛事)'가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가한 남북의 200여 사부대중은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이 대표로 봉독한 고불문에서 "2010년 1월 남측 조계종대표단 방북 시 조선불교도연맹과 합의한 우리 민족문화의 자주성과 우수성을 빛내기 위해 ▷북한 불교문화재 복원 보수·유지관리 협력 ▷팔만대장경 조성 1000년을 기념한 민족 화해·평화를 위한 협력 ▷국제무대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 등 3개항을 실천 과제로 다짐했다.

이에 앞선 4일 조계종은 조선불교도연맹을 방문해 현대기술로 재현한 해인사본 〈금강경〉 목판본 1질(9판)과 〈반야심경〉(10판), 풍경(風磬)을 선물로 전달했다. 이 가운데 〈금강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하는 선물이다.

방북단장 영담 스님은 "통일부 승인이 방북 전일에야 이뤄져 어려움이 많았다. 잘못돼서 (북한에) 못 가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북측에 알려서 행사를 무사히 치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19일부터 5일간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조계종 제187회 임시중앙종회가 9월 19일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중앙종회에서는 동국대 이사 후보 추천, 사찰법, 호계원법, 법규위원회법 등 종헌종법 개정안과 초·재심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출의 건 등이 다뤄진다. 또, 정부의 새도로명주소 시행과 관련한 중앙종회의 결의문도 채택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화합은 자기 수양에서 나온다"

고우 스님, 제2기 원로 의원 고우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이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9월 5일 개최한 제2회 화쟁리더쉽 아카데미에서 첫 법사로 나서 불자들이 사회화합, 화쟁을 위해서는 치열한 성찰을 통해 자기 수양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우 스님은 "현재 지구상 갈등 중 가장 극심한 것이 종교갈등"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종교인들의 치열한 자기 점검을 통한 수양이 뒷받침 되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스스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니 고민했던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관련법문 11면

노덕현 기자

로터스월드 성관 스님 포교대상

제9회 대원상 수상자 발표



캄보디아 등에서 국제구호활동을 벌여온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이 제9회 대원상 포교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재가부문에서는 불교지식인들에게 새로운 안목을 열어준 계간 〈불교평론〉(주간 홍사성)이 선정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9월 7일 이같이 밝혔다.

승가부문 특별상에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가, 재가부문 특별상은 불교계 최초의 사회적기업 '연우와함께'(대표 이상근)가 선정됐다. 불교계 최초 미소금융 거제지점의 오정림 대표는 장려상에 선정됐다.

콘텐츠부문 특별상에는 임우성 감독이, 강혜윤 씨와 문자영 씨는 장려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9월 23일 오후 4시 서울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진행된다. (02)719-2606 조동섭 기자

독실한 개신교 문화재청장 내정



신임 문화재청장에 김찬 문화재청 차장(53)이 내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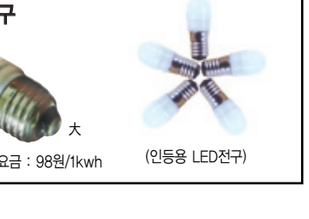
김찬 문화재청장 내정자는 1958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해 재무부를 거쳐 2003년 문화공보부 공보관에 이어 관광국장, 문화산업진흥단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 관광산업국장을 역임했다. 2009년 3월부터 문화재청 차장을 맡아왔다.

김 청장 내정자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노덕현 기자

한권의 책으로 만나는 불교이야기
- 베스트셀러 작가와의 만남
2011. 9. 21(수)~11. 2(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문화센터 3층 대강당(동구청 옆)
주 최 (사)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광주불교승보회, 불광출판사,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운영위원회
후 원 서울 불광사, 광주불교방송
대 상 관심있는 모든 분
접수처 광주전남불교신도회 385-1336, 광주전남포교사단 375-0107, 자비신행회 234-0090 동참금 30000원

853호 CONTENTS

한국 간화선 미국간다 2
안철수와 박원순의 '단일화' 3
현장속으로 청암사 스마트캠퍼스 5
안철수·박경철의 '청춘콘서트'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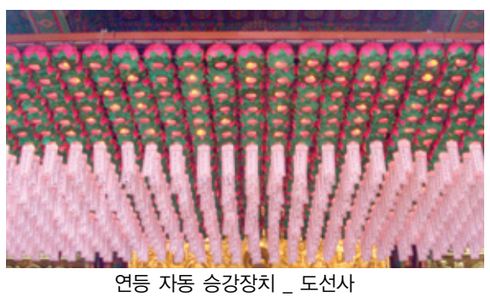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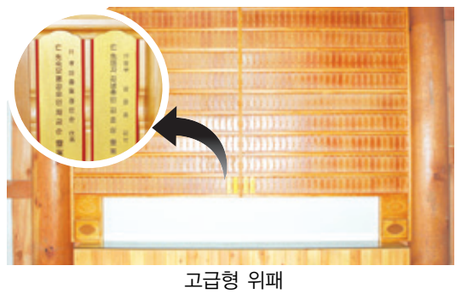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인등용 LED전구)

진제 스님, 간화선 세계화 위해 미국 간다

한국불교 대표 수행법 간화선을 통해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가 세계 경제의 중심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다.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는 "미국 리버사이드교회, 유니언신학대학과 공동으로 9월 15~16일 미국 뉴욕 현지에서 간화선 평화대법회와 종교간 평화대화2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15일 오후 7시(현지시각) 리버사이드교회에서 열리는 간화선 평화대법회에서는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이 재미교포 등 뉴욕 현지의 지식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간화선을 소개한다.

법회에서는 동화사에서 이운한 괘불이 교회 예배당에 걸린다. 법회에서 진제 스님은 간화선이 '참나'를 깨치기 위한 수행방편이라는 점과 참선수행의 효과, 간화선 수행법을 위한 마음가짐 등을 법문한다.

스님의 법문은 미국 햄프셔대학 교수로 활동 중인 혜민 스님이 통역한다. 이와 함께 동화사는 한국 간화선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진제 스님의 영어 법문집 〈Open the Mind, See the Light〉를 행사를 시작으로 보급한다.

행사가 열리는 뉴욕 리버사이드교회는 정치적 토론장소로 유명하다. 교회는 마틴 루터킹 목사와 넬슨 만델라, 피델 카스트로 등 주요 정치인들이 연설한 곳이다. 또, 달라이라마 법문이 열리기도 했던 이곳은 십자가 위에 괘불을 걸어놓고 법회를 열 정도로 열린 종교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이 교회 목사는 자신이 직접 한복을 입고 육법공양에 참가하겠다고 알려올 정도이다. 진제 스님의 이번 법문은 한국 스님으로는 최초이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간화선평화대법회에는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세계 각 종교지도자들과 뉴욕 시민, 뉴욕 거주 교포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만큼 간화선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크다"며 "한국 선불교가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수행종교라는 것을 진제 스님의 법문을 통해 체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4시 유니언신학대학에서 진행되는 종교간 평화대화2는 지난해 12월 동화사에서 열린 종교간 평화대화1, 폴니터 교수의 방한에 이은 것이다. 행사에는 대표적인 해방신학자 폴니터 교수 등 학계와 종교계 대표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폴니터 교수는 신학을 전공했지만 오랫동안 선수행을 해온 불교수행자이다. 그는 동화사를 찾아 진제 스님과 기독교-불교의 종교간 평화대화를 나누며 한국불교에 큰 환희심과 관심을 보인 바 있다.


2010년 12월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종교간 대화에서 진제 스님(왼쪽)과 폴니터 교수가 좌담하는 모습.

평화대화에 앞서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달마프랜즈 프로그램에서는 친한파 재미불교학자인 로버트 버스웰 교수(前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의 간화선 소개 강연이 진행된다. 이후 진제 스님과 동화사 금당선원 수좌스님들이 직접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간화선 실참을 지도한다. 행사는 4~5인 1조로 팀을 나누는 소그룹 대화형태로 진행되며, 200여 명이 사전신청 했을 정도로 현지인들의 관심이 크다.

유니언신학대학은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초교파 신학교로 해방신학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1836년에 세워져 학문과 실천 양면에서 신학교육이 이뤄진다.

성문 스님은 "이번 행사는 한국불교 수행법인 간화선을 인류공영을 위한 평화의 수행법으로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문화행사의 위상을 세계에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동화사를 종교간 대화의 산실로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대구 동화사는 2010년 12월 세계적 석학인 폴 니터 교수를 초청해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 진제 스님과 기독교-불교의 종교간 평화대화를 성사시킨 바 있다. 9월 15~16일 미국 뉴욕 현지에서 열릴 간화선 평화대법회와 종교간대화2를 통해 동화사는 한국불교의 위상을 다시한번 세계에 떨칠 예정이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9월 5일 미국행사에 앞서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사 취지 등을 설명했다.

성문 스님은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종교간 평화를 통한 세계평화 기여에 뜻을 두고 준비됐다"며 "평화를 만드는 수행법으로서의 간화선 소개와 인류 평화를 위해 21세기 다원화·다변화 시대에 해야 할 종교의 역할과 개인별 수행의 중요성 등을 환기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조실스님은 올해 79세의 노령임에도 간화선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번 행사도 조실스님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성문 스님은 이번 행사가 한국불교를 미국 사회에 알렸던 숭산 스님에 버금가는 큰 행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를 위해 동화사 금당선원 50여 수좌스님이 미국 방문에 동참한다. 미국 방문단만 200여 명이 넘는다. 또, 동화사 후불탱화(대구시 유형문화재)와 성주 선석사 영산회상 탱화(보물 제1608호), 청도 적천사 괘불 탱화(보물 제1432호)를 자수로 재현한 작품을 행사에 사용 후 현지에 기증할 예정이다. 동화사 등 한국전통사찰의 절경 및 문화재 등을 담은 사진 100여 점도 전시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성문 스님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에서 비롯됐다. 성문 스님은 최근 전통행사인 승시를 대구지역 문화축제로 키워낸 바 있다.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국제적 위상을 고양하고 민간교류를 통한 민족적 자긍심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1·2차 종교대화를 발판으로 불교-기독교간 대화 모임을 정기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연 5000만원 내야 동국대 이사한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서 명신 미산 법산 성무 심경 영담 정덕 지하 스님 등 동국대 이사후보 8인 추천

조계종립 동국대 이사 후보로 명신·미산·법산·성무·심경·영담·정덕·지하 스님이 중앙종회에 추천됐다. 또, 동국대 이사들로부터 연 5000만원 이상 법인출연금을 의무화하는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경)는 9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기만료된 정호 스님(용주사 주지) 후임으로 성무 스님(삼막사 주지)과 심경 스님(총무원 사서실장), 영배 스님 후임으로 명신 스님(직능대표선출위원)과 법산 스님(前 동국대 교수), 영담 스님 후임으로 영담 스님과 지하 스님(前 중앙종회의장)이 추천됐다. 비구니 이사였던 수인 스님 후임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정덕 스님이 추천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임기만료 됐던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과 12월 3일부로 임기만료되는 성관(現 상임이사)·성타(불국사 주지) 스님의 후임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12월 3일부로 임기만료 되는 전순표·최규철 이사 등 재가이사는 개방형이사로 전환키로 했다.

한편, 임기만료된 중앙승가대 이사 암도 스님의 후임과 감사 진효 스님의 후임 추천도 차기 종관위회의로 미뤄졌다.

조동섭 기자

"A스님 혼인사실 있다…" 파문

호법부는 6개월째 조사 중

괴담으로만 떠들던 승가의 비위 사실이 폭로돼 충격을 주고 있다.

前 거조암 주지 현소 스님은 9월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은해사 중진 A스님이 출가기간 중 혼인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날 현소 스님은 A스님의 미국 정부가 발행한 혼인증명서와 이혼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스님은 A스님의 혼인 관련 서류는 2008년 입수했지만, A스님과 40년 지기라는 특수관계 때문에 밝히기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현소 스님은 "신상에 관한 일이기에 개인에게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오랫동안 고민했다. 자성과 쇄신 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단과 은해사를 위해 안되겠다는 생각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현소 스님에 따르면, A스님은 1989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포와 혼인한 뒤 1993년 7월 합의이혼 했다. 이는 조계종 종헌(제9조 제1항)의 승려의 출가독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A스님은 조계종 스님이 아니라는 것이 현소 스님의 주장이다.

현소 스님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3월 총무원 호법부에 진정했다. 하지만 호법부의 처리가 늦어 직접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호법부는 현재 진정인·피진정인 조사는 했으나 관계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호법부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미국 현지를 찾아 직접 조사할 여건이 안 돼 미뤄지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은해사 7직 스님들이 참석해 현소 스님에게 폭로 자제를 요청하고, 발표 내용에 강하게 항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은해사 기획국장 상휴 스님은 "A스님은 은해사 인근에서 문중의 귀감이 될 정도로 지역적 신임이 크다"며 "A스님과 절친했던 현소 스님이 주지 재임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이번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현소 스님은 은해사가 학교법인 동곡학원 설립하자 트집을 잡고 검찰에 고발을 했었다"며 "동곡학원 사회법 제소건 등으로 호법부 조사를 받고 있는 현소 스님이 A스님 문제를 언론을 통해 확대하는 것은 종단은 물론 은해사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소년소녀 가장돕기 산사음악회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전달식)

봉 모후산 도원사 개원 5주년 기념 1080 연등불사 행

주 관 : 사단법인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주 최 : 도원사, 관음회 방생회 신도일동

ㅣ 일 시 : 2011년 양력 9월 24일(토) 오후 4시부터
ㅣ 장 소 : 도원사내 야외음악단
ㅣ 초청가수 : 김용임, 정현, 정주호, 진주아, 주권기, 트로트가수 外 다수 출연 및 품바
ㅣ 연 락 처 : 061)372-1047. 010-6258-8325. 011-636-4110

협찬 : 화순군사암연합회, 화순군계사회, 불교TV, 광주불교방송, 광주일보, 현대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호남일보

특별기고

종교자유는 성숙한 사람에게나 할 말

8월 23일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초안)'(이하 선언)이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이후, 각계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와 일부 진보적 개신교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작 불교계의 반응은 다양하다. 찬성의 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편이다.

불교계의 반응 중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서둘러 초안을 발표한 것이라든가 문맥이 짜임새가 없고 너무 길다는 내용의 비판은 형식적인 문제이니 차치하고 내용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한다. 비판은 선언 중 대체로 두 가지 문장에 대한 것이다.

"불교는 '나만의 진리'를 고집하지 않으며 불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리가 어떤 종류의 진리인가에 따라서 입장은 달라진다. 종교가 요구하는 규범상의 진리라면 각 종교별로 다를 수 있지만 용인의 폭이 있다. 그러나 만약 이 진리가 "믿음"으로 표현되는 종교적 최고 진리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나 이슬람교인에게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선, 즉 절대선과 동격시 되는 유일신으로서의 야훼신 또는 알라신이 있다. 그리고 불자에게는 나의 마음에서 깨우쳐 도달해야 할 성불의 길이 있다. 내가 나의 신앙으로서 한 종교를 선택했다면 종교적으로 도달할 궁극적인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엇은 인간의 논리로서는 진위를 가릴 수 없는 일종의 도그마이다.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종교를 삶의 방식으로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석한다면 종교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영성의 길이든 깨우침의 길이든 같은 종(種)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구하는 길의 전제로서 있는 도그마의 문제라면 종교 간 격차는 좁혀질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한 종교에 궁극적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종교 안에서 그 진리를 찾을 수 없을 테니 상호 용인의 폭은 좁아진다.

선언의 윗 문장이 진리를 찾는 자세의 인간을 표현한 것이라면, 진리를 찾는 내가 하나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해가 되나, 여기서는 '궁극적' 진리라고 이해될 소지가 많다. 문장이 더 다듬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전법은 다른 종교인을 개종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가르침을 구하는 타 종교인에게 개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다고 한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은 마치 숨쉴 때 필요한 공기와 같아서 어떤 종교를 가졌건 통용될 수 있으며 가장 보편적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근본주의 개신교인이 들으면 오만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며 절대적 유일신을 부정하지 않는 기독교인의 자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자유와 정교분리는 성숙된 시민사회에서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행동해야 할 규범을 제시한다. 위의 선언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규범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종교인의 성숙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모를 정도로 종교적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더 정확하고 종교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위의 두 문장을 약간 쪼잔하게 살펴보자, 다시 말해 분석을 해 보자. "다른 종교인을 개종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또 종교의 특징 중의 하나가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임을 상기하면,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도 무종교인에게서만 불교에 대한 믿음을 기대할 수 있거나 타종교인이 스스로 믿음을 바꾸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좀 더 대승적으로 해석을 해 보자면, 내가 믿는 진리가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며 그로써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는 데 길을 밝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타 종교인이 믿는 진리도 그러할 것이니 서로를 용인하며 각자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법은 종교적인 삶에서 보다 사회와 역사 속에서의 불자의 모습에 의해서만 가능해지지 않을까? 불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참여가 더 절실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정윤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

조계종, 통합관재 시스템 구축한다

조계종이 사찰 통합관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는 이번 시스템이 스마트폰과 연계해 도난 방재와 누전 차단을 통한 화재 예방이 가능하다고 9월 8일 밝혔다. 기존 CCTV가 문화재 등 일부 시설에 한정된 것과 달리 통합관재 시스템은 가람 전체 관리가 가능하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최근 소프트웨어 인증업체 2곳을 지정하고, 올해 말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내년 초에는 일부 사찰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폰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내년초 사찰 대상 시범사업 예정

목조로 구성된 사찰들은 특히 화재에 취약해 관리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불교계 국보·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CCTV 등 도난감시시설도 노후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안영환 국회의원이 8월 16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첨단도난감시시설 현장점검 결과' 전체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 149점 중 33점(22%)의 감시시설이 노후와 오작동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부석사 소조여래좌상이나 영주흑석사목조아미타불좌상 등 불교계 문화재도 포함돼 있다.

안 의원이 제출받은 2010년도 첨단도난감시시설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보 제296호인 칠장사오불회괘불탱은 녹화기가 노후됐으며, 국보 제282호 영주흑석사목조아미타불좌상 및 복장유물도 야간감시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긴급보수비가 지원됐다.

보물 제486호 은해사백흥암극락전수미단 감시장비도 DVR 작동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보물 제996호 영풍비로사석아미타및석비로자나불좌상은 야간감시 카메라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5월 경 긴급보수비를 지원받았다.

사찰들이 산 속에 위치하다보니 장비들이 계절과 주위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해 CCTV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재청은 안형환 의원에게 문제점이 발견된 시설물 모두에 대한 보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의원은 4~5년 주기로 대대적인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형환 의원은 "감시시설의 첨단화와 감시인력 확충 등으로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더 이상 훼손·도난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安·朴 '단일화'…배후엔 법륜 스님이?

안철수, 20~30대 인기 돌풍
'청춘콘서트'로 젊은층 지지확보

정치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안철수 원장이 9월 6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박원순 변호사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히고 단일화를 표명했다.

안철수 원장이 젊은층의 적극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은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주최한 '청춘콘서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1년 5월 22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을 시작으로 '청춘콘서트'는 전국 순회공연에 돌입했다. 청춘콘서트에서는 대학등록금, 청년실업 등이 화두로 등장했으며 청년들의 사회참여, 리더십, 도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청춘콘서트'의 전국 순회공연은 그야말로 성공적이었다. 정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20~30대들은 '청춘콘서트'를 통해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안철수 원장도 '청춘 콘서트'에 참여해 순식간에 20~30대를 자신의 팬으로 만들어버렸다.

청춘콘서트에서 법륜 스님은 안철수 원장의 정치 출마설에 대해 에둘러 질문을 던진 적도 있다. 안철수 교수가 미국 퀸즈에서의 강도 사건을 예로 들며 사회적 무관심에 대해 이야기하자, 법륜 스님은 "(안 원장이) 먼저 내려가서 움직이면 어떻겠는가. 그럼 다 따라 내려갈 것 같다"고 정치에 참여할 의향을 묻기도 했다.

안철수 원장의 단일화는 '제3정치 세력화'에 대한 주장을 낳기도 했다. 공식적 조직은 출범하지 않았지만, 안철수 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 인맥을 갖고 있다. 안 원장 역시 "내 멘토는 300명 정도"라고 말해 '제3정치세력화'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냈다.

안철수의 인맥은 당연히 청춘콘서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다. 박경철 원장, 조국 교수, 방송인 김제동, 김여진 등을 비롯해 평화재단 산하인 평화교육원장이자 前 환경부 장관인 윤여준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안철수 원장이 이렇게 많은 인맥을 쌓을 수 있었던 데에는 법륜 스님이 '조력자' 역할을 했으며, 단일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불교계 관계자들은 이런 정황상으로 판단할 때 '제3정치세력화' 법륜 스님과 많은 연관성을 지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륜 스님은 평화재단 외에 '정토회'의 지도법사로 활동 하고 있다. 정토회는 '제2의 YMCA'로 불릴 만큼, 탄탄한 결속력을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정토회 역시 안철수의 출마설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안철수 원장과 박원순 변호사의 행보가 불교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은정 기자

종교 이유 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가 종교 등의 이유로 입영이나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을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8월 30일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9명의 재판관 중 합헌이라는 의견은 7명, 위헌이라는 의견은 2명이었다.

합헌 결정 후 헌재는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나 국가안보와 병역의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려는 정당성이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해도 공익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는 만큼, 대체복무제 없이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같은 날 종교적 이유의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없이 처벌하도록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역시 7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에 대해 종교 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같은 날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직무유기다.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대표도 "국가와 사회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텐데 그런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 정부와 국회가 대체복무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확장 허용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등 전통문화건축물 증축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면적을 기존 대지면적의 30%범위(최대 1만㎡)에서 추가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에 부과하는 보전부담금도 현행 50% 감면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취락지구로만 이축이 가능했던 종교시설에 관한 규제를 해제했다.

조동섭 기자

기독당, 서울시장 선거 뛰어든다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기독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다. 한국 기독당 정훈 대표는 9월 6일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훈 대표는 "낙후된 복지를 제대로 하고, 교계의 변화를 위한 종교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천만 기독교인을 대표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독교당은 개신교계에서도 반응이 싸늘한 정도다. 조용기 목사는 6일 자신과 기독당 창당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도 기독당이 보수계 전체의 표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기범 기자

2011 빛고을불교아카데미

– 한권의 책으로 만나는 불교이야기

2011. 9. 21(수) ~ 11.2(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문화센터 3층대강당(동구청 옆)

주최 (사)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광주불교승보회, (사)광주전남불교신도회, 불광출판사,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운영위원회
후원 서울 불광사, 광주불교방송
대상 관심있는 모든 분
접수처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사무국 ☎ 234-0090
동참금 30,000원

빛고을불교아카데미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불교 배움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직장인 및 청년층의 불교 이해를 통한 계층포교에 기여한다. 대중강좌의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 불교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대사회의 제반문제를 불교적 가치로 해석하고 실천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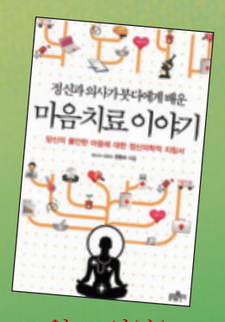
9월 21일(수)
우승택
경제아생테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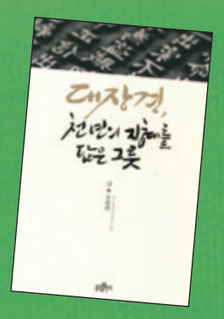
9월 28일(수)
선재스님
사찰요리 전문가



10월 5일(수)
김정호
덕성여대 교수



10월 12일(수)
전현수
정신과 전문의



10월 19일(수)
오윤희
전,고려대장경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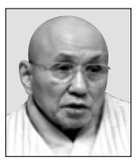


10월 26일(수)
무각스님
공생선원 선원장



11월 2일(수)
현봉스님
송광사 광원암 암주

일 주 문



지구촌공생회 몽골 지원 사업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9월 2~6일 몽골 울란바토르 드림센터 등을 방문해 주몽골한국대사와 몽골지원사업을 논의했다.



마곡사 간화선 집중 수행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10월 1~7일 마곡사 경내에서 간화선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동화사 사리친견대법회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10월 30일까지 통일대불전에서 부처님 치아사리 2과 친견법회를 개최한다.



청량사 산사음악회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10월 8일 경내에서 2011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통도사 개산대재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10월 5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1366주년 개산문화대재를 개최한다.



금산사 전북연합법회

김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9월 1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전북신행단체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법회를 개최했다.



송광사 제7회 금강산림대법회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10월 14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제7회 금강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 2011 자비사랑 호프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능인 스님은 9월 30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2011 자비사랑 일일호프를 개최한다. (02)2260-3026

〈인사〉 신현택 예일법인 고문, 동국대 석좌교수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신현택 예일회계법인 고문을 2011년 가을 학기부터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했다. 신현택 석좌교수는 1952년생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예술의 전당 사장과 전국문예회관연합회장, 코리아심포니 이사장, 금호문화재당 이사 등을 지냈다.

아이패드는 가장 저렴한 포교

경북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 "불교 콘텐츠가 한국 불교 세계로"



경북 청암사 학인스님들이 아이패드를 이용해 태극선을 찍어 어플에 올렸다. 그런데 게시한지 하루 만에 독일에서 연락이 왔다. 어플에 사용한 '시크릿가든' 음악 저작권 때문이었다.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은 "우리가 만든 동영상을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준 놀라운 경험이었다. 우리가 만드는 불교 콘텐츠가 바로 한국 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아이패드II는 학인스님 각자가 구입해 통신비처럼 매달 3~4만원씩 내고 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 한국 불교를 알리기에는 가장 저렴한 포교"라고 설명했다.

평소 승가 교육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상덕 스님은 전북대대학원 전자상거래학과 이백규 겸임교수를 만났다. 이 교수의 'E-비즈니스 미래를 말하다' 특강을 청해 듣고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무한한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스님은 2011년 1월 이 교수에게 "이곳을 '스마트캠퍼스'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스님은 "아이패드를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같은 거라고 생각했지 청암사에서 활용 한다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암사는 3년 전, 홈페이지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학인스님 4명으로 구성된 영상 팀을 만들고 전문 영상 장비를 구입했다. 영상팀은 강의를 녹화해 두고 학습 자료들을 DB로 구축해왔다. 이런 자료 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암사는 8개월 만에 '청암사 스마트 캠퍼스' 어플을 개발할 수 있었다.

상덕 스님은 동영상 콘테스트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인스님들은 아이패드의 기능을 십분 활용 할 줄 안다. 학인스님들이 각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가족도 등장하고 서울도 등장하고 생각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다. 그래서 스님은 "콘테스트를 열어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마련해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스마트시대를 지혜롭게 맞이한다면 불교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이곳은 열려있는 산골입니다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 스님, "황토·창호지가 전자파 막아요"



승가대학은 위계질서가 엄격하다. 학인스님들은 선배스님 만큼이나 학장스님도 어렵다. 경내 모든 공간에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 SNS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편안한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청암사 승가대학 학장 지형 스님은 "수업자료를 다시 보내 줄 수 있냐는 학인스님의 이메일도 받아봤다"며 "나와 학인스님을 비롯해 학인스님들 간에도 소통이 활성화되는 등 스마트캠퍼스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말했다.

청암사는 전통 강원 가운데 발 빠르게 시대의 요구에 대응해왔다. 그래서 인근 구미대 사회복지학과에 동시에 진학한 청암사 승가대학의 학인스님이 많다. 불교계 사회복지사가 절실한 가운데 청암사는 학인스님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있다.

지형 스님은 여름내 아이패드 때문에 재밌는 구경을 했다. 학인스님들이 경내 이곳저곳으로 와이파이 잘 터지는 곳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아주 귀여워 보였기 때문이다.

스님은 "각자 다른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보통 무선인터넷이 되는 공간에서는 무료이고 3G로 사용되는 공간은 유료인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경내 무선인터넷 설치는 김천 KT가 담당했다. 보통은 큰 빌딩도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는 것을 경내에는 거의 방마다 하나씩 설치했다. 황토와 창호지가 전자파의 흐름을 막아 벽하나 차이로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였다.

스님은 "황토나 창호지가 전자파를 차단하는 줄 모르고 여태 살았다"며 "너무 좋은 곳에 살아 어려움도 많았다"며 웃었다.

교계 최초로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하다보니 버튼 하나하나에 무슨 단어를 사용할지 등 고민해야 할 것이 한 둘이 아니었다. 스님은 "'청암사스마트캠퍼스' 어플이 표본이 될 텐데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만들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형 스님은 "스마트 코리아에 승가도 예외 일 수 없다"며 "아이패드에 있는 1000가지 기능을 활용해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또,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교육을 받은 청암사 승가대 학인스님들이 사회에 나가 승가의 중추적 역학을 담당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낙태 한 이 모두 참회를

국내 최초 낙태영가 추모도량 '구담사' 추모공원 개원



국내 최초로 낙태 영가의 원결을 풀고 그 부모들의 참회와 기도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추모도량이 마련됐다.

구담사(주지 지율)는 9월 4일 남양주시 진전읍 부평리에 새 도량을 마련하고 이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구담사 이전법회는 낙태영가 천도재와 추모참회공원의 각 보살상 점안법회가 함께 진행됐으며 남양주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이 천도법문했다.

20여 년 간 태아 영가 천도재와 한 생명살리기 운동을 펴고 있는 지율 스님은 이날 "낙태된 태아도 한 생명으로 그 악업을 참회하고 원결을 풀어줘야 한다"며 "그 무엇보다 참회를 통해 산 사람들의 선연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의미에서 지율 스님은 매년 참회기도 시 올려진 아기 옷과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을 모아 미혼모 복지시설과 장애아가정에 보내고 있다.



구담사 참회공원 전경.

스님은 "태아영가 추모, 참회와 함께 낙태의 죄에 대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도량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게 됐다"며 생명살리기 운동에도 더욱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이날 법회에서 밀운 스님도 천도법문을 통해 "모든 것은 그 근원이 동일하며 인연법에 따라 형체만 달라질 뿐"이라며 "낙태 참회를 통해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수행정진으로 선업을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담사 태아영가천도재 3재는 9월 25일, 5재는 10월 9일, 7재는 10월 23일 열린다. (031)529-2855

노덕현 기자

고판화 아카이브 구축

고판화학회 창립하는 한선학 스님



한국의 고판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한국고판화학회가 9월 17일 강원 원주시 고판화박물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다.

한국고판화학회 창립준비위원장인 한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7일 "고판화는 판을 활용해 그림을 새기고 또 찍어낸 각종 기술이 집약체"라며 "서지학, 인쇄학, 고고미술학, 불교학 등 관련 기관들과 학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자료를 발굴하고 국내외 답사, 국제교류를 통해 아시아 고판화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판화학회에는 미술사, 서지학, 불교학, 박물관학 등 각 분야 학자들과 해인사 성보박물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청주 고인쇄박물관, 안동 유교문화박물관, 고려대장경연구소 등의 주요인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창립총회에서는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고인쇄 연구의 현재와 미래', 박도화 동국대 교수가 '고판화 연구와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과 경북 안동 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목판연구소의 목판 답사가 1박2일간 이뤄진다.

한선학 스님은 "고판화의 80%이상이 불교문화재인 만큼 불교문화 연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교문화콘텐츠 확보 및 창달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제40차 운문승가대학 동문회

어느 덧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운문사 은행나무가 선후배 스님들을 초대합니다. 동문스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동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정진 중 바쁘시더라도 운문사 모든 선후배 스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 아 래 ◀

일 시 | 불기2555(2011)년 9월 17일(음력 8월 20일) 오후 2시

장 소 | 운문사 선열당

안 건 | 동문회 임원선출에 대한 건, 모교 발전에 대한 건, 기타

문의전화 | 054)372-8800 (운문사 종무소) / 010-3045-4660 (동문회장) / 010-9467-1596 (동문회재무)

운문승가대학 총동문회장 **행법** 합장

청암사에서는 아이패드가 팔만대장경 입니다

불교계 최초 '스마트캠퍼스' 구축한 청암사 승가대학 · 율원

경북 청암사 승가대학에서는 학인스님 40여 명이 품안에 경전대신 아이패드를 안고 안행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스님들은 대웅전 왼편에 자리한 육화로에 자리를 잡았다. 학인 스님들은 아이패드로 '청암사스마트캠퍼스'에 접속했다. 연세가 많은 학인스님들은 엄지 검지를 이용해 화면에 글자 크기를 확대하기도 한다.

불교계 최초로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한 청암사 승가대학 · 율원(학장 지형, 주지 상덕)은 9월 3~4일 공개수업 시연회를 가졌다. 강의하는 사람과 전교생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실제 수업에 교과서처럼 사용한다.

국내 유수의 대학도 못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전자수업(e-learning)을 김천 산골에 위치한 청암사 승가대학에서 활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많은 대학들이 앱(APP)을 출시했지만 대부분 도서관대출, 수강신청과 같은 학사행정 중심으로 사용될 뿐 전자수업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암사는 '청암사승가대학스마트캠퍼스' 앱을 8월 출시해 2011년 2학기부터 아이패드2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다.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던 산중 승가가 전 세계와 소통하는 활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육화로는 교육장소로 주로 쓰이는 곳으로 200여 명이 동시에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공사됐다. 전화도 잘 안 터질 것만 같은 김천의 깊은 산중에 아이패드로 수업을 하는 청암사 승가대학 · 율원이 있다.

강의를 하던 학장 지형 스님은 "여러분의 강의 안에 1, 2학년의 율원의 과제물이 따로 공지 돼있는 것 보이시죠? 각자 열어보시고 과제물을 제출하세요. 제출한 과제물은 다 같이 열어 볼 수 있으니까 과제를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 하도록 하세요"하며 강의를 마쳤다.

청암사 승가대에 재학중인 규은 스님은 "출가 전부터 컴퓨터를 다뤄 왔다. 도반들도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 하던 사람들이 많아 아이패드가 그다지 어색하지 않다. 생각지 않게 강원에 들어와서 아이패드2로 수업을 받게 됐다. 디지털 기기인 아이패드를 통한 교육이 젊은 세대들에게 포교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청암사스마트캠퍼스' 앱에는 지금껏 진행됐던 강의들이 동영상으로 수록돼있으며 강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공지사항전달과 과제 제출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청암사는 '지앤넷'과 기술 협력해 앱을 개발했다. 또, 올 3월부터는 스마트캠퍼스에 대한 이해와 아이패드 활용방법에 대해

국내 유수대학도 하지 못한
스마트캠퍼스를 사찰서 구축
강원 교재 · 포교 수단으로 활용

전북대 대학원 전자상거래학과 이백규 겸임교수를 초청해 강의했다.

청암사스마트캠퍼스 앱에 들어가는 모든 컨텐츠는 청암사 학인 스님들이 3년 전부터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고 나레이션을 해서 편집해 만든 것이다. 청암사는 영상팀을 만들어 영상 촬영이 가능한 6mm 카메라를 3대 구입하는 등 전문 장비를 갖추고 자료를 모아왔다.

율원 2학년에 재학 중인 길상 스님은 자신의 작품을 좀 보라며 아이패드 커버를 열어젖힌다. '청암사의 여름'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사진들이 멋진 음악과 함께 슬라이딩 된다. 아이패드로 찍은 사진을 '아이무비' 앱을 이용해 편집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기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일반 재가자가 보여줬어도 놀랄만한 영상인데 율원에서 공부 하는 학인스님이 보여주니 더욱 그랬다.

"아니 스님, 이걸 어떻게 만드셨어요?"라는 물음에 길상 스님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드니 더 보기 좋죠? 너무 길면 안 좋아요 48초가 딱이죠. 우린 지난여름에 다 배웠어요. 어렵지 않아요. 저뿐 아니라 모든 학인 스님들이 다 할 줄 알아요"라며 활짝 웃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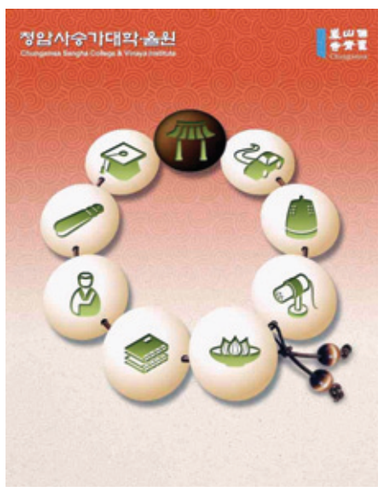
청암사는 경상북도 김천시에 산속에 위치한 제8교구 직지사 말사로 신라 헌안왕 3년 도선 국사가 창건한 건립한 천년고찰이다. 네 번의 큰 화재로 전소돼 여러 번 중창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말에 최송설당의 시주로 중창했지만 6년 만에 화재로 다시 전소 됐다. 1987년 3월 비구니 지형과 상덕 스님이 최초로 청암사비구니승가대학을 설립하고 육화료를 비롯해 지금의 면모를 갖췄다.

학장 지형 스님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학인 스님들께 더 좋은 강의를 듣게 할 순 없을 까하는 고민에서 '스마트 캠퍼스'를 구상하는 계기가 됐다. 좋은 스님이 되는 조건은 첫째로, 수행을 잘해야 되고 다음으로 포교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패드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과 소통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바람도 있다"고 말했다.

아이패드를 활용하면 강원 교육 뿐 아니라 국내외 소식을 바로바로 알 수 있다. 스님들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뉴스도 볼 수 있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다. 승가생활에 집중해야 할 학인스님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지형 스님은 "청암사 승가대학은 미래에 불교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다. 이곳에서 4년 동안 사회와 동떨어져서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포교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결단에서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청암사 육화로에서 승가대학 · 율원 학인스님들이 각자 아이패드로 강의를 듣고 있다.


청암사 학인스님들은 직접 촬영 · 편집한다.



청암사 승가대 어플 첫화면.

한편, 9월 4일 청암사 스마트 캠퍼스 · 참살이 앱 오픈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영상메세지가 대형스크린을 통해 전달됐다. 자승 스님은 "승가에 획기적인 일이며 교육적 큰 원력이다. 미래의 선지식인 비구니 스님들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전자강의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청암사스마트캠퍼스에서 힌트를 얻어 중앙 승가대도 순차적으로 원격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현대인에게 불교 소개하는 '참살이' 앱

"라면 스프는 반만 넣으세요"
"이제, 된장을 풀고 뚜껑을 연 채로 콩나물을 넣으세요"

청암사 자양전에서는 '참살이' 앱 시연회가 9월 4일 열렸다. 참살이 어플은 청암사가 만든 또 다른 앱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참살이 앱 안에는 '걷기명상', '유미정사 식단', '유수'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앱은 8월부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시연회에는 유미정사의 사찰음식 강좌 동영상이 상영됐다. 학인스님들이 인덕션 렌지를 이용해 직접 요리를 만들었다. 나레이션과 편집 역시 직접 했다.

강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쉽다! 나도 해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실생활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콩나물 된장 라면'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나트륨은 절반으로 줄이고 콩나물을 더해 야채 섭취를 늘리면서도 된장을 첨가해 싱겁게 느끼지 않도록 했다.



참살이 어플 첫화면.

유미정사는 사찰음식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알려 주기 위해 연구하고있다.

천진영 기자

생생한 부처님 말씀을 읽자!

불교의 중요한 경전은
이 〈불교경전총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500질 한정판

불교경전총서 (전 22권) 완역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언어!

〈불교경전총서〉는 당신의 불심을 일깨웁니다.

불자라면 〈불교경전총서〉 1질은 소장해야 합니다.



01. 화엄경 김지견 역/12,000원
02. 유마경 박용길 역/9,500원
03. 묘법연화경 현해스님 역/13,000원
04. 금강경 정호영 역/7,000원
05. 능엄경 김두재 역/12,000원
06. 원각경 · 승만경 전해주 · 김호성 역/10,000원
07. 정토삼부경 한보광 역/9,500원
08. 범망경 · 지장경 일지 역/8,000원
09. 과거현재인과경 혜원 역/10,000원
10. 백유경 현각 역/8,000원
11. 부모은중경 · 우란분경 · 목련경 · 관음경 일지 역/7,000원
12. 대반열반경 강기희 역/8,500원
13. 아함경1 돈연 역/9,000원
14. 아함경2 돈연 역/9,000원
15. 법구경 석지현 역/9,000원
16. 숫타니파타 석지현 역/10,000원
17. 밀린다왕문경1 동봉 역/12,000원
18. 밀린다왕문경2 이미령 역/12,000원
19. 본생경1 이미령 역/12,000원
20. 본생경2 이미령 역/9,500원
21. 미륵경전 이종익 · 무관 역/7,000원
22. 해심밀경 묘주 역/10,000원

민족사 구입문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E-mail. minjoksa@chol.com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전 22권 정가 214,000원 할인특가 185,000원

“승가의 탁발은 구걸이 아닙니다”
(Begging)

영문 불교용어, 외국인 눈높이 맞춘 표준 채택 절실 목소리 모아져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들에게 주는 이의 공덕을 쌓는 ‘탁발’을 ‘구걸’로 설명하고 있다면?

한해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수는 2만 여명에 이른 지금, 영문 불교용어 사용에 있어 그 뜻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영문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 스님)이 9월 5일 ‘템플스테이 영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조의연 동국대 번역학연구소장은 이날 발제에서 “현재 영문 불교용어 대부분이 음차로 영문화해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현재 사용되는 영문 불교용어의 문제점으로 로마자 표기법 오류, 일관성 결여, 의미의 부정확성을 들고 ‘Templestay Guidebook’ 등 템플스테이 소개서 3종을 분석해 247개 영문 불교용어 표준안을 제시했다.

조 소장이 지적한 의미의 부정확성은 ‘bow’(절하다, 고개를 숙이다)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108배를 ‘108bow’로 표현하는데 조 소장은 오체투지란 의미에서 ‘배’는 ‘prostration’(예배를 위해 엎드림)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소장은 “무념(無念)의 ‘No-Thought’ 표기 또한 아무 생각 없는 상태로 ‘Non-thought’로 표기해야 하며 탁발(托鉢)의 ‘Begging for food’도 격식을 차려 정중히 음식을 청하는 ‘requesting food’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일선 사찰에서 가장 빈번한 오류는 로마자 표기법을 들었다. 예불의 경우 ‘yebul’, ‘yeabul’, ‘yebool’, ‘daily sevice’ 등 표기법이 틀린 채로 제각각 10여 가지로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소장은 로마자 표기 원칙과 함께 보다 직관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음역과 의미를 병기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예외사항으로 △보살(Bodhisattva)과 같이 세계 공용 불교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며 △일반용어의 경우 음차보다 직관적인 의역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조 소장은 “선의 경우 조계종 영문 표기법은 ‘Seon’이지만 외국인들의 이해도가 낮아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Seon(Zen)’과 같이 부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화두도 ‘hwadu’로 표기되지만 ‘hwadu(the great questions)’과 같은 부기로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일상용어는 음역하고 뜻을 병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소장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제정한 로마자 표기원칙을 준수하고, 외국인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역(英譯)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개정된 영문표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 관음종 묘각사 포교국장 여여 스님, 진우기 한국불교영어번역연구원 초대원장, 홍희연 동시통역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국제포교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표준안 제정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미산 스님은 “템플스테이 참가자 입장에서 영문화가 진행돼야 한다. 또 강원과 율원이 ‘Sutra School’로 동일하게 불리고 있는 등 세심한 분류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여여 스님은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은 불교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높다. 영문화에서부터 현장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깜지인 영문 사찰 안내판 누가 읽나”



외국인들이 전국 유명 사찰에 가면 가장 먼저 보는 영문 사찰 안내판에 대한 연구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장민호 금강대 교수는 최근 한글 사찰 안내판과 영문 사찰 안내판의 번역 비율을 계량화해 비교하고 영문 번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내 주요사찰 10 곳을 대상으로 안내판 번역 비율을 조사했다.

장 교수는 논문에서 “현행 일선 사찰의 사찰안내판의 영문안내판 번역 확장 비율은 1.93으로 일반 한영번역시 기준인 1.20(120%)를 훌쩍 뛰어 넘어 가독성에 큰 장애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된 사찰별로는 금산사(2.49) 용궁사(2.39) 수덕사(2.25) 직지사(2.08) 쌍계사(2.00) 관촉사(1.92) 해인사(1.74) 범어사(1.69) 봉은사(1.64) 화엄사(1.16) 순이었다.

장 교수는 “이는 한자어구가 축소 번역되지 않고 직역형태로 영문 안내판에 우선 번역됐고 추가 부연 설명이 덧붙여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영문번역판의 빽빽한 번역으로 인해 외국인 방문객이 영문안내판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영문 특성상 글자 크기는 한글 안내판에 비해 더욱 작아지게 되고 이런 가독성을 고려치 않은 결과로

장 교수는 바람직한 예로 화엄사의 영문 사찰 안내판을 예로 들었다. 화엄사의 확장비율은 금산사 2.49, 수덕사 2.25에 비해 가독성이 뛰어난 1.16을 기록했다.

장 교수는 “화엄사의 경우 독자의 입장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해 필요한 정보는 비교적 자세히 중요치 않은 정보는 요약, 또는 생략한 점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장 교수는 “하지만 전반적인 사찰 안내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 기준 마련 및 당국의 일정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상월 스님의 가르침 선율에 담아 노래해

천태종 중창조 상월 스님의 일생이 교성곡으로 장엄됐다.

천태종(총무원장 대행 무원)은 9월 3일 단양 구인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봉축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1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상월 스님의 일생을 담은 교성곡은 ▷서막 ▷탄생 ▷성장 ▷발심 ▷정진 ▷구도수행 ▷소백산 ▷구인사 창건 ▷대오 ▷법어 ▷새불교 운동 ▷천태종 중창 ▷장엄 원력 ▷대열반 ▷대단원의 15장으로 구성됐다.

곡은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여민 국악팝스오케스트라, 마하연 국악실내악단이 김만석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연주됐다. 노래는 김재일(바리톤), 한예진 · 황혜진(소프라노) 고유경(알토) 김화정(테너) 조승완(베이스) 박애리(판소리)와 관문사 등 천태종 60여 사찰로 구성된 천태연합합창단이 불렀다.

교육부장 세운 스님은 개회사에서 “행사는 대조사의 탄신을 봉축하는 동시에 종단 삼대지표(애국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의 가르침을 조명하는 무대”라며 “합창을 통해 천태의 가르침 속 회삼귀일의 원융사상을 체득하는 자리이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의례 한글화 돼야 가슴으로 불교 느껴”

‘불교 상장의례 한글화’ 고찰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혜총)은 9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 상장의례 한글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은 포교연구실에서 추진해 온 ‘다비추선작법 한글화의 가치와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법상 스님은 “경전의 한글화 못지않게 의례 한글화가 더 시급하다”며 “특히 다비의례를 비롯ㄱ한 의례는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불교를 만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한글의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기에 수식어와 음율과 같은 형식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경전과 의식문을 한글화하고 이에 맞춰 한국인 정서에 맞는 음율을 부여해 불교의식 전반에 참여성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날 ‘다비추선작법’을 소개했다. 스님이 소개한 ‘다비추선작법’은 조계종 포교연구실의 〈한글통일법요집-천도다비의식집〉을 재검토한 것으로 ‘천도다비’를 ‘다비추선’으로 개정한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님은 “천도재에 무속적 의미가 적지 않게 포함돼 선행공양을 총칭하는 추선공양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은 이에 대해 “의례용어는 의례의 의미와 성격, 범주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천도’는 무속에서 불교용어를 차용한 것인지 아닌 지에 대한 검토가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다비나 천도는 제로 공덕을 쌓고 회향하는 개념으로 ‘추선’이 그 의미를 다 담고 있지 재고가 필요하다. 정토사상의 극락왕생에서 차용해 ‘다비왕생의례집’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성운 표준법요집 연구위원이 ‘다비 추선작법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에 앞서 행자교육원 교수 정오 스님과 어산작법학교 교수 법안 스님이 참석해 한글화된 오방불례와 염습의례를 직접 시연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4일 북한 조선불교도련맹 심상진 위원장과 진행된 대담에서 “남북불교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불교경전 한글화와 의식 및 수행체계 한글화에 함께나서자”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식 추석차례 시연 추석을 맞아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9월 5일 불교식 추석차례 시연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포교원 포교연구실에서 3년여 동안 연구한 ‘조계종 불교 상제례 안내’를 바탕으로 재가신도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불교식 가정제사와 차례를 그대로 시연했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수불 스님과 함께하는 간화선 집중수행

동국대 국제선센터

동국대 국제선센터가 한국불교 정통 수행법인 간화선 집중수행 시간을 10월 1~7일 태화산 마곡사에서 마련한다.

태화산 마곡사 및 한국간화선연구소와 함께 하는 이번 수행의 지도법사로는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이 참여한다. 간화선에 관심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세면도구 및 간편복을 지참하면 된다.

010-3205-1754

박기범 기자

2011(辛卯年)

(慶) 國際禪文化交流 及 慧能禪文化 節 (祝)

금번 한국 육조 선원 에서는 중국 광동 육조사와 공동 주최로 태국.월남.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대만. 미국 등 8개국이 함께하는 육조 혜능 대사의 선(禪)사상을 기리는 선 문화 교류 및 육조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원은 금번 갖게 되는 국제 선 문화 축제를 통해 보다 자유롭고 편안하며 누구에게나 친숙할 수 있는 선불교의 청정한 선풍이 이 땅에 불어와 혼탁한 사회 현실을 청정케 하고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중생들에게 청량한 감로수가 되길 간절히 서원하며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는바입니다.

2011년 9월 일

공동 대 회 장 (승가) 석연화 . (재가) 담화 이존영
공동 봉행위원장 (승가) 석지암 . (재가) 김덕환
대회 추진 위원장 (승가) 공 산 . (재가) 최익화
대회 조직위원장 자 운 . (재가)
사 무 총 장 소 운 사 무 국 장 이원주

부 대 회 장 (승가) 법붕. 종섭. 도선. 법장. 건우 (재가) 표상옥. 이내철. 한대희
봉행위부위원장 혜문. 금봉. 경천. 법원. 지원. 선담 (재가) 지정환. 황병권. 원종만

집 행 위 원 보광 (재가) 한 대희
조 직 국 장 법원 (재가) 홍 보 국 장 심은경
사 서 실 장 월암 (재가) 대구 새정수회 조준현
봉 행 위 원 혜봉.청산.정진.무영.해양.오성.도관.청운.선호.자은.묘진.혜천.청암.지원.자인.능현. 자문.종니.지광.혜원.봉정.선담.약산.원각.수인.법민.은곡.고봉.해명.혜암.혜일.혜광. 관연.자명.법련.법성.청화.관연.자명.법련.법성.청화.성각.원덕.무량.연제.법안

주 최 : 한국 육조선원. 세계 선문화. 육조선 교류연맹.

주 관 : 국제 선문화 교류 및 혜능 선 문화절 봉행 위원회

후 원 : 문화 체육관광부. KBS. 불교 TV방송국. I.B.S 중앙방송국. 108.TV 연합불교 방송국. 현대불교신문. 중국 선문화 주간. 월간 세계 불교.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 한국 불교 종정 협의회. 법왕청. 한국 불교 종단 총 연합 진흥회. 자유 총 연맹 종교 특별 위원회. 전국 의용소방 연합회. 월남 참전 세계 평화 유지군 동지회. 세계 예술 교류 협회. 세계 불교 지도자 연맹. 지구환경 보존운동본부.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국민운동 본부. 새 정수회. 나라사랑 국민운동 사회체육 진흥회. 독도 수호 국민 연합. 한국 도교 협회. 16개 불교 종단 및 신행 단체

일 시 : 법요식 - 2011년 9월 26일 오전 9시 (행사기간 9월 25 ~ 28일 4일간)
장 소 : 경북 구미시 박정희 체육관 (경북 구미시 광평동 산 50번지)
연락처 : 02)766-6800. 033)766-2556. F:033)766-2557. 02)744-6300
011-285-6800. 010-4813-6800. 010-3151-2556.

“호국불교 아니죠, 호민불교 맞습니다”



“호국불교는 호정권불교
승군이 칼잡은 이유는
백성과 세상 위함”

“구국, 챙생 명분 봉기한
임진왜란 의승군 활동은
최상승의 호법 일환”



서산 등 조선 의승군 조명

“의승군을 단순한 호국불교로 해석하는 것은 널리 생명을 위한 불교를 호왕실불교로 국한시키는 것이다. 호민불교의 입장에서 냉정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의승군은 호국불교의 극명한 특징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상승의 호법이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의승군을 불교계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개최한 조선시대 의승군을 재조명 학술세미나에서는 호국불교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의승군에 대한 불교계의 긍정적 시각과 비판적 시각이 동시에 드러났다.

먼저 양은용 원광대 교수는 ‘조선시대의 국난과 의승군의 활동’ 주제 발제에서 조선시대 의승군에 대한 시각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의승군은 임난과 정유재란에서 구국과 창생을 위해 봉기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양 교수는 “특히 의승군 전란 중 수행체제가 유지됐으며 전란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임난와 정유재란 통해 의승군 전사와 사찰 훼손에도 그 이후 높아진 불교 위상은 이러한 의승군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의승군 활동으로 불교계가 개편됐다. 의승군 활동은 최상승의 호법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스님은 반박 의견을 개진했다. 스님은 “불교사상에는 ‘호국’이란 개념이 없다”며 “호생명, 호민불교의 의미를 민족과 국가의 틀로 한정시키는 것은 편협한 종교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왕실과 사대부의 공백을 메운 것이 민초들과 승병이었고, 조선왕조 유지의 귀결이 자주적 근대화의 실패와 식민화의 길이란 점에서 오히려 역사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도 반박했다.

스님은 그렇기 때문에 승군이 경전대신 칼과 활을 잡은 산중에서 벗어나 전장을 누빈 행위는 백성과 세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당시 백성과 괴리된 조선왕실은 승군에게 부차적인 것이었다. 임진왜란 직후로 전쟁이 끝나자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위무하고 치유하는 일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며 불교 의식의 원형이 되는 의식집이 형성 정비되기 시작한 점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의승군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왕조시대 불교를 호국불교가 아닌 ‘호생명불교(護生命佛教)’로 읽어내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최초로 개최한 의승군 관련 학술세미나에서는 △조선시대의 국난과 의승군 활동(양은용 원광대 교수) △서산대사의 의승군 활동(김용태 동국대 연구교수) △조선후기의 승군제도와 활동(이종수 동국대 연구교수) △서산대사 제향봉행의 성격과 국가적 의의(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등 4개 주제의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예불에 참회의식 강화해야

신규탁 교수, 동아시아의례문화연구소 창립 세미나서 주장

“참회 없는 예불의식이 과연 가능한가. 옷에 때가 묻으면 세탁하듯 불자가 계를 어기면 참회를 해야 한다. 현행 예참은 출가 중심으로 재가 불자들의 참회를 위한 수계와 결계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조계종 현행 예불의식에 재가자를 위한 참회의식을 강화하고 불교 각 종단의 종지종풍에 맞는 예불의식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9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 출범기념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먼저 최근 조계종에서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예불의식 한글화 및 연구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신 교수는 “의례부분은 그동안 관습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대로 행해졌다”며 “이런 현실에서 불교학계와 종단에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신 교수는 규봉종밀 선사의 〈원각경도량수증의〉를 예로 현행 종단 예불의식에 예참의식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원각경도량수증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도량법사, 예참법, 좌선법이다. 이중 예불의식의 핵심은 참회의식인 예참법인데 불법승 3보에 예를 올리고 참회하기로 정의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예참은 먼저 계를 받아야 가능한데 재가자는 5계를 받지만 수계와 결계에 대한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

신 교수는 불교계 예불의식의 ‘7정례’가 종단별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신 교수는 “현재 불교계 예불문으로 사용되는 ‘7정례’는 1960년 대 이후 조계종에서 정비돼 각 종단에



퍼졌다. 불교 각 교단이 정비돼가는 마당에 각 종지와 종풍에 부합하는 예불의식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운 동아시아 의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예불은 부처님을 비롯한 상주삼보와 삼보 중 승보를 네 곳으로 세분해 일곱 배 절을 하고 있다. 이는 상주예경이 아닌 예참의 형태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 공모

불교평론이 ‘올해의 논문상’ 공모한다.

불교평론은 만해사상실천선양회와 함께 2007년부터 연구의욕 고취와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올해의 논문상’은 우수 논문 1편을 선정해 수상자에게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논문상 대상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게재된 불교관련 논문으로 △해당분야 연구를 선도한 논문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한 논문 △불교사상의 사회적 실천을 고취한 논문이다.

신청방법은 논문이 게재된 간행물 1부와 논문 원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10월 4일까지 마감으로 시장은 12월 16일 강남구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불교와 심리학의 관계 끝장낸다

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은 9월 24일 오후1~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심리 제2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불교수행과 뇌, 그 치료적 의미’란 주제로 우성일 순천향대병원 정신과 교수, 최준식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박병운 서울불교대학원대 심신통합치유학과 교수, 조옥경 서울불교대학원대 심신통합치유학과 교수,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학과 교수 등이 각각 발표한다.

사회는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학과 교수와 박성현 서울불교대학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맡는다. 02)890-2854

노덕현 기자

공중사리장엄구 37점 보물 예고

동국사 삼존상 보물 지정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상도



낙산사 공중사리탑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5호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을 비롯해 사리비, 사리장엄구 등 성보가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강식)은 9월 5일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 · 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 7종 37점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일괄 7종은 공중사리탑과 공중사리비와 사리장엄구 등 관련 유물이 결실되지 않고 모두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일괄 보존돼 높게 평가
조선후기 장엄의식 기준
승탑행 사리탑은 새 양식

사리장엄구는 조선 후기 사리장엄 의식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공중사리탑은 팔각으로 구성된 조선 전기의 사리탑 양식으로 승탑형 불사리탑이란 새로운 양식으로 관련 연구에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공중사리비는 1694년 조성된 것으로 조선 중기 이후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공중사리탑, 사리장엄구과 함께 사리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물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사리장엄구 역시 인위적인 손상 없이 처음 매납된 상태 그대로 수습돼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특히 조선후기에 접어들 무렵까지도 사리병－금합－은합－동합의 순으로 매납용 사리기를 제작해 그 안에 사리를 안치하는 전통적인 사리 장엄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17세기 중 · 후반 경 활발한 조각활동을 펼친 조각승 운혜스님의 불상양식 연구와 운혜파 조각승의 조각활동과 경향을 시기별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돼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

이밖에도 〈분류두공부시언해〉권17~19, 〈제왕운기〉, 헌종가례진하도병, 박사익 초상, 김종직 종가 고문서 등도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 관보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 공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물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과 복장유물 등 5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718호로 지정된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과 복장유물은 조성시기와 조성주체 등이 정확히 기록돼 있어 조선 후기 불상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보물 제1719호로 지정된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복장유물은 조성에 참여한 석준 스님 등이 17세기 불교조각계의 첫 장을 열었던 조각승들로 불교조각의 양식과 유파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도 보물 제1720호에는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이, 보물 제1721호에는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보물 제1722호에는 총마계회도가 각각 지정됐다.

노덕현 기자

보행

사단법인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수륙재 및 방생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우리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국운이 융창하기를 발원하고 경제가 하루 속히
회복되어 이 나라 이 땅위에 모든 국민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꽃 피우기 위하여
전국의 대한불교금강조계종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단 단체 수륙재 및 방생 대법회를 봉행코져 합니다.

대한불교금강조계종 각 사암 주지스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 동참하여 법좌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_ 불기 2555(2011)년 9월 25일 (음,8월28일) 일요일 오전 10시
▮ 장 소 _ 포항 화진포 해수욕장
▮ 주 최 _ 사단법인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총무원
▮ 후 원 _ 중앙종의회 각 지방종무원 전국신도회
▮ 문 의 _ 총무원 051)638-4088 / 총무부장 055)532-4414. 011-507-2837

사단법인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총무원장 법천 청화 합장

제4회 선운문화제
선운(禪雲), 아름다운 나눔공동체를 꿈꾸다

산사음악회



윤수일 밴드

일시 2011년 9월 24일(토) 오후 7시
장소 선운사 특설무대


정율스님


윙크


고창농악보존회


선운사합창단


다문화전통공연

부대행사

● 보은염 이운식 : 9월 24일(토) 오후 6시, 검단마을~선운사 대웅전
● 학술대회(제4회 백파사상연구소 학술세미나) : 9월 25일(일) 오전 10시
● 제3회 선운청소년음악놀이경연대회 : 9월 25일(일) 오후 2시, 선운사 특설무대
● 선운명차 시음회 : 9월 24일~25일, 선운사 만세루
● 고창주민 나눔장터(보은염, 지역 특산물) : 9월 24일~25일, 선운사 일원
● 고창군민게이트볼대회 : 9월 26일(월), 오전 8시 30분, 고창읍 게이트볼장

일시 2011년 9월 24일(토)~25일(일) 장소 선운사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후원 고창군, BBS광주불교방송

한국불교 최초 도래지 명성 잇는다

김해불교신도연합회 창립, 조유식 초대회장 취임

김해 첫 독립 신도단체 '김해불교신도연합회' 가 공식 출범했다.

김해불교연합신도회(회장 조유식)는 창립기념법회를 9월 2일 김해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봉행했다.

김해불교연합신도회는 대성(은하사 조실) · 정여(범어사 주지) · 묘허(단양 방곡사 회주) · 금강(대법륜사 회주) 스님과 강복희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김덕영 전 김해시의회의장, 선진규 전국불교신도회장 등을 상임고문으로 지도법사단과 자문위원, 이사 등 139명의 임원진으로 구성됐다.

신도회 창립의 주역인 조유식 초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김해의 선출직 시 ·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등 30여 공직자 가운데 초하루와 보름 등 법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지도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이 현실" 이라며 "김해시민이 50만 명으로 늘어나기까지 김해불교계는 계속 묵언수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조 회장은 이어 "부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가며, 한국불교 최초 도래지인 김해불교의 외호세력이자 홍법단체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영길(부원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예회장은 "이웃도시에서 불자들이 몰려들어오는데 이를 받아줄 곳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자비실천운동을 통해 김해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 기업의 대표가 되고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돼 대자대비사상을 실현한다면 더없이 행복한 김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삼국시대 가락국이 번성한 곳으로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허왕후와 보옥 선사가 직접



9월 2일 김해불교신도연합회가 창립돼, 조유식 초대회장(오른쪽)이 취임됐다.

불교를 가지고 온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도래지로서 자부심이 강한 지역이다. 최근 신도시로 조성된 장유 지역에 매년 1만여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체 증가에 따른 종업원수가 늘어나고 있다.

10년 사이 인구가 34만에서 49만으로 15만 명 이상 급증했으며, 이 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김해불교계는 늘어난 인구를 대상으로 한 포교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055)332-3310

박지원 기자

신도증 발급받아 할인 혜택 받자

조계종 멤버십 가맹점 실시
호텔·병원 등에서 할인받아

조계종 신도증이 있으면 누구나 전국 코모도호텔 최고 40%, 부산대 한방병원 진료비 1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부산범어사(주지 정여) 설법전에서 '신도 멤버십 협약식' 을 갖고, 코모도호텔(회장 이영숙, 前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과 부산대 한방병원(원장 이병렬) 간의 협약을 9월 3일 체결했다.

정여 스님은 "옛날 조상들의 상부상조하던 미덕은 사라졌지만 다양한 멤버십에서 우리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불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이익을 위해 선뜻 동참해준 두 불자기업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하고 매년 교무금을 납부하는 신도에 대해 코모도호텔 숙박 이용요금의 40%, 부산대 한방병원 진료비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코모도호텔 부산은 주중과 주말



9월 3일 부산코모도호텔에서 '신도 멤버십 협약식' 을 개최했다.

구분 없이 연중 객실 이용요금의 40%, 식당 등 업장 20%, 사우나 50% 등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단, 코모도호텔 경주의 경우 객실 주중 50%, 주말 30%로 지역별로 할인율의 차등이 있다.

부산대 한방병원은 정상 진료비를 스님 20%, 재가불자 10%씩 각각 할인해준다.

이영숙 코모도호텔회장은 "기업인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불자로서 포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고객 한 분 한 분을 부처님처럼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렬 부산대 한방병원장은 "사람의 건강을 좌우하는 육체적 건강은 우리 병원에서, 정신적 건강은 불교계에서 전담한다고 생각한다"며 "조계종 멤버십 가맹 사업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포교원은 제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신도 교육 및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100만 신도 등록, 10만 교육 훈련, 1만 전문 인력 신도 양성' 1차년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박지원 기자

"다양한 일자리 창출"
부산영도시니어클럽 개관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혜원(이사장 원허)의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부산영도시니어클럽(관장 전현수)이 문을 열었다.

혜원은 부산 영선동3가 부산영도시니어클럽에서 9월 9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법인 혜원은 7월 29일 영도구청과 부산영도시니어클럽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8월 1일 사무실 계약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 8월 말까지 사무실 리모델링 및 지하 교육장의 공사를 마무리했다.

영도시니어클럽 1층(118.45㎡)에는 사무실과 상담실, 방아깨비 사업단 사업장, 회의실이 있고, 지하 1층(36.80㎡)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장 및 강당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복지법인 혜원 이사장 원허 스님은 "근로 능력이 있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반야심경' 읽으려고 한글 공부 했습니다

조유식 김해불교신도연합회 초대회장

조유식 김해불교신도연합회장(사진)은 18살 때까지 한글을 읽지 못했다. 다사다난했던 가족사로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살아있는 어머니를 두고도 고아처럼 외롭게 성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교가 찾아왔다.

"이른 아침 한 운동장에서 불교청년회원들로 구성된 조기축구회를 만나서 함께 공을 차게 됐어요. 이때 만난 도반들에게 매료돼 처음 절집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싶어서 늦은 나이에 한글을 배우러 부산에 있는 학원까지 다니게 됐지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후 조 회장의 삶은 180도 변했다. 복수하기 위해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온갖 무술을 연마하던 거친 주먹은 연꽃 봉우리처럼 곱게 합장을 했다. 그리고 복수의 대상은 남이 아닌 내가 되어, 전생의 업장소멸을 위해 주먹다짐이 아닌 수행정진과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 후 큰스님들의 설법을 좇아다니며 구법의 길을 걸으며 사업 또한 성공의 길로 접어들었다. 수 천 만원의 사비를 털어 김해시봉축연합대법회를 주최할 정도로 그의 신심과 원력은 뜨거웠다.

"13년 전 김해불교청년회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때에 김해 불교계를 이끌던 한 스님께서 제게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승가에게 일임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연히 스님들께서 이끌어야 할 일을 한낱 재가자가 나서서 잘난 척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때 향후 10년간 교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김해불교의 번영기였던 1980년 초 조유식 김해불교신도연합회장의 고군분투로 시가지에 불교회관이 들어섰다.

이곳에서 김해불교시민교양강좌를 74회 개설하고, 어린이 · 청소년법회와 바라밀교사회, 불교실업인회, 여성자비회 등 10여 개의 신행단체를 설립했다. 방학이면 어김없이 불교학교가 열렸고, 부처님 오신날이면 성대한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김해불교계의 터줏대감격인 승가단체의 곱지 않은 시선이었다.

"그동안 일선에서 물러나 재가자로서 묵묵히 지켜봤지만 김해시의 성장 속도에 못 미친 채 오히려 불교계만 뒷걸음질 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웃 종교에서는 연간 수십억의 시 예산을 지원받아 대외사업과 시민운동을 전개하지만, 김해불교계는 사회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최근 대두되는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 노인인구 등을 감싸 안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동체대비심과 대자대비의 사상입니다."

이에 조 회장은 임기 동안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사회 봉사활동' 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불교문화사업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불교계 인재불사를 위한 불교지도자아카데미, 김해불교아카데미도 잇달아 문을 연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사생대회, 붓다가족축제 등 흩어진 불심을 결집하기 위한 다채로운 축제도 기획하고 있다.

"불우한 청소년기에 제 삶의 나침반이 되어준 것은 부처님이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던 제 마음에는 어느덧 현재의 내 모습은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복 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법문을 깊이 새겼습니다. 제게 두 번째 삶을 열어준 감사한 불교를 모두에게 전해서 우리 사회가 더 밝고 아름다운 불국토가 되길 발원 합니다."

박지원 기자

부산의 가장 큰 사찰은 '범어사' 아닌 '만덕사' 였다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원장 김귀경)은 코모도호텔에서 명사초청강연회를 9월 8일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는 나동욱 부산근대역사관장(사진)이 단상에 올라 '부산의 역사와 문화' 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나동욱 관장은 "부산의 역사는 1만 5000년 전 구석기시대부터 시작됐다. 부산 전역에 고루 분포된 시대별 유적에서 오늘을 있게 한 선조들의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며 "우리 불자들이 먼저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부산의 정신문화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산은 통일신라시대에 대규모 사찰 '기비사' 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넓은 폐사지가 많은 불교가 가장 번성한 도시였다고 주장했다.

나 관장은 "통일신라시대 부산에서 가장 큰 사찰은 범어사가 아닌 만덕사였다. 법당 지붕의 치미(화재나 액운을 막는 의미의 장신구)를 복원해 경주 황룡사보다 훨씬 규모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훗날 조선후기 김정호가 그린 청구도를



통해 만덕사의 원래 이름은 '기비사' 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부산시 지정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바라.작법무)
사)전통불교 조계종 부설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각 사찰행사전문)

본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3기 학인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강의내용	요일	시간	특강
• 이론 및 실기. 사물, 각종 사찰행사 실기	수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인간문화재 경호 큰스님 직강 •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이사장. 부산영산재작법무 조교 원산 스님 • 속성반 (010-2563-5550) 1. 바라, 작법무, 사물. 2.사주 명리(성명)학
• 전통소리(안정사) • 삼신이운 및 전통불교의식 • 무형문화재 제9호 오공양 작법소리 • 복청게(천수바라)	목	4~5시	
• 오공양 작법무 (운심작법, 다게작법, 삼귀의, 작법무) • 천수바라(무) (사다라니바라)	금	5~6시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 영산보존회의 바라. 작법무

1. 본교생(졸업)으로서 성적 우수한 자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전수 장학생 추천"
2. 부산시 영산재 행사 출전 실무
3. 년 1회 정기행사 직접공연 (공연발표회, 영산대재, 산신대재, 수륙대재 등)

■ 입학서류 : 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1장
■ 접 수 일 : 2011년 9월 5일 - 9월 30일 (수시)
■ 입 학 식 : 2011년 9월 29일 목요일 오후 3시

(사)전통불교조계종 총 본 산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부산영산재연수원(바라.작법무)

부산시 범일동 1454-17 귀 영축사
총무원 : 010-2563-5550. 070-4128-8975. 팩스 051)635-8975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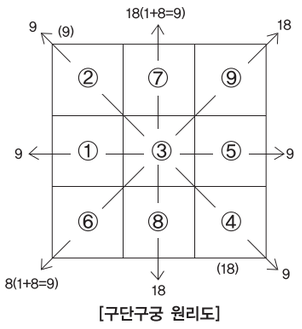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 종헌 (정흥교) 큰스님 직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구단구궁법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93호



[구단구궁 원리도]

***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강 의
목 · 금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부산불교전법대학 · 대학원 - 구단구궁연구회 051)467-4665 / 010-7725-1024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혜덕왕사 소현 (下)
(慧德王師 韶顯; 1038~1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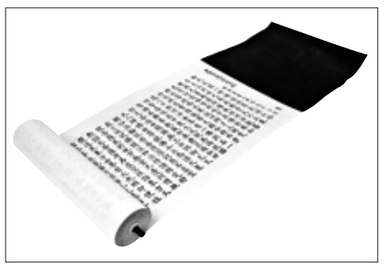
승려의 본분을 지켰던 왕사

소현 스님의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면 무엇보다도 유식 관련 주석서들을 모아서 간행한 것이다. 스님은 금산사에 주석한 초기에 금산사 남쪽 60걸음 가량 떨어진 곳에 광교원(廣教院)을 창건하고 유식종(법상종)에 관한 각종 경론을 판각해 광교원에 보관했다. 비문에 의하면, 스님은 태강 9년(1083년)부터 입적하는 1095년 무렵까지, 자은 대사 규기가 지은 〈법화현찬〉과 〈성유식론술기〉 등 32부 353권의 장소(章疏, 경전과 논서에 대한 해설서. '교장敎藏'이라고도 부른다)를 구해 그 판본을 교감하는 한편 각수(刻手)를 모아 판각했다. 이에 더해 스님은 개인적으로 종이와 먹을 갖추어 인쇄해 유통시킴으로써 널리 법보시를 행했다고 한다.

스님이 자은 대사 규기의 저술을 비롯한 유식종의 장소(章疏)를 판각한 1083~1095년의 시기는, 스님의 조카이자 문종의 왕자 출신이면서 화엄종의 승통(僧統)이었던 대각 국사 의천(1055~1101)이 개경 흥왕사에 교장도감(教藏都監)을 설치하고 화엄종의 장소를 중심으로 여러 종파의 전적들을 간행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의천 스님의 교장도감 설치와 교장(教藏, 일부에서는 속장경으로도 불린다) 간행, 그리고 소현 스님의 유식 장소 간행 둘 모두 문종의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73년 〈거란대장경〉이 전해지면서 고려는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 간행됐던 대장경을 대부분 구비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고려는 고려초조대장경의 완성을 재촉하는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장' 구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1073년에 의천은 '세자를 대신해서 지은 교장을 모으기를 발원하는 소[代世子集教藏發願疏]'를 부왕인 문종에게 올렸는데 이는 불교계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 무렵부터 외삼촌과 조카 사이이면서, 각기 법상종과 화엄종을 대표했던 소현 스님과 의천 스님의 역할 분담이 있지 않았던가 싶다. 1011년~1087년 무려 76년에 걸친 초조대장경 조성사업, 그리고 1087년에 흥왕사에서 본격화되는 의천의 교장 간행 사업 등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고려 왕실이나 조정으로서는 대장경 조성사업 이외의 간행사업은 비용과 역할, 지역에 이르기까지 적절히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화엄종과 나란히 성세를 구가하고 있는 법상종의 대표자인 소현 스님이 그 역할 분담이 가능한 새로운 지역으로 호남의 중심 사찰이었을 금산사를 택한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려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 고려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간행됐던 대장경을 대부분 구비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고려는 초조대장경 완성에 재촉을 가하고 의천·소현 스님이 대장경 조성사업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다.

유석 관련 주석서 모아 간행
법상종 소현, 화엄종 의천은
초조대장경 조성사업에 큰 역할

"바야흐로 일생을 기약하여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여 참된 가르침을 널리 전하였는데, 이제 스님께서 입적하셨으니, 나는 누구와 함께 친할 것인가."

스님이 입적한 후 의천 스님이 지은 제문의 일부인데, 두 분 스님의 관계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스님은 유식종의 장소를 간행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 것은 아니었다. 유식종의 조사와 법통을 제정한 것은 물론, 특유의 신앙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일찍이 스님은 광교원 안에 별도로 금당(金堂)을 두고 노사나불과 중국 법상종의 조사인 현장(玄奘)·규기(窺基) 두 스님의 존상을 봉안해 도솔천 내원정토에 나기를 발원하며 규기 스님의 행적을 늘 흠모해 잊지 않았다고 한다. 또 자씨(慈氏, 미륵불)의 탱화를 그려 봉안한 소현 스님은 1075년부터 입적할 때까지 22년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7월 14일에 법회를 열어 종도들을 모아 예참하고 귀의한 후에, 크게 재(齋)를 베풀어 보시했다. 이는 이른바 미륵불 탱화불사인데, 훗날 법상종 사원의 조사탱화 봉안으로 이어진다.

중생을 구제하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중교화와 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도 승려의 길이요, 불도를 성취하기 위해 가일층 수행에 진력하는 것 역시 승려의 길이다. 그리고 스님처럼 교단의 종조법통을 세우고, 법식을 정비하며, 의지해야 할 전적을 정비하는 것 또한 승려가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길일 터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화엄종의 조사 묘에 상인(明惠上人) (下)

굶주린 늑대 위해 몸 내주기도



코잔지(高山寺) 세키스이인(石水院), 국보

밀교에도 깊이 심취한 그는 어느 날 강에서 말을 씻기고 있는 마부가 "아시아시"하고 말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을 들었다. 묘에는 이를 "아지아지"로 듣고, 그 말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아자(阿字; 일본어로는 아지라고 발음함)라고 생각해 "지금 당신이 아지 아지라고 한 것은 매우 고마운 말입니다. 그 말은 어느 분의 말입니까"하고 물었다. 마부는 당시 궁중 경비를 맡은 관리의 직책인 부생(府生)님의 말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묘에는 "아, 이것은 아자본불생(阿字本不生; 府生와 不生의 발음이 후쇼로 같음)이 아닌가"하며 감탄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마부와 말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인사를 올렸다고 한다. 아자본불생이라는 말은 일체언어의 근원인 동시에 일체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밀교의 중요한 교의에 해당한다. 묘에가 얼마나 불도에 깊이 불타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화인 것이다. 묘에는 모든 현상이 삼계유일심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밀교 수행이 동물과 소통케 해
순수한 마음이 영적인 힘 키워

밀교 수행은 그가 새나 동물과도 소통할 수 있는 영감을 얻게 했다. 묘에는 어느 날 밤 수행 중 눈을 크게 뜨고, 큰일이 났다며 지금 밖에 까치 새끼가 뱀에게 먹히려고 하니 도와줘야 한다고 외쳤다.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며 그가 가리킨 곳에 가보나 정말로 큰 구렁이가 까치 새끼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얼른 까치 새끼들을 구해냈다. 묘에는 이처럼 동물만이 아니라 나무 돌 풀 달과도 마음이 통하는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영적인 힘을 체득했다.

무엇보다도 그의 두드러진 행적은 철저한 이타행이라고 볼 수 있다. 묘에는 어느 날 여행 도중 길가에 손발이 썩은 나병환자를 보게 됐다. 슬픈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여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득 인육이 유일한 묘약이라는 말을 듣고 작은 칼을 들고 나병 환자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갔다. 하지만 그 환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또 한 번은 늑대가 시신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됐다. 당시에는 화장이 널리 보급되지 않아 강에 시신을 버리곤 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했던 묘에는 밤이 되자 자신이 그 곳에 누워 늑대에게 먹히길 기다렸다. 그러나 늑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간의 고통을 돌아보는 자비심은 전쟁미망인들에게도 미쳐 비구니 사찰인 젠묘지(善妙寺)를 창건하기도 했다.

묘에의 독특한 점 중의 하나는 40년 가량 자신의 꿈을 기록한 〈몽기(夢記)〉를 남긴 것이다. 이를 분석한 카와이 하야오(河合隼雄)에 의하면 당시 승려들에게 꿈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도 하는 계기를 주었다. 현대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12~3세기에 이미 원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체험이 꿈의 형태나 계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묘에의 기록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묘에는 만년에 일단의 승려 조직을 결성해 관행(觀行)과 강경(講經)을 행하며, 화엄밀교의 교의와 수행법인 소위 불광관(佛光觀)을 완성했다. 그의 여러 저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나라 이통현의 가르침에 기반한 〈화엄경〉 광명각품 설에 따르면 10신위로부터 10주에 들어가는 길에 비로자나불의 광명을 받고 성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상적으로 불법의 회통과 종합성을 중시하는 구불교 교단에 속했던 묘에는 사회의 격변기에 이러한 정신에 바탕한 대승정신을 온 몸으로 체현하고 실천한 조사였다. 불법의 참된 의미가 시공을 넘어 이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

야반삼경에 대문 빗장을 만져 보거라

1982년 7월 17일(음력 5월 27일) 91세의 경봉 선사는 미질을 보여 문도들을 불렀다.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느낀 명정 스님은 "스님! 가신 뒤에 뵙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스님의 참 모습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주위를 둘러 본 뒤 말했다.

"야반삼경(夜半三更)에 대문 빗장을 만져 보거라."

이처럼 경봉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생생한 '화두'를 제시해 수행의 길에 서게 하는 자상함을 보였다. 평생을 수행하면서 간화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찾아오는 많은 제자들에게 간화선을 지도했던 선지식이었다.

경봉 스님의 법문에서 소염시(小簾詩)의 유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자주 소옥이를 부르지만 소옥에게는 일이 없다.

다만 낭군에게 들어오라 알리는 소리일 뿐」

이 시에 얽힌 고사가 참 재미있다. 양귀비가 밤으로 자주 그의 몸종 소옥이를 부른다. 소옥이를 부르는 것은 실은 그의 정부(情夫)인 안록산을 부르는 암호로써 "소옥아 소옥아" 하고 부르는 것이다. 이 계송을 소염시라고 하는데, 오조법연(五祖法演, ~1104)스님이 객과 이 시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원오극근(圓悟克勤, 1063~1135) 선사가 도를 알았다.

이처럼 몸종을 부르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록산에게 자기가 거기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화두도 마찬가지로 제자가 그것을 도구로 하여 본래면목을 알아차리도록 하는데 있다. 경봉 스님은 이러한 '소염시'에 얽힌 고사를 통해 대중에게 화두를 통한 수행, 즉 간화선(看話禪)으로 제도했다.

올해 1월부터 조계종은 자성과 쇄신을 위한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 5대 결사(結社)'를 제시하고 추진 중에 있다.

경봉 스님도 이러한 신앙결사를 주도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만일참선결사와 만일염불결사 그리고 화엄산림결사다.

만일참선결사는 1926년 통도사 내원암에서 용성 스님의 '만일참선결사'를 옮겨와 시행한 것을 말한다. 이는 활구참선(活句參禪)이 주된 간화선 수행결사로서 멀리 고려 보조지눌 스님 수선사(修禪社)의 정혜(定慧)를 함께 닦는 결사를 계승하고 있으며, 가까이는 경허 스님이 주도한 정혜결사를 잇고, 이후 성철 스님 등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로 이어졌다.

만일염불결사는 경봉 스님이 1925년 10월 통도사 극락암에서 '양로염불만일회'를 결성해 회장직을 맡아 재가불자들을 지도했다. 이는 타방정토(他方淨土)차원의 중생교화로 볼 수 있는데, 당시 만일염불결사 중에서도 노인을 그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화엄산림결사는 경봉스님에 의해 1927년 12월 극락암에서 화엄산림법회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통도사에서 1년 행사중 비중있는 법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봉 스님은 〈화엄경〉의 평생토록 공부해도 스스로의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내용은 출가 후 대발심의 동기가 되었다. 또 만해 스님이 통도사 강사일 때 〈화엄경〉을 보았고, 깨달음도 〈화엄경〉 법회도중이었다.

이와 같이 선사이면서도 다양한 분야로 중생구제에 심혈을 기울이신 것을 알 수 있고 후학들에게 귀감이 됨을 느낀다.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9월 중
◆ 개강일시 : 2011년 9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약간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온라인 무료 강원생 모집

본종 중앙승가강원에서는 포교일선에서 전법에 여념이 없으신 사문들을 위해
전학년 무료로 사이버 공간(온라인)을 이용한 강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맺으실 사문들을 기다립니다.

▸ 모집학과 : 승가학과 00명 (선착순)
▸ 응시자격 : 승려, 법사(가입종단 상관없음)
▸ 교학과목 : 아함경, 법구경, 금강경, 능엄경, 원각경
▸ 교학기간 : 3년 6학기
▸ 응시기간 : 9월 30일까지 (10월 10일 개강예정)
▸ 응모방법 : www.arahan.org에 접속 후 회원가입하신 다음 → 종단기관 → 중앙승가강원 → 승가학과 아래쪽의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다음 031)753-3354 팩스 송부하시면 됩니다
▸ 문의메일 : nibvana@hanmail.net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륜불교조계종 중앙승가강원
043)848-7556 /031)753-7377

불교를 논하며 삼매에 빠져 보자

제7회 빛고을불교아카데미

광주를 대표하는 불교계 대표적 강좌,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가 개최된다.

'2011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와 자비신행회, 광주전남불교신도회, 현대불교신문사 및 광주지역 불교신행단체 공동주관으로 9월 21일~11월 2일 매주 수요일 7회에 걸쳐 '한권의 책으로 만나는 불교이야기' 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올해 7번째 열리는 이번 불교아카데미에는 불광출판사의 인기 작가들을 초청해 책속에 담긴 불교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강연에는 ▷우승택 경제야생테크 대표(〈우승택의 생테크 날줄 원각경〉) ▷오윤희 前 고려대장경연구소장(〈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김정호 덕성여대 교수(〈마음 챙김 명상 멘토링〉) ▷선재 스님(〈선재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전현수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의사가 붓다에게 배운 마음치료 이야기〉) ▷공생선원 선원장 무각 스님(〈그대 삶이 경전이다〉) ▷송광사 광원암 암주 현봉 스님(〈대승불교의 정수, 반야심경〉)이 강연에 나선다.

이번 강좌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강단에서 저술한 책을 바탕으로 강연을 이어갈 예정이며, 강연 후에는 질문과 답변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를 비롯해 재가신행단체가 연합해 열리는 강좌로 2005년 '부처님의 10대 제자와의 행복한 만남' 을 주제로 시작해 2006년 '인간 붇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2007년 '행복한 삶으로 가는 네 가지 디딤돌', 2008년 '깨침의 소리, 나를 흔들다', 2009년 '여래의 사자를 만나다', 2010년 '경전의 숲에서 단비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매회 1000여명의 이르는 청중이 참가했으며 호남지역 최대의 불교공부 마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국의 큰 선지식인 월운 스님, 혜거 스님, 무비 스님, 종범 스님 등 많은 강사스님들이 빛고을불교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펼쳐 행사의 수준을 끌어 올렸다. 또한 불교교세가 약한 호남지역의 불교활성화를 화두로 불교 배움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직장인 및 청년층의 불교 이해를 통한 계층포교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대중강좌의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 불교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를 불교적 가치로 해석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05년 빛고을불교아카데미에 참석한 청중들이 강연에 집중하고 있다.

복지통한 포교 활성화 강화

고창 선운사 제2차 교구종회

전북 고창지역에 포교와 복지를 아우르는 불교회관과 아동복지타운이 건립해 복지를 통한 포교 활성화 기반 마련에 나선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주지 법만)는 9월 7일 교구종회의원 48명중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교구 종회를 개최하고 선운사 복지재단 설립, 선운사 불교회관 및 아동복지타운 건립, 효문화 진흥원 건립안, 귀농마을 및 귀농지원센터 설립안 등의 안건을 결의했다.

이 날 교구종회에서는 고창시내 중심가에 약 3000평의 부지를 마련해 불교회관 및 아동복지타운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영유아보호시설(영유아 어린이집 건립)과 방과 후 보육시설, 아동상담실, 부모교육실, 장난감 도서관, 영어체험센터, 어린이도서관은 물론 아동과 청소년 문화센터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효문화진흥원' 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孝)를 국가차원에서 장려, 효행을 통해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얻기 위해 추진된다. '귀농마을 및 귀농지원센터' 는 미취업과 조기 은퇴 등 실업문제와 증가하는 귀농인구, 사찰 토지 활용을 위해 추진된다.

한편 선운사는 이러한 계획이 마무리 되면 수행과 복지, 전법과 포교,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노후수행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선운사는 입주하는 스님에게 입적 때까지 안정된 주거와 수행처 뿐 아니라 매월 수행연금 등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복지·의료시설과 연계해 간병, 수발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마을 안에 마을회관도 건립하고 도서실, 휴게실, 다각실, 물리치료실 등 스님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는 9월 7일 교구종회를 열고 복지재단 설립, 불교회관 건립 등을 결의했다.

불교계가 지역특산품 홍보도
제1회 2011남도문화대축전

호남지역 불교계가 남도지역 향토특산품을 알리고, 다양한 문화행사 선보이는 대규모 문화축전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는 10월 28~31일 광주 염주체육관 실내와 주차장 일원에서 '제1회 2011남도문화대축전' 을 개최한다.

'문화 계승 및 행복한 공동체'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천수천안' 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중국 장애인예술단을 비롯해 놀이패(신명) 도립국극단 청소년댄스경연대회 행복창조 결집대회 작은음악회 가족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전남의 25개 시·군의 대표음식이 참여하는 남도향토음식체험과 28개의 직거래장터와 먹거리장터, 최근 설립한 불교 생협인 절로살림의 19개 부스가 운영돼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를 제공한다.

한 행사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전통문화를 그냥 바라보는 것만이 아닌,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 며 "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민들과 소비자간의 거리를 좁혀 특산물 판매촉진 및 지역 농어민 돕기에 일조하고자 한다" 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팔공산 '승시' 성료

팔공산 '승시' 축제가 내·외국인 12만 명 방문 등 성황리에 폐막했다. 2011년 승시축제는 승시마당, 문화마당, 공연마당의 3개 마당으로 진행됐다. 특히 문화마당에서는 일반에 쉽게 공개되지 않는 초조대장경 1차 복간본과 건봉사 부처님 치사리를 친견 자리가 마련돼 큰 호응을 받았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군민과 함께 한 송림사 행복나눔 음악회

칠곡 송림사(주지 혜성)는 9월 3일 경내에서 제2회 행복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립국악단의 연주 등이 진행된 이날 음악회에는 3000여 칠곡군민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행복나눔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지역 대학생 14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송림사 주지 혜성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누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고 말했다.

한편 송림사는 통일신라시대 전탑이 남아 있다. 또한 대웅전에는 본존불인 석가모니불을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협시하고 있는 석가삼존불좌상이 봉안돼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가위 사랑의 온정나누기'
물품 전달 고창군주간보호센터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완)은 9월 8일 '한가위 사랑의 온정나누기' 전달식을 진행했다.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 지역사회와의 상생노력과 저소득계층을 위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명절선물이 전달됐다.

KT고창지사를 통해 기탁된 물품을 명절선물로 전달한 도완 스님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는 직원들 덕분에 어르신들에게 이번 명절은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의 관심과 사랑이 하나, 둘씩 모여 지역주민 모두에게 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은 2007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선운사에서 고창군으로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다.

고창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노인 연계 프로그램 '원예치료 프로그램 & 어르신 전문인력 양성교육' 을 진행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함께 땀흘리다보면 어느새 한 식구

전북지역 불교대학
제11회 연합체육대회

전북지역 5개 불교대학 화합 큰 잔치인 '제11회 전북지역 불교대학 연합체육대회' 가 9월 28일 전주교육대학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전북 소재 화엄 전북 이리 남원 무주불교대학 등 5개 불교대학 재학생 및 동문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해 배구 터치볼 단체줄넘기 2인3각 탁구 단체달리기 화합의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으로 펼쳐진다.

전북사암승가회(회장 원행, 금산사 주지)주최로 올해로 11번째 맞이하는 불교대학 체육대회는 전법과 포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대학의 화합과 친선도모를 위해 매년 전북사암승가회에서 주최하고 있다.

행사 관계자는 "지성불교, 복지불교를 위해 노력하는 전북지역 불교대학인들의 화합과 도약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다"며 "전북지역 불교대학간의 교류는 물론 학인들간의 친선을 도모하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니다’ ‘내다’ 하며 싸우는 것 얼마나 소모적인가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

전국 전·현직 선원장 스님들을 초청해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봉은사(주지 진화)는 9월 4일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금봉암 주석, 前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을 모시고 선지식 초청 일요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고우 스님은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행을 해나가면 외적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또 존재의 원리를 이해하고 ‘너’와 ‘나’라는 분별심을 없애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스로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스님의 법문 요지다.

정리=이나은 기자

보물은 내 안에 있다

마조 스님이 대주 스님에게 “여기 무엇하러 왔느냐”라고 묻자 대주 스님은 “불법을 구하고자 왔다”고 말했다. 마조 스님은 “자기 자신의 보물창고는 돌아보지도 않고 집을 버리고 쓸데없이 와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자리의 여러 분들도 각자의 보물창고를 갖고 있다. 그것만 발견하면 밖으로 찾아 헤맬 일이 없다.

부처님은 2600년 전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났다. 29세에 출가해 6년 만에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원리를 말한다. 부처님이 외적인 조건을 갖춘 왕자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만족 하지 못하고 출가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다.

부처님은 권력·부·학문·무예 모두를 갖췄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청년이 된 부처님은 개인적으로 어머님의 죽음과 사문유관(四門遊觀)을 통해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을 했고, 사회적으로는 4성계급에 대한 고민을 했으며, 국가적으로는 강대국과 약소국간 수로(水路)를 두고 빚어지는 전쟁에 대해 고민 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다. 지금 우리는 행복해지려 한다. 하지만 대개 밖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부처님은 외적으로는 다 가졌지만 만족을 못했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어도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부처님의 출가를 통해 배워야 한다.

우리 의식을 바로보고 변화시키면 외적인 조건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의식이 바뀐 상태에서는 역기능, 순기능이 번갈아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순기능만 작용하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부처님이 발견 한 것이 그것이다.

불교는 연기설 종교다. 연기설을 말한 종교는 부처님 밖에 없다. 이 연기설은 과학과 일치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참선 교학 염불 절 등 여러 수행을 해 나가면 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회도 더 많아지고 더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절대로 역기능(불행한 일)이 작용하지 않는 순기능만 작용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를 없애면 행복해진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불리하게 되거나 비난을 들으면 화를 내는 것이다.

내가 있으니 상대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나와 상대를 갈라놓고 사고를 한다. 이게 자기존재의 원리를 모르고 사는 것이다. ‘나’라는 카테고리 속에 자기 자신이 갇혔다.

우리가 상대적(너와 나를 분리하는 생각)이고 유한한 사고에서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고로 바꾸어 생활하면 부처님이 돼 외적인 조건과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절대로 나를 해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삶으로 바꾸려면 불교 수행을 해야 한다. 그 가운데 제일 빠른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반야심경〉에 쓰여있다.

〈반야심경〉은 270자이다. 그 중 오온개공도일체고액(五蘊皆空度一切苦厄)이 내용의 핵심이다. 이 중 핵심은 ‘공(空)’이다. 오온이 공한 줄 알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상대적이고 유한한 사고에서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고로 바뀌어 매일 좋은 날이 된다.

오온(五蘊)은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이다. 색(色)은 모든 형상을 일컫는데 광범위하니까 몸에 국한 시켜 생각해보자.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수상행식이다. 간단히 말하면 육체와 정신이다.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왜 공하다고 했을까.

현대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이 진리를 알고 있었다. 최근 〈파이만의 여섯 가지 물리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다. 책은 불교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책에서 파이만은 대중 앞에서 “수억만개의 원자덩어리가 여러 분들 앞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면 믿겠느냐”라고 말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라는 육체와 정신을 단일한 독립된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과학자는 ‘나’라는 존재를 수억만개의 원자덩어리로 봤다. 어느 것을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불교에서는 이것을 여러가지가 모여서 됐다는 뜻으로 ‘연기(緣起)’라고 표현했다.

연기는 단일로 독립돼 존재하지 못한다. 수억만개가 연관을 지으면서 우리가 존재한다. 왼손 검지 A와 오른손 검지 B 두 개를 모으면 삼각형이 된다. 이 삼각형에 C라는 이름을 짓는다. A, B가 연기로 인한 삼각형이 돼 C가 생성됐는데 우리는 자꾸 C만 있다고 생각한다. A, B도 마찬가지다. 다른 존재들이 모여 A, B가 생성됐다. 그렇게 소급해서 올라가면 힉스(higgs)라는 입자가 있다. (힉스라는 과학자에 의해 발견돼 ‘힉스’라 불여짐)

스위스 국경지방에서 수 조원을 들여 길이가 100m에서 27㎞길이의 터널에서 원자를 발견하기 위한 빅뱅실험을 하고 있다. 아직 물질이 되지 않은 소립자를 발견했다. 과학자들은 이를 ‘힉스’, 즉 ‘신(神)의 입자’라고 이름을 붙였다. 아직 물질화 되지 않은 이 입자는 질량화 돼 있지 않다. 이것이 공(空)이다. 힉스는 일반 사람이 말한 공과 다르다. 부처님이 말한 공과 같다. 이 공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른 무엇을 만나면 질량화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무한한 사고를 하게 된다. 참선을 통해 도를 깨달으면 100% 무한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우 스님은… 고우 스님은 25세 때 경북 김천시 청암사 수도암에서 출가한 후 거의 평생을 봉암사, 범어사, 각화사 등의 선원이나 암자에서 수행 정진했다. 1968년 결사도량으로 유명한 문경 봉암사에서 선원을 재건해 조계종 종립 특별선원의 기틀을 다졌고, 이후 선원수좌회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 2008년 대종사에 올랐다. 40여 년 선의 길을 걸었던 스님은 10여 년 전부터 재가불자를 상대로 강의에 나서는 등 선의 대중화에 힘을 쏟고 있다. 오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어렵고 현학적인 불교 용어 대신 쉬운 우리말로 불법을 명쾌하게 설명, 선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켰다.

> 수 억 만개 원자덩어리가 있는데
> 어느 것을 ‘나’라고 할 수 있겠나
> 공(空)과 만물의 연기(緣起) 통해
> 연기적 생성 안다면 갈등 사라져

행복의 4가지 조건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수행하면 그 수행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해 ‘내가 절에 오래 있었다. 내가 수행을 몇 년 했다’ 등 아상(我相)이 생긴다. 그러면 그분은 수행 안한 것 보다 못 한 것이 된다.

수행을 통한 대표적인 효과 4가지를 말해주겠다.

첫째, 무아(無我), 공(空)을 이해하면 100% 깨닫지 못해도 생각이 바뀐다. 남과 비교 하지 않게 된다.

그 비교를 하면서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고 교만해지다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그 교만이 나를 몹시 비참하게 만든다.

비교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이 매우 귀중해진다. 나도 불교를 만나기 전 얼마나 비교를 했는지 폐결핵이 걸렸다. 그 덕분에 절에 요양 왔다가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스님이 됐다. 비교를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게 된다. 나를 사랑하니까 남도 사랑하게 됐다.

시골에 가면 새끼줄이 있다. 짚신이 있고 멍석과 가마가 있다. 모양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다. 재료는 모두 짚으로 돼있다. 이 짚이 무아, 공이다. 이 지푸라기를 이해하면 아내와 남편 간에 소통이 잘된다. 국회에서 여·야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진보든 보수든 국가와 국민이 잘 되자고 만든 제도인데 그 제도를 괴롭히면 제도를 만든 목적을 잊어버리게 된다. 수단과 목적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를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불교를 알면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가정주부, 직장인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일에 집중해서 열심히, 즐겁게 일할 수 있다. 그렇게 일하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된다. 인정을 받으면 보수도 더 받고 존경도 받게 된다. 열심히 즐겁게 일한 사람은 인격이 형성된다.

세 번째는 자주의식이다.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말이 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는 뜻이다. 이곳에 직장인이 많을 텐데 직장에서 스스로 주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 하는가. 아니면 ‘월급이나 받고 그냥 일하지’라고 생각하며 일하는가? 월급을 목표로 일하면 주체의식도 없는 거다.

조계종 스님이 1만 3000여 명이 있다. 그 가운데 주인의식을 갖고 중노음 하는 사람이 몇 분이 될까. 신도님 중에도 주인 의식을 갖고 ‘봉은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분이 몇 사람이나 될까.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삶을 잘 못 살면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잃어버리고 냉소주의에 빠진다. 그 집단이나 절은 절대로 잘될 수 없다. 방만주의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면 그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나쁘다 하더라도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절에 다니고 스님들도 수행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주인의식이 참 중요하다.

최근 무상급식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사퇴했다. 복지가 잘못 이해돼 주인의식을 잃는다면 그것은 안하는 것 보다 못하다.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복지가 된다. 주인의식 없이 ‘무엇을 받아먹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복지도 아니고 정신적 복지도 아니다.

네 번째는 소통이다. 지금 이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여야 정치대립, 노사갈등, 이혼률 증가 등 사회갈등이 심해지는데 전부 소통의 부족 때문이다.

소박한 이야기 하나 하겠다. 노사관계를 보자. 소통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사측에서 노동자를 ‘아, 저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분들 보다 더 좋은 처우를 받는구나. 저분들 덕을 보는구나’라고 사실대로 본다. 노동자는 사측을 ‘저분은 능력이 있어 공장도 만들고 회사도 만들어 우리 월급주고 가족들 먹고 살게 하는 고마운 분이구나’하고 사실대로 본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갈등지수가 가장 높다고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갈등현상으로 인해 없어지는 돈이 GDP의 30%인 270조원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인 318조원과 맞먹는다.

눈에 보이는 게 이 정도인데 눈에 안 보이는 정신적인 것이 더 크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대로 우리의 존재원리를 바로 보자는 것이다. 혹자는 사람의 존재원리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건 아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중생의 종류를 9가지로 분류했다. 구류중생 중 네 가지는 태란습화(胎卵濕化) 사생(四生)으로 분류한다.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 알에서 태어나는 것, 습지에서 태어나는 것, 스스로 화현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나부터 키우는 강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모양만 다를 뿐 나와 같은 존재니까.

집에서 가족들에게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 가족들이 항상 ‘니다, 내다’하면서 싸워야하는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소모적인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주변인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존재의 원리를 이해하고 열심히 수행하자.

산승이 정성껏 사경한 반야심경사경 작품 보급



산승이 정성껏 사경한 반야심경사경 작품의
보시가는 불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승 반원 010-3599-6653
금산선원 : 부산시 사상구 감전 1동 122-39

산승 반원은 정진기도를 하면서 반야심경 사경을 하였습니다. 통도사 문수원에 주석하시는 수안 큰스님 은사로 모시고 반야심경에 대한 지도 아래 하루도 빠짐없이 20여년을 반야심경사경 참선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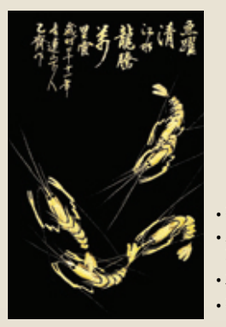
반야심경 사경기도는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정토에 이르시라고 자시부터 참선으로 사경을 하며 백중날 회향하고 또 불자님을 위하여 원상을 그리고 육바라밀을 마음에 담아 사경을 하여 인연 있는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행복하고 소원성취 하라고 20여년을 보시해 왔습니다.

원상을 그리는 것은 하나요, 우주 전체입니다. 경을 육각으로 쓴 것은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모든 기운도 육각에서 생기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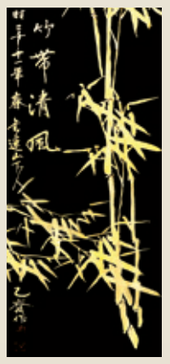
15년간 뇌종양 투병 생활 속에 고통을 참으며 반야심경참선 기도를 하였습니다. 2001년 9월 말일(부처님의 가피력으로 9년간 사경 참선 공덕으로)그날 밤에도 자시에 사경 후 머리에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꽝 하기에 이제야 육신을 버리는구나 하고 저 무거운 육신을 더 짊어지고 다닐 필요 없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구름을 타고 저 세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 주신분이 나타나 할 일이 남아 있으니 갈 수 없다며 25년 생명 연장하라 하면서 죽비로 이마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마는 뻥 뚤려 버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 병은 간곳없고 맑은 정신으로 지금 산승 반원은 새 생명으로 반야심경 사경에 혼을 담아 수행정진 하고 있습니다. 산승 반원은 생을 다하는 날까지 사경 참선으로 일체 중생을 위하여 기도 할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경을 소지하게 되시면 한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을 소장하고 보시하시는 분은 향후 불사를 할 경우 반드시 건립비에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산승 반원 합장



• 작품명 : 새우
• 사이즈 : 가로 30cm×세로 45cm
• 재 질 : 한지 금분
• 작품가 : 70,000원



• 작품명 : 竹
• 사이즈 : 가로 22.5cm×세로 59cm
• 재 질 : 한지 금분
• 작품가 : 100,000원



• 작품명 : 달마
• 사이즈 : 가로 30cm×세로 45cm
• 재 질 : 한지 먹
• 작품가 : 50,000원



• 작품명 : 연꽃달마
• 사이즈 : 가로 30cm×세로 45cm
• 재 질 : 한지 먹
• 작품가 : 50,000원



• 작품명 : 십장생
• 사이즈 : 가로 30cm×세로 45cm
• 재 질 : 한지 석재 혼합
• 작품가 : 300,000원

위 작품은 불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을제 서영찬 선생님께서 기증하는 작품입니다.
아래 작품을 소장하시어도 불사에 크나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을제 선생님의 작품세계는 홈페이지 www.sycart.co.kr 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편백 나무 숲 병풍 삼은 선지식의 부도와 비



숨겨 둔 보석 같은 도량
통영 미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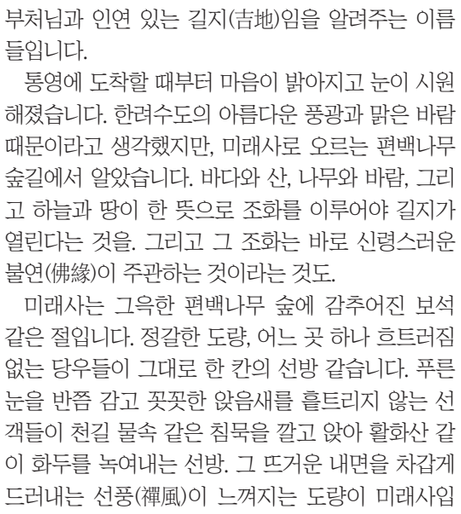
편백나무 숲길이 아름다운 미래사. 한려수도의 중심 도시 통영 시내 서쪽에 있는 미륵도는 섬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육지와 매우 가깝고, 충무교나 아취형의 통영대교를 건너면 금방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륵도는 섬입니다. 그냥 섬이 아니지요. 섬 전체가 행복한 내일을 열어 주는 미륵부처님의 도량이지요. 미륵산과 용화산이 있고 용화사(龍華寺)와 미래사(彌來寺)가 있습니다. 모두 미륵부처님과 인연 있는 길지(吉地)임을 알려주는 이름들입니다.

통영에 도착할 때부터 마음이 밝아지고 눈이 시원해졌습니다.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맑은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미래사로 오르는 편백나무 숲길에서 알았습니다. 바다와 산, 나무와 바람,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한 뜻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길지가 열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조화는 바로 신령스러운 불연(佛緣)이 주관하는 것이라는 것도.

미래사는 그윽한 편백나무 숲에 감추어진 보석 같은 절입니다. 정갈한 도량, 어느 곳 하나 흐트러짐 없는 당우들이 그대로 한 칸의 선방 같습니다. 푸른 눈을 반쯤 감고 꼿꼿한 앉음새를 흩트리지 않는 선객들이 천길 물속 같은 침묵을 깔고 앉아 활화산 같이 화두를 녹여내는 선방. 그 뜨거운 내면을 차갑게 드러내는 선풍(禪風)이 느껴지는 도량이 미래사입니다.

미래사가 한 칸 선방일 수 있는 근원은 도량으로 들어가기 전 왼쪽 산자락에 있습니다. 부도밭입니다. 고려 말 불교 중흥조 보조지눌 국사가 주창했던 정혜결사의 맥이 이어진 도량이 조계산 송광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현대 송광사의 법통과 가람 중흥의 주인공들이 미륵도 용화산 자락에 미래사라는 보석을 묻어 두었습니다. 미래사 부도밭에는 바로 그 주인공들의 부도와 탑비가 기념사진을 찍으러 나온 것처럼 단아하게 서 있습니다.

석두당 보택대선사(石頭堂 寶澤大禪師; 1882~1954), 효봉당 학눌대선사(曉峰堂 學訥大禪師; 1888~1966), 구산당 수련대종사(九山堂 秀蓮大宗師; 1909~1983). 이 세분이 부도와 탑비의 주인공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미래사가 어떤 도량인지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편백나무 숲을 병풍 삼아 이 선지식들의 부도와 비가 있어서 미래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선정과 지혜의 도량입니다. 아기자기한 연못 길을 따라 도량으로 들어가기 전, 꼭 대리석 돌다리를 건너 부도밭으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사 사적비와 탑비들의 글씨가 한글로 되어 있어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읽어 볼 수도 있습니다.



미래사 내경



사진 왼쪽부터 구산 스님, 효봉 스님, 석두 스님 부도. 미래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선정과 지혜의 도량이다.

석두·효봉·구산 스님 노후 수행처
꼿꼿한 선풍 가득 느껴지는 도량

그 가풍을 온전히 상징하는 형식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한글 비문은 석두 스님의 수행가풍과 인간미를 소개하고 연보를 뒤에 따로 정리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교수를 지낸 서경수 박사의 찬문을 칠보사 조실 석주 스님이 썼습니다. 부도와 비는 1968년, 그러니까 석두 스님이 입적한 지 14년 뒤에 세워졌습니다. 석두 스님은 미래사에서 1954년에 입적하셨고, 이 해는 법손자인 구산 스님이 미래사를 본격적이 도량으로 창건하여 석두 스님과 은사인 효봉 스님 사숙인 계봉(溪峰) 스님을 모신 때였습니다.

석두 스님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의 양식을 간결하게 계승했습니다. 팔각의 지대석 위에 팔각의 하대석을 올리고 크기가 줄어든 팔각 중대석을 올렸습니다. 그 위에 다시 하대석과 같은 크기의 팔각 상대석을 올리고 곧바로 둥근 탑신을 모시고 지붕돌을 올렸습니다. 아무런 조각도 없이 간결의 극치를 보이는 부도입니다. 이 부도의 간결함은 "게으른 후학에게는 추상같이 엄하게 꾸짖다가도 어린이를 대하면 천진한 동자가 되어 함께 곧 잘 어울렸다"는 비문의 한 대목에 그대로 부합되는 것입니다.

창공에 둥근 달은 천추에 밝아 있고 온 누리 봄기운에 만물이 소생하다. 어디서 왔는가 하고 석두 스님은 길을 찾아 온 낯선 나그네에게 물었다. 장안사에서 왔습니다. 몇 걸음에 왔는가 나그네는 벌떡 일어나 큰 방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고 대답했다. 십 년 공부한 수좌보다 낫다는 생각에 석두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출가를 허락했다. 효봉 스님의 나이 서른여덟 살 때 금강산 신계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효봉 스님의 비문 역시 출가하던 날 스승과 문답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시작됩니다. 역시 서경수 교수의 문장에 석주 스님의 글씨입니다. 이 대목에서 효봉 스님이 38세라는 늦은 나이에 출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연은 비문에 새겨진 연보 한 대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사서삼경을 다 떼고 평양보통학교를 거쳐 일본 와세다대학 법과를 졸업 평양 복심법원과 서울 함흥 등지에서 십년간 판사직에 종사, 인생무상을 깨닫고 삼년간 유랑 끝에 1925년 7월 8일 금강산 신계사 보운암에서 석두 스님을 만나 사미계를 받다' 는 대목 말입니다. 효봉 스님은 사형을 언도하는 자신의 존재에 비통함을 느끼고 판사직을 헌 신 버리듯 버렸고 스스로 떠돌이 생활에 들어 3년을 유랑걸식하며 '본래진면목' 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석두 스님을 만나 출가를 했고 이후 '절구통 수좌' 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정진에 매진했습니다. 효봉 스님은 1935년부터 10년 동안 송광사 삼일암에서 방장으로, 1946년부터 1950년까지는 해인사에서 가야총림 방장으로 후학을 제접했습니다. 조계종단의 정화불사를 영도했을 뿐 아니라 초대종회의장, 총무원장, 통합종단 초대 종정 등 종단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일에도 선봉에 섰습니다. 효봉 스님의 생애를 이야기 하려면 사흘 밤낮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쾌활한 진리의 세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오도송' 이 효봉 스님의 생애를 말해 줍니다.

한글로 된 비문 읽으며
정진과 삶이 둘 아님 배워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불 속 거미집에 물고기가 차 달이네.
이 집 소식 뉘라서 알랴?
흰 구름은 서쪽으로 달은 동쪽으로 달리도다.

부도밭의 가운데에 위치한 효봉 스님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의 양식에 지대석에서 보주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문양이 장식되었지만 결코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효봉 스님의 부도와 탑비는 1968년에 미래사에 세워진 것 말고도 순천 송광사(1967년), 통영 용화사(1968년), 밀양 표충사(1969년)에도 세워졌습니다. 다비하여 얻은 50여 과의 사리를 나누어 봉안 했는데, 표충사 부도는 자연석을 생긴 그대로 사용했고 탑비의 비문은 노산 이은상 선생이 지었습니다.

초막 토굴이었던 미래사를 오늘날의 정갈한 도량으로 가꾸는데 초석을 놓은 구산 스님. 송광사 8차중창불사 계획을 세우고 문도들에게 위촉했으니, 오늘날의 송광사 대도량을 일구는 초석 역시 구산 스님의 원력이었습니다. 29세의 나이에 송광사 삼일암을 찾아갔는데 그날이 부처님오신날이었습니다. 석두 선사는 곧바로 큰 그릇임을 알고 제자인 효봉 스님에게 상좌로 삼으라고 권했습니다. 원인 모를 병을 얻어 고생을 하다 지리산에서 백일천수기도를 하여 병을 씻은 청년은 효봉 스님의 문하에서 수련이라는 법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구산 스님의 부도는 정방형의 지대석 위에 안상을 두른 기단을 두고 그 위에 네 마리의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 떠받친 판석 위에 팔각의 몸돌을 얹고 그 위를 덮은 지붕돌은 기와 골이 선명하고 보주의 연화문도 정교합니다. 구산 스님의 부도와 탑비 역시 송광사 탑전에 매우 장엄하게 모셔져 있지만, 이 미래사에 심어 둔 법의 씨앗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세운 것입니다. 미래사 탑비는 사숙 되는 해봉석정 스님이 찬하고 신흥식 거사가 썼습니다. 송광사 탑비는 동곡 일타 스님의 문장에 일중 김충현 선생이 앞면의 글씨를, 초정 권창윤 선생이 뒷면의 글씨를 썼습니다. 모두 후세에는 국보가 될 것입니다.

미래사 구산 스님의 탑비는 구산 스님의 생애를 오도송으로부터 시작하여 수행이력과 종단 정화, 송광사 중창, 스승에 대한 극진한 효성, 외국인 제자들을 가르친 인연 등을 자세히 전합니다. 구산 스님의 생애 역시 몇 권의 책으로 써도 다 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 서적들에 전하는 생애를 읽어 보면, 구산 스님 같은 선지식이 있어서 한국불교가 청정하고 튼튼하게 대물림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since1973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2012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12절
200부 이상 @1,000원
3,000부 이상 @800원
[6절] 5호 연향이 머무는 곳
[12절] 12호 반야동자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121068-56-042256 ◆우체국: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갈등(葛藤)의 어원을 아시나요?

■ 칡, 등나무 이야기

갈등은 칡[葛]과 등나무[藤]를 의미하는 단어다. 칡과 등나무는 각자 존재할 때는 괜찮은 의미와 쓰임새를 갖고 있으나 서로 엉키면 대책불능이다. 이른바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칡과 등나무는 줄기가 서로 얽혀 자라는 특성이 있으며 떼어놓기도 쉽지 않다. 숲 속에서도 칡과 등은 수종을 가리지 않고 접근해 둥치를 감아 올라가면서 숨통을 조인다. 인간 세상에서나 숲 속에서나 갈등은 무서운 문제이다. 이런 무서운 갈등이 숲에서 유래했으니 숲은 그 해결책도 알고 있을지 모른다.


경주 현곡면 오류리 등나무


칡꽃


칡꽃


등나무

이 시대 최대 화소는 갈등이다. 갈등의 전성시대, 범람하는 갈등의 바다다. 가끔 소통을 부르짖는 소리가 있으나 귓전에 맴돌다 사라진다. 갈등 해소를 위해 덕망 높은 정치 지도자, 종교인, 학자들이 끊임없이 부르짖어도 좀체 사그라질 기미가 없다. 시원한 냉수 한 사발로 갈증은 해소되지만 소방차로 물대포를 쏘아도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갈등(葛藤)'은 한자어 그대로 '칡과 등나무'를 뜻하는 말이다. '갈(葛)→ 칡 갈', '등(藤)→ 등나무 등' 자이다. '칡'과 '등나무'는 줄기가 서로 얽혀 자라는 특성이 있다. 정확하게 관찰해보면 칡의 줄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 줄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즉 '갈(葛)'은 '등(藤)'을 감고, 등은 갈을 감아 올라간다. 이처럼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듯이 까다롭게 뒤엉켜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갈등'이다. 따라서 두 식물은 아무리 길게 뻗어가도 화합해 만날 수가 없다. '갈등'의 어원은 이 같은 두 나무 줄기의 속성에서 비롯됐다. 우리 선조들이 식물을 바라보는 세심한 관찰력과 지혜를 단어를 만드는 조어법이 절묘하게 적용했다.

칡과 등나무가 서로 까다롭게 얽혀 있으면 그 둘을 떼어 풀어 놓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한 이유에서 '갈등'은 '일이나 인간관계가 까다롭게 뒤얽혀 풀기 어려운 상태 또는 개인의 내부에서 서로 반대되는 생각이 충돌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칡은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 덩굴식물이다. 빨리 자라는 목본성 덩굴로 덩굴에 털이 나기도 하며 한 계절에 길이가 18m까지 자라기도 한다. 큰 잎이 달리고 붉은빛이 감도는 자주색 꽃이 핀다. 꽃이 지면 편평하고 털이 난 씨꼬투리가 맺힌다.

중국과 일본이 원산지로 이들 지역에서는 녹말을 함유한 식용뿌리와 줄기로부터 만들어지는 섬유를 얻기 위해 오랫동안 재배했다. 칡은 가파른 둑의 토양을 고정시켜 침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북아메리카에 도입됐다. 그러나 교목과 관목 위뿐만 아니라 벌거벗은 땅으로 쉽게 퍼져 나가 미국 남동부 일부지역에서는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가 됐다.

칡은 줄기로는 밧줄이나 섬유를 만들었으며 꽃과 뿌리는 약으로, 뿌리는 구황식물로, 또 잎은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널리 사용했다. 칡으로 만든 밧줄은 매우 단단해 다리를 놓는 데 쓰이거나 닻줄 및 주낙줄로 사용됐으며, 삼태기나 바구니를 만들기도 했다. 칡 줄기를 여름 중복 무렵에 캐서 삶은 다음 껍질을 벗겨내 만든 하얀 섬유로 짠 옷감을 갈포라고 하는데, 갈포는 한때 눈처럼 희고 반짝반짝 윤이 나 옷 가운데 최상품으로 여겨졌다.

한방에서 여름에 뿌리와 꽃을 채취해서 약으로 쓰는데, 꽃 말린 것을 갈화(葛花), 뿌리 말린 것을 갈근(葛根)이라고 한다. 갈화는 장풍(腸風)에, 짧게 썰어 말린 갈근은 치열, 산열, 발한, 해열에 쓰인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칡뿌리 생즙을 마시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잎은 5월에 따서 나물로 먹기도 한다. 겨울에는 뿌리를 캐서 찧은 다음 물에 여러 번 담가 앙금을 가라앉혀 만든 녹말로 과자나 떡을 만들어 먹는데, 이 녹말을 갈분이라고 한다. 원래 갈분은 칡의 뿌리에서 얻는 것을 지칭했는데, 요즘은 감자 녹말가루를 흔히 갈분이라고 한다.

등나무는 덩굴류의 식물 중에서도 꽃이 크고 화려하다. 은은한 향기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식물이다. 여름엔 넉넉한 그늘을 줘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쓰임이 많은 대표적 조경수다. 등은 전국적으로 공원과 정원에 심고 있다. 나무 또는 다른 물체를 감싸며 기어오르는 덩굴성으로 10m이상까지 자란다.

갈등… 칡(葛)과 등나무(藤)서 유래
칡은 섬유 확보 위해 오래전부터 재배
등은 조경·식용·염료용으로 사용
서로 엉키면 대책 불능, 갈등이 생겨

연보라색 꽃은 5월에 밑을 향해 피며 짙은 향기가 난다. 크기 30~40㎝의 연보라색 꽃은 아래로 주렁주렁 매달려 장관을 이루고 향기가 좋다. 열매는 9월에 영글며 다음해 1월까지 줄기에 콩꼬투리 채로 그대로 달려 있다가 두 갈래로 쪼개지며 씨앗이 밖으로 나온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 하지만 비옥하고 수분이 알맞은 곳에선 생장이 매우 빠르다. 번식은 씨뿌리기와 꺾꽂이로 할 수 있다.

등은 조경용, 식용 및 염료용으로 쓰인다. 한여름의 푸른 잎은 넉넉한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공원이나 정원에서 그늘 막 쉼터의 조경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등은 잎과 꽃을 먹을 수 있다. 새순은 등채(藤菜), 꽃은 등화채(藤花菜)라고 하는데, 삶아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약술을 담아 먹는다. 잎은 염료로도 쓰이며 줄기는 질기고 탄력이 있어 바구니, 의자 등 가구를 만드는 소재로 쓰인다.

칡과 등은 각자 존재할 때는 괜찮은 의미와 쓰임이 있다. 그러나 그 둘이 엉키면 대책불능이다. 이른바 갈등이 발생한다. 전쟁을 비롯한 모든 재난은 갈등의 산물이다. 갈등을 해소하는 법, 적어도 최소화하는 길이 우리 앞에 놓인 책무다.

한편, 칡과 등은 숲의 무뢰한이다. 숲 가꾸기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겐 칡과 등이 너무 밉다. 그것들은 숲을 망치는 게릴라들이다. 수종(樹種)을 가리지 않고 접근해 둥치를 감아 올라간다. 공손히 감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숨통을 조이면서, 둥치의 영양을 빨면서 감아 올라간다. 수백 년 된 소나무도 이들의 공격을 받으면 몇 년 내에 고사(枯死)한다.

숲 속에서나 인간 세상에서나 칡과 등, 갈등은 무서운 놈들이다.

그런데, 실제 칡과 등이 서로 엉켜 있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칡은 칡대로, 등나무는 등나무대로 자기 삶을 살고 있다. 칡과 등이 엉킨 것을 찾아보려고 여러 날 산을 헤집으며 다녀보았으나 찾질 못했다. 그래서 '숲에는 갈등이 없다'라는 엉뚱한 제목을 붙였다.



이우상 〈소설가 · 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사 찰 등 록 안 내

귀의 삼보하옵시고!

불철주야 불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기도정진 하시는
전국의 스님 및 법사님들 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아직 사찰 등록을
미루고 계시는 분은 본 재단에서 사찰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 암 등록 시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교부함.

■ 신청자격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스님 및 법사, 또는 단체.

■ 참고사항
현재 각 종단에 사단법인이 아니면서도 사단법인 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찰 등록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인 여부를 확인 알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 상호검색을 하시면
바로 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선택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 사찰등록을 하시면 은행에서 사찰명의로 된 법인기부금통장과 은행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해 드리며,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은행에서 신도님들이 사찰법인 통장에 입금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우)110-816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75-1번지 부원빌딩 310호 전화 : 02)3217-3217입니다. / 이메일 : wbstf@yahoo.co.kr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마음공부 〈6〉 – 변화하는 나

내 마음 다스리기

이 프로그램을 따라해 보면

① 자녀와 소통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② 자녀와 부모가 자신들의 마음을 살피고 다스려 나가야 하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③ 생활 속에서 아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는 마음공부

자녀를 도반으로 대하며 함께 마음공부를 해 나간다.

이번 주에는 마음을 다스려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가는 마음 다스리기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활동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마음공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마음 다스리기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오늘의 마음 다스리기를 끝으로 6주간 계속됐던 마음공부에 대한 연재는 끝나겠지만 사실상 자녀와 가족의 마음공부는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교에서도 학생들과의 마음공부 과정이 이 차시에 들어서게 되면 또 다른 시작이 된다. 앞 내용들은 흥미차원으로도 충분하지만 이제는 교사나 학생이나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꾸준한 실천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반 친구들과 선생님이 모두 도반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 혼자보다 같이 하면 서로에게 힘이 되기 때문이다. 교사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마음을 다스리며 쓴 마음일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공부를 점검해볼 수 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선생님의 실천이나 조언 등을 통해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가는 힘을 얻는다. 실제 교실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마음 목록에 '아침에 부모님이 깨울 때 짜증을 냄' 이라고 적는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인공,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게 해' 하고 내면의 근본에 맡기는 실천을 한다. 이런 사소한 문제를 믿고 맡겨보는 성공 경험을 시작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자기 내면과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느끼면서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자녀와 함께 시작하려했던 마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자녀는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그 관계를 도반으로 발전시키기 바란다. 자녀의 동기유발을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실천이 현재 자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가는 방법이 됨을 토론을 통해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자녀와 함께 자신의 참마음을 발현하고 완성시키는 마음공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기를 바란다.

오늘의 마음공부 : 내 마음 다스리기 – 부모 지도용

〈활동1〉 씨앗 파는 가게 함께 읽고 의견 나누기

이 활동은 아는 것이 아닌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앗은 내면에 갖춘 근본의 힘을 뜻한다. 그동안 자녀와 함께 했던 활동들을 떠올려보면서 그 근본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씨앗의 싹을 틔우는 실천이 필요함을 자녀와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활동2〉 내 마음 알아차리기

그동안 마음의 작용에 대해 활동했었기 때문에 한주간 실천꺼리를 계속 실천해왔다면 내마음 알아차리는 활동은 훨씬 쉽게 할 수 있다. 보이는 현상에 휩쓸리기 쉬운 생활 속에서 자신이 쓰고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3일 자녀와 함께 집중적으로 일상의 모든 상황을 마음의 작용으로 보는 실천을 하면서 마음목록표를 작성해 보도록 한다.

〈활동3〉 마음일기 쓰기

이 활동부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의 일과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자녀의 활동지에 있는 마음 다스리기 방법을 같이 확인한 뒤 모든 생활에서 마음 다스리기를 실천하고 그것을 기록해 자녀와 같이 공유하도록 한다. 〈활동2〉를 통해 자신이 어떤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마음작용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좀 더 확실하게 자각하게 됐을 것이다. 처음에는 마음목록표를 참고해 바꾸고 싶은 마음들을 내면의 용광로에 넣는 실천부터 하는 것이 좋다. 마음이 올라올 때 바로바로 굴려 넣는 것이 잘 안되면 시간을 정해 자녀와 함께 앉아 용광로에 넣기를 할 수도 있다. 점차 익숙해져 가면 생활하는 가운데 그때 그때 올라오는 마음들을 다스려나간다. 공책이나 컴퓨터에 자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일기 공간을 마련하면 실질적으로 실천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자녀와의 좋은 소통통로가 될 수 있다.

※ 체험수기를 보내주세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마음공부' 를 가정에서 직접 실천한 분들, 또는 기사를 통해 새롭게 인식한 내용이나 소감 등을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독자분들께는 인성교재 '꽃을 피우는 나무' 초 · 중등용 교재를 보내드립니다. bohyung@buddhapia.com 이나은 기자

본지와 한마음과학원 공동기획은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 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hannamu.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한마음과학원 (031)471-6926~7

만화 '내 마음의 보배를 찾아서'



오늘의 마음공부 : 내 마음 다스리기 – 자녀 활동용

1. '씨앗을 파는 가게' 이야기를 읽고 부모님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한 청년이 가게 안에 들어서서 계산대에 서 있던 노인에게 물었다.
"이 가게에서는 어떤 물건들을 팝니까?"
그러자 노인은 말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갖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기뻐하며 말했다.
"저는 행복과 사랑, 그리고 지혜와 두려움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을 일인분씩 사고 싶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놀란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보시오, 젊은이. 아무래도 그대가 내 말을 잘못 이해한 것 같소. 여기에서는 열매를 파는 게 아니라 씨앗만 팔고 있다오. 그 씨앗을 키워 행복과 사랑, 지혜와 자유로움이라는 열매를 얻는 것은 당신이 할 일이라오."

–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이끄는 직관의 힘 中 –

- 씨앗을 파는 가게에 왜 행복과 사랑, 지혜와 자유로움은 없나요?
- 행복과 사랑, 지혜와 자유로움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앗은 무엇일까요?
- 어떻게 하면 그 씨앗의 싹을 틔우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 씨앗을 싸고 있는 두꺼운 껍질처럼 마음을 자유롭지 못하게 것은 무엇일까요?

2. 내가 쓰는 마음 알아차리는 실천을 해 보세요.

물건의 이름을 써놓은 목록을 보면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지 관찰해서 표를 만들어 보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그날 자신의 마음을 되짚어 보며 자기가 쓴 마음의 목록을 적어 봅니다.(2일정도)

〈내가 쓰는 마음 목록〉

- 나는 어떤 마음을 자주 쓰나요?
-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 내가 바꾸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가요?

3. 그동안의 활동을 떠올리며 아래의 〈내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마음에 꼭 새겨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일기를 꾸준히 써 보세요.

〈내 마음 다스리는 방법〉

- 나의 마음의 근본 주인공을 떠올린다.
- 주인공은 모든 것을 녹이고 새롭게 재생하는 용광로와 같은 힘이 있음을 믿는다.
- 녹이고 싶거나 바꾸고 싶은 마음을 용광로에 넣는다.
-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본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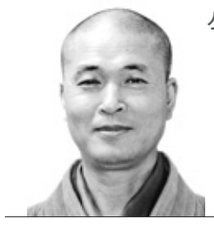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직할 종단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정대행 :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스님도 번뇌 끊지 못하면 괴롭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가람(伽藍: 寺院)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따로 다시 무엇이 있겠는가?"
학승이 말했다.
"무엇이 가람 속의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과 자네야."

問 如何是伽藍 師云 別更有什麽
云 如何是伽藍中人 師云 老僧與闍黎

1단계적인 말은 "저것은 소나무야" "저것은 꽃이야" "저것은 사찰이다" "저 사람은 스님이야" "저 사람은 장관이야" "저 차는 앨란트라야" "저 차는 에쿠스야"처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부르면 아무 쟁투도 없고 고통도 없다.

2단계적인 생각과 말은 "소나무는 푸르기에 절조가 있다" "꽃은 화사한데 나는 우울하다" "사원은 조용하니 극락과 같다" "스님은 행복하다" "장관은 성공한 자야" "앨란트라는 서민들의 차" "에쿠스는 귀한 자의 차야"하고 생각을 짓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라. 소나무는 스스로 생긴 대로 있는 것이지 절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꽃이 피는 것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지 화사한 것이 아니다. 사원은 단지 조용한 것이지 행복한 곳은 아니다. 장관이 되는 것이 불행일 수 있다. 스님도 번뇌를 끊지 못하면 괴롭다. 앨란트라, 에쿠스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항상 1단계만 말하라. 그것이 진실에 가깝다. 2단계적인 생각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다. 그로 인해 괴로움이 몰려온다. 항상 있는 것 그대로 볼 것이지 평가하지는 말라.

학승이 물었다.
"두 마리 용이 구슬을 놓고 다툴 때 누가 얻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다만 지켜볼 뿐이다."

問 二龍爭珠 誰是得者
師云 老僧只管看

용은 거물이다. 우주에서 두 마리의 용은 공(空:빔)과 색(色:물질)이다. 공에 의거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색(色:물질)에 의지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색과 공,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진정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일까?

선사는 어떤 것에도 손을 들지 않는다. 단지 공이 보이면 공을 지켜보고, 색이 보이면 색을 지켜본다. 색이 필요하면 색을 사용하고 공이 필요하면 공을 사용한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밥을 먹으려면 일을 한다. 생각이 많으면 괴로우니까 마음을 비운다. 마음이 고요해 지려면 수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일 수련생활을 한다.

몸과 마음이 세계를 만들어간다. 몸을 움직여 재물을 충당하고 마음은 비워서 고요해지면 곧 행복이다. 공과 색은 사용할 뿐이다. 굳이 어느 쪽이 낫다. 싸울 필요 없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인과(因果)를 벗어난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실로 모를 뿐이야."

問 如何是離因果底人
師云 不因闍黎問 老僧實不知

일반적으로 깨달은 자들은 환생, 불국토 왕생, 근원으로 회귀, 이 셋 중에 한 곳으로 간다. 환생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다시 사바세계에 오는 것인데 일명 보살의 환생이다. 불국토 왕생은 대표적인 곳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이다. 이곳은 현재 많은 보살들이 왕생한 곳이다. 그곳은 아미타불이 아직 설법을 하고 있다. 그곳은 누구든 그 세계에서 나기를 원하면 갈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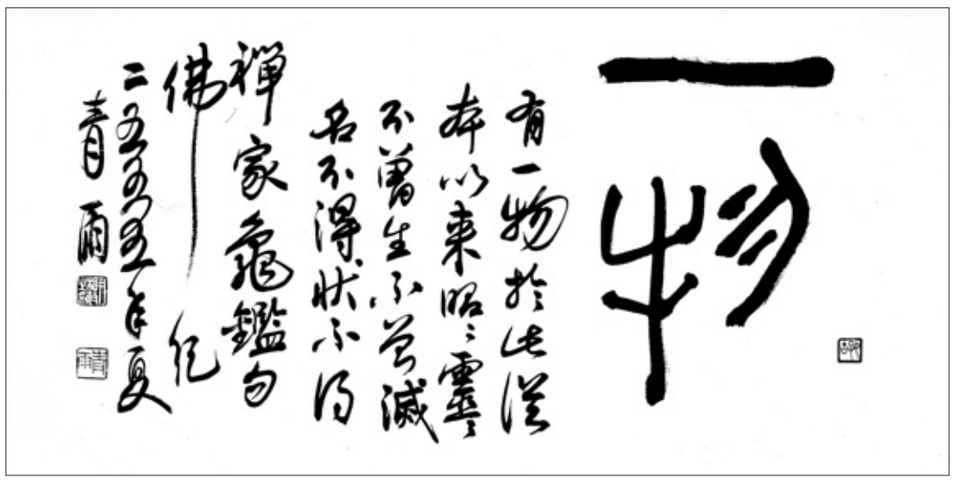
근원으로 회귀는 법성(法性)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주의 근원점으로 돌아간다. 텅 비었으며 형체가 없지만 만물은 거기서 창조되고 있다. 업식(業識)이 아직 녹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 갈 수 없다. 깨달은 자는 갈 수 있다. 깨달으면 인과(因果)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주 선사는 왜 모른다고 말했을까? 마음이 우주의 근원점과 같이 맑아지면 미래가 없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 것도 모를 수밖에 없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선가귀감구

한 물건



有一物於此 從本以來 昭昭靈靈 不曾生不滅 名不得狀不得(유일물어차 종본이래 소소영령 사증생부증멸 명부득상부득)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본래부터 밝고 신령스러워 일찍이 생긴 것도 아니요 일찍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네. 〈선가귀감〉, 청허 휴정 대사

於: 어조사 어
昭: 밝을 소, 비출 조
滅: 꺼질 멸, 멸할 멸
得: 얻을 득
狀: 형상 상, 문서 장

청	이	불	선	명	부	본	유	일
우	오	기	가	부	증	이	일	물
	오		귀	득	생	래	물	
	년		감	상	부	소	어	
	하		구	부	증	소	차	
				득	멸	영	종	
						영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선어록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선문수경

선에서 가르치는 것은 진공과 묘유

백파긍선(1767~1852)의 법계는 서산휴정 - 편양언기 - 풍담의심 - 월담설제 - 환성지안 - 호암체정 - 설파상언 - 퇴암태관 - 설봉거일 - 백파긍선이다. 그의 저술 〈선문수경〉 1권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조선후기에 초의의순과 사이에서 일어났던 선리논쟁의 발단이 된 선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선리논쟁 이외에도 다른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전한다. 본문은 총 23개의 과목으로 나뉘어 있다.

1) 임제삼구도설(臨濟三句圖說)은 임제의 삼구법문을 통해 깨칠 것을 강조하고 문자에만 국집하지 말 것을 설했다. 2) 향상본분진여(向上本分眞如)는 진불(眞佛)과 진법(眞法)과 진도(眞道)를 각각 대기(大機)와 대용(大用)과 기용제시(機用齊施)로 설명했다. 3) 향하신훈삼선(向下新熏三禪)은 제1구에서 깨치면 불조의 스승이라는 조사선과, 제2구에서 깨치면 인천의 스승이라는 여래선과, 제3구에서 깨치면 자기 구제도 못하는 의리선 등 삼종선을 설명했다. 4) 의리선삼구송(義理禪三句頌)은 제1구는 주 · 빈(主 · 賓)이 나뉘어지기 이전에 해당하고, 제2구는 무착의 물음조차 용납하지 않는 것이며, 제3구는 일체의 조

문자에 얽매이지 않을 것 강조
여래선 · 조사선 7가지 형상으로 설명

작을 타파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5) 삼구도시(三句圖示)는 〈선문강요집〉의 일우설을 참조해 임제의 삼구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고 주석을 붙여서 설명했다. 6) 의리선격외선변(義理禪格外禪辨)은 의리선의 경우 의리분별에 얽매이는 것이고, 격외선은 상근기의 조사선과 중근기의 여래선과 하근기의 의리선으로 설명했다. 7) 말후구최후구변(末後句最初句辨)은 말후구의 경우 교화방편을 통해 진여를 드러내는 구이고, 최초구는 곧바로 진여를 드러내는 구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구곡각운의 말을 통해 말후구와 최초구가 다르지 않음을 피력했다. 8) 신훈본분변(新熏本分辨)은 의리선의 경우 오랜 수행을 통해서 성불하는 것으로 진여자성을 밝히지 못하면 부처의 서자가 되는 것으로 신훈이라 말하고, 여래선과 조사선의 경우 향하삼요로써 신훈을 삼고 향상진여로써 본분진여에 나아가 수연과 불변이 원만하고 진공과 묘유를 깨쳐서 부처의 적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9) 살활변(殺活辨)은 삼처전심의 일화를 언급해 다자탑전분반좌는 살인도에 해당하고, 영산회상염화미소는 활인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0) 원상설(圓相說)은 의리선과 여래선과 조사선을 일곱 가지의 형상을 통해 그 도리를 설명했다. 11) 삼성설(三性說)은 7가지의 원상을 통해 의리선의 경우 분별과 집착으로 잘못된 성정을 지니는 것이고, 여래선의 경우 본분향상의 입장이건만 존귀한 것만 귀하게 간주하며, 조사선의 경우 삼요로써 진 · 망(眞 · 妄)을 화합하고 미세한 망념까지 제거한다고 설명했다. 12) 일촉파삼관유오중(一鏃破三關有五重)은 화살 하나로 세 관문을 타파하는데 회광반조하는 것이 하나의 화살이고 삼제(三諦)를 관찰하는 것이 세 관문이라고 설명했다. 13) 배금강사구게(配金剛四句偈)는 금강경의 사구게를 각각 삼종선에 배대해 설명했다. 14) 배삼신유삼중(配三身有三重)은 보신과 화신은 삼요에 해당하고, 법신은 향상일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5) 배오분법신(配五分法身)은 법신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곧 계향법신으로서 자기의 마음에 본래 악이 없는 것으로서 기(機)이고, 혜향법신으로서 자성을 벗어나지 않고 밖으로 모든 수행을 닦는 것으로서 용(用)이며, 정향법신으로서 모든 선 · 악의 경계를 보고도 자기의 마음이 산란하지 않는 것으로 중(中)이다. 정향과 혜향의 순서가 바뀐 것은 삼요의 차제에 따른 것이다. 해탈향법신은 자성의 해탈을 반연해 불사선하고 불사악한 것으로서 향상의 진공이고, 해탈지견향법신은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서 자리이타하는 것으로서 진공에 본래 묘용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앞의 세 가지는 달마가 말한 직지인심에 해당하고, 넷째는 견성에 해당하며, 다섯째는 성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6) 배사홍원(配四弘願)은 〈단경〉의 설명을 빌려서 사홍서원을 삼종선으로 간주한 것이다. 17) 배좌선선정사자(配坐禪禪定四字)도 〈단경〉의 설명을 빌려서 좌선과 선정의 네 글자를 분석한 것이다. 18) 달마불립문자직지인심견성성불(達磨不立文字直指人心見性成佛)은 불립문자는 바깥 경계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고, 직지인심은 사람의 참된 마음을 지시하는 것이며, 견성은 진공을 향하고, 성불은 묘유를 향한 것이라 설명했다. 19) 달마삼처전심(達磨三處傳心)은 세존과 가섭의 삼처전심을 모방해 달마와 혜가 사이에 발생한 사실을 통해 달마가 묻고 혜가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설명했다. 20) 선실삼배설(禪室三拜說)은 나무시방상주불은 대기(大機)에 귀의하고, 나무시방상주법은 대용(大用)에 귀의하며, 나무시방상주승은 대기대용(大機大用)에 귀의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21) 간당십통설(看堂十統說)은 십통(十統)으로서 십악(十惡)을 타파하는 것이다. 입선(入禪)에 대해 우선 초삼통은 의리선의 유 · 무 · 중을 기준으로 한 삼구이고, 가운데 일통은 여래선의 본분일구이며, 후삼통은 조사선의 향하삼요이며, 이후 방선(放禪)의 삼통은 향하의 묘유로서 선가의 묵언작법인 일행삼매에 해당한다. 22) 무자간병론과해(無字揀病論科解)는 조주종심의 무자공안에 대한 것으로 고려시대 진각혜심의 구자무불성화간병론(狗子無佛性話揀病論)에 대해 백파가 나름대로 과해를 붙여서 주해를 가한 것이다. 23) 선교대지불출진공묘유대기대용(禪敎大旨不出眞空妙有大機大用)은 사람의 마음을 불변과 수연으로 나누어 불변은 진공자리이고 수연은 묘유자리로 배대했다. 결국 선에서 가르치는 것은 진공과 묘유로서 대기와 대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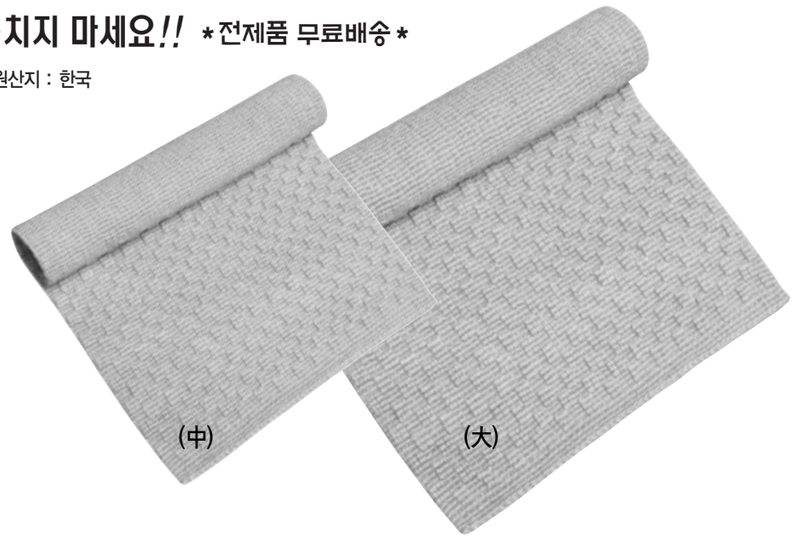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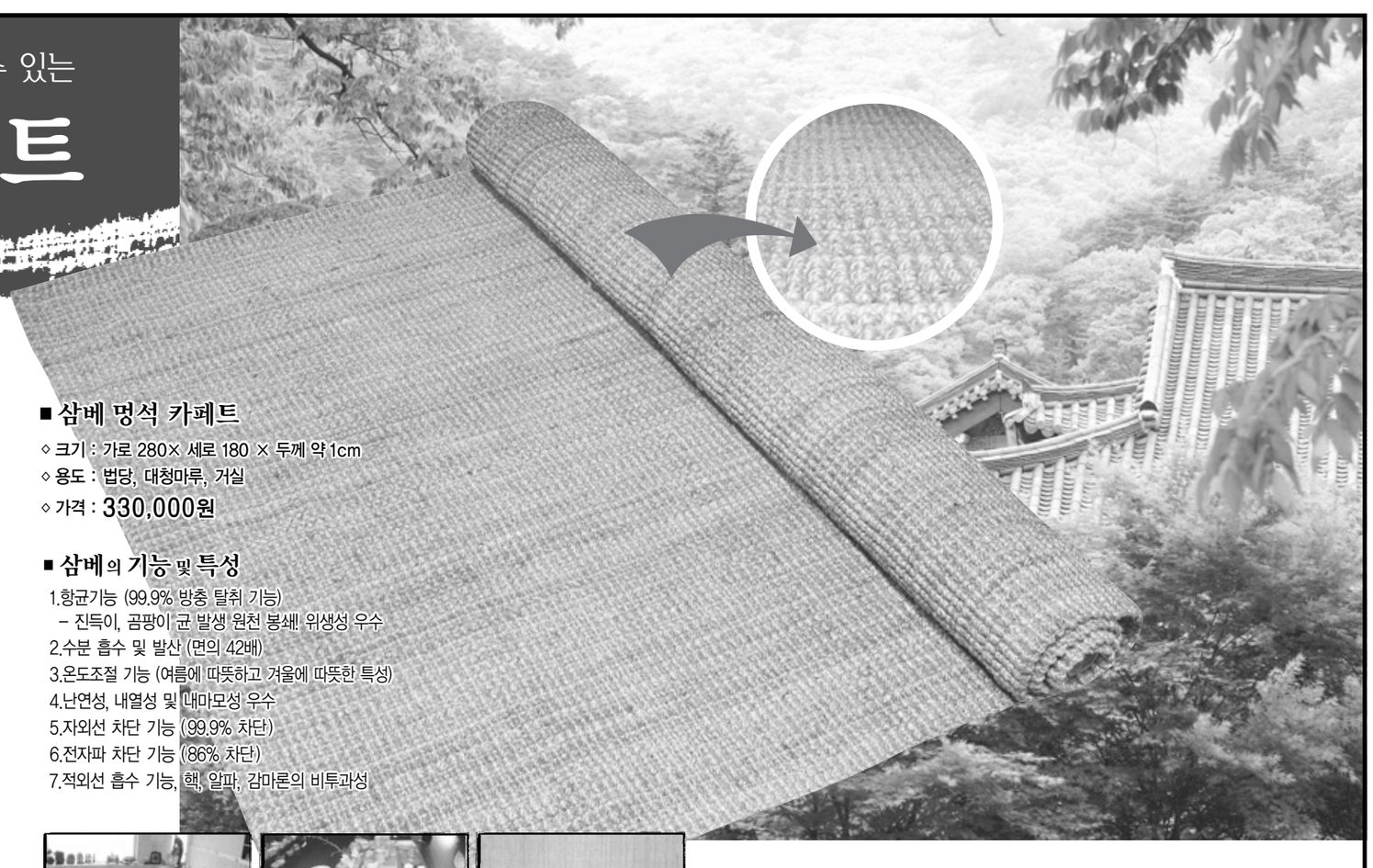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 삼베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있고 없고에 매달림은 생각에 얽매이는 노예 되는 일

문현철 교수(47)가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법정 스님을 찾아간 까닭은 처음 뵌 김수환 추기경보다, 법정 스님을 가깝게 여겼기 때문이다. 과연 김 추기경을 만나 풀리지 않던 응어리가 법정 스님을 만나고 풀렸을까? "찬찬하게 일러주시는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추기경님 말씀도 납득이 되었어요. 추기경님과 스님이 주신 공통점은, 이번 일이 '뒷날 분명히 큰 에너지로 쓰인다.'는 메시지였어요. 그 사고가 제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커다란 전환점이었습니다."

현철은 법정 스님 말씀을 따라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러나 한 생 동안 밀어닥친 모든 어려움을 낱낱이 짚고 헤아리기에는 힘이 부쳤다. 게다가 교통사고 후유증도 적지 않아 오랫동안 헤매었다. "세상에서 도망쳐 숨어든 곳이 베토벤이었습니다." 베토벤 음향기기가 비싸다보니까 영업이 끝나고 나면 지켜야했다. 현철은 거기서 삼년 동안 숙직 아르바이트를 했다. "스님도 가끔 베토벤 오셨어요. 그때마다 스님이 던진 말씀이 '여태 광주에 붙어 있네?'였어요."

3년 방황 끝에 학력고사 3개월을 남겨놓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들어간 데가 조선대 법대였다. 법정 스님에게 조선대 법대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리니, 스님은 법학을 하는데 왜 사회학이 중요하고, 정치학이 중요하고, 심리학이 중요한지 아느냐? 그 기반 위에 법이 있기 때문이다. 바탕을 닦지 않고, 법학만 한다면 그저 시험공부일 뿐인 죽은 공부다. 특히 철학책은 꼭 읽어야 한다. 사유와 성찰이란 커다란 물줄기에서 법학은 새 발에 난 피일뿐이다. 무식한 놈이 되지 않으려면 폭넓게 사유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씀했다.

현철은 스님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광주에서 살다가 아버지 고향인 전남하순으로 내려가게 된 내력. 어머니가 떠난 까닭. 유독 현철을 아꼈던 할머니를 향한 사랑, 고마움, 죄송함을 낱낱이 털어놓으면서 여쭸다. "스님, 다른 사람들은 다 엄마, 아빠라는 말이 자연스러운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눈물이 나오는데, 친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하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자식 관계도 여느 부모자식과 같은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하고. 대학 1학년 봄이었다. 불일암 툇마루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조계산 자락을 바라보던 법정 스님. 부모자식 인연도 부모자식이기에 앞서 사람과 사람 만남이다. 인연은 시간이란 체에 걸러진다. 시간 체 속에 사람의 지로 어찌할 수 없는 길고 짧음이 있다. 모든 부모가 자식 곁에 오래있어서 뒷바라지를 해줄 수는 없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데 대해 쓸데없는 상상을 하지 마라. 부모가 있고 없고에 매달림은 생각에 얽매이는 노예가 되는 일이다. 네 얘기를 객관화시키라고 말씀했다. 그 말씀이 어릴 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문현철 교수.

스님은 삶이란 고통을 견뎌내는 일이라는 말씀을 늘 하셨다.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다 그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지 않느냐. 겉으로 모두 평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누구나 내면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상들이 많다. 힘듦을 견디면서 살아내는 일이 사는 본질이라고. "스님은 일상에서 정돈되지 않은 가벼운 말이나 행동, 영글지 못한 습성들을 딱 질색하셨어요."

87년 6월 항쟁이 한창일 때. 현철은 불일암 툇마루에 앉아서 법정 스님에게 푸념을 늘어놓았다. 대학에 가보니까 별 것도 아니다. 할머니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어렵사리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는데 학교생활에 별 의미를 못 느낀다. 학교를 그만 둬버리고 차라리 고시공부를 할까? 아니면 동생들 뒷바라지도 해야 하니까 취직이나 할까? 책도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이 잡히지 않고 혼란스럽다. 차라리 불교로 개종을 하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넌지시 드렸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누구는 청국장을 좋아하고, 누구는 김치찌개를 좋아하지만, '천주님 사랑이나 부처님 자비는 풀어보면 모두 한 보따리'니 그대로 있으라고 했다. "스님은 '기도 열심히 해라. 지금 마음이 잡히지 않는 문제를 떠올리며 백일이 넘도록 마음을 기울여 정성껏 기도해 보아라. 적어도 생각이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가다듬어질 것이다.' 면서 베토벤 자주 가냐? 물으셨어요."

> 날마다 일기쓰는 일은 중요하다
> 말이나 생각은 날아가 버리지만
> 글로 정리하면 새로운 생각 떠올라
> 글쓰기는 나를 찾는 기도와도 닿아

그 뒤에 현철이 베토벤에 들렸다. 베토벤 이정옥 사장은 마침 네게 연락하려던 참이었다면서 스님이 등록금 고지서 가지고 오라신다. 네가 어렵게 공부하는 줄 알고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고 했다. 1학년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을 때였다. "스님이 등록금을 졸업 때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2학년 2학기와 3학년 때 장학금이 필요한 친구를 몇 사람 추천하라고 하셨어요." 스님은 베토벤 이정옥 사장에게 따로 일렀다. 학생을 추천을 할 때, 공부 잘하고 못하고나 학과나 학교수준은 관계치 말라고. "그래서 의과대학 다니는 고등학교 후배 한 명과 친구 2명, 전남대 1명, 조선대 2명을 추천했어요. 이정옥 사장은 '절대 입 열지마라. 스님 엄명이다.'고 말했어요." 대학에 다니면서 불일에 올라가 스님께 공부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운을 떼려 치면, 스님은 어느새 다른 말씀으로 돌리곤 했다.



"때가 되면 꼬박꼬박 들어오는 장학금을 앉아서 받기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양말이나 몇 켤레 사드리려고 새벽 일용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첫날 일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데 일당을 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 준다고. 그 다음 날 가서 일하면 또 다음 날로 미뤘어요. 그렇게 사흘 일을 하고 나흘 째 되는 날 새벽에 나갔는데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일당을 떼이고 말았죠. 제 딴에는 스님 양말이라도 사다드리고 싶어서 노가다를 했는데. 그 돈을 못 받고 친구에게 만 이천 원을 빌려서 양말 여섯 켤레를 사다 드렸습니다."

2학년, 3학년, 해를 거듭할수록 스님은 현철을 대견해 하면서 지도자, 법조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글쓰기 중요성을 말씀했다. 공부하기 바쁜데 왜 여기까지 오느냐? 편지를 하면 되는데. 날마다 일기를 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이나, 스치는 생각은 바로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지만, 글로 정리해 쓰다보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생각을 정리 정돈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글쓰기는 나를 찾아가는 기도와도 이어진다. 보다 넓은 사고를 키우기엔 시간이 짧다.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려면 사회개혁론을 비롯한 세상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며 공부하는 즐거움에 대해 말씀했다. "스님은 당신 대학 때 일기가 대학노트로 몇 권이 있다고 하면서 일기를 왜 밤에만 쓰려고 하느냐. 쓰고 싶을 때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아침에 씁니다."

현철이 법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때는 대학 4학년이 다 돼서부터다. "스님은 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주셨어요. 덕분에 마음병이 치유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법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여러 문제가 스님이 불일암을 떠나시기 전까지 다 정리되었다. "스님에게 입은 은혜는 등록금보다도 삶이 정리 정돈된 일이 더 큽니다. 모든 문제가 길고 짧은 시간 체에 걸러졌습니다. 스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은 긍정과 시작 그리고 희망입니다. 제가 대학 4년을 마치고 나니까 스님은 강원도로 들어가셨어요."

2003년 광주에서 맑고 향기롭게 스님 강연회가 전남예술회관에서 열렸다. 문현철 교수는 거기서 스님을 뵙고 명함을 드리면서 "스님, 이제 제 밥벌이하고 사회인으로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고 말씀드렸다. 스님은 명함을 찬찬히 들여다보시고는 참 흐뭇해하시면서 초당대학교… 음, 좋은 학교지. 이제 진짜 공부 한 번 해봐라. 그러셨다. "그게 스님과 마지막이었어요."

현철은 군인이나 법관, 외교관을 꿈꾸었지만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늘 선생이 되라고 말씀했다. 그 말씀이 귀에 뿌리를 내린 까닭일까. 대학교수가 되었다. "조선대 법대에서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내내 법학과 조교를 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전북에 있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 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욱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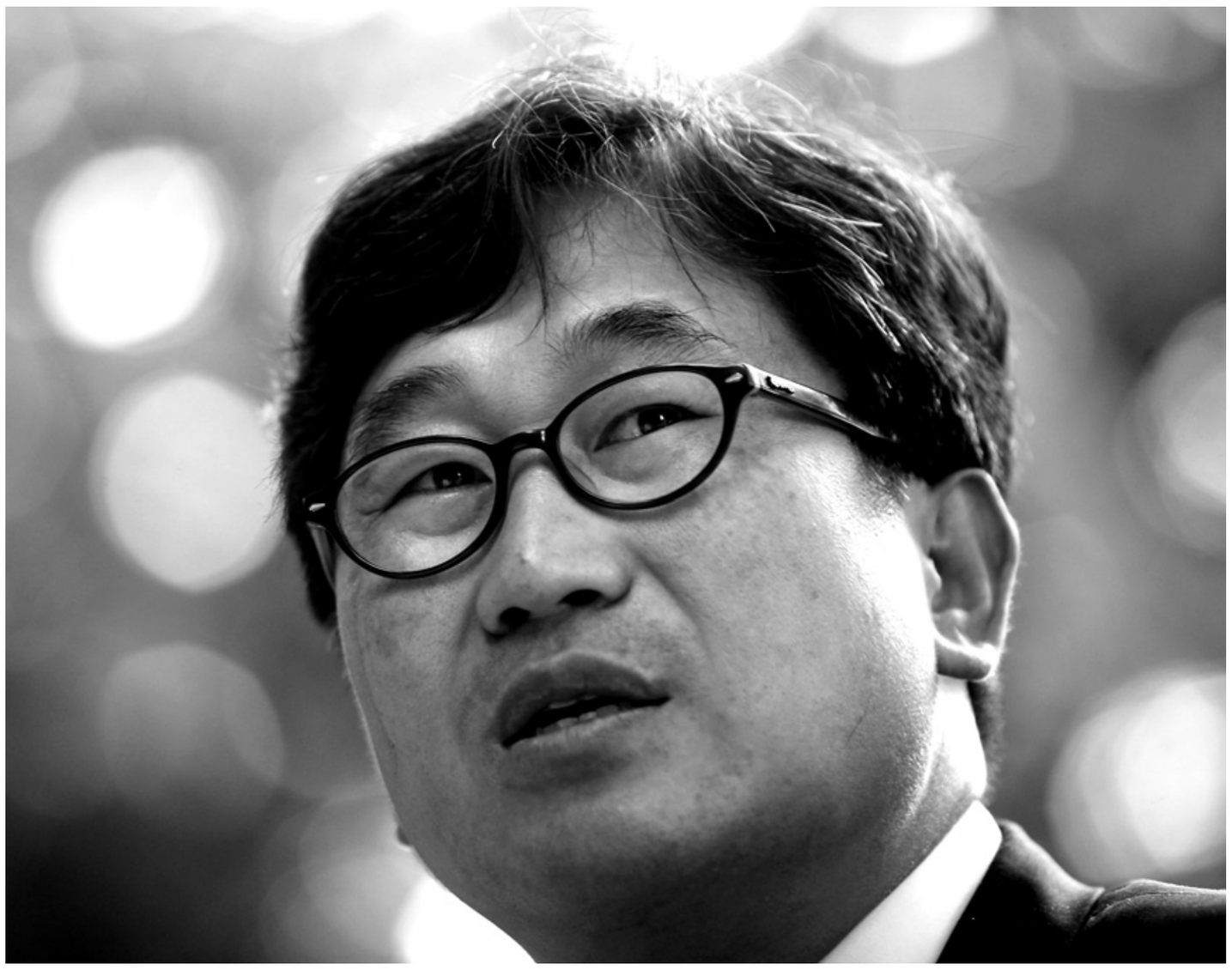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는 어떤 대학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전공인 행정법 6시간을 맡을 뜻이 있느냐면서, 광주에서 차로 2시간 걸리는데 일주일에 세 번을 가야 할뿐더러 강의 수당도 너무 짜다고 했다. 문현철 교수. 처음 하는 강의, 실습비를 내고라도 해야 할 판인데 기꺼운 마음으로 하겠다고 선뜻 대답했다. 98년 3월 학기. 여섯 시간 가운데 세 시간은 야간 강좌였다. 야간 강좌는 학생이 세 명 밖에 없었는데 개강 때 학생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둘째 주에 한 명이 왔다. 문현철 교수 한 명이 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세 시간 수업을 빡빡하게 소화했다. “신바람 나서 강의를 해야, 그 다음 학기에 세 명이 오고, 다섯 명이 오고, 열 명이 오지요. 셋째 주 강의를 막 시작하려는데 정전이 되어버렸어요. 지리산 자락이라 번개가 자주 치기 때문에 정전이 잘 되요. 그래서 넷째 주부터 랜턴을 세 개 가지고 갔어요. 불이 나가도 진도는 나가야 하니까. 마침 그날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랜턴 두 개는 칠판을 향해서 켜 놓고 한 개는 뒤에서 학생을 향해서 켜놓고 강의를 했어요.” 열정으로 똘똘 뭉친 탓일까. 2학기, 9월 학기엔 강의가 열여덟 시간으로 세배가 늘었다. 그 다음 99년 1학기에 서른여덟 시간으로 늘더니, 2000년에는 사십팔 시간이 됐다. 그 때 문 교수 별명이 강의 재벌이었다.

문현철 교수가 연구하는 분야가 재난, 재해를 포함한 국가 위기, 위험으로부터 주민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과 행정시스템. 휴머니즘이다. 위험에는 전쟁이나 테러 같은 군사상 위험뿐만 아니라 재난, 재해, 각종 전염병이 다 들어간다.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방제 행정법 체계화에 대한 연구〉다. 우리나라는 재난위기관리시스템 법체계 선진국이다. 해외에서도 배워가야 할 만큼. 그러나 주민보호시스템은 현장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할 때 완성된다. 문제는 민방위 훈련이나 재난안전 한국훈련 때 주민들이 적극 동참하지 않고 옆집 불구경 하듯 하는데 있다.

“일본이나 이스라엘, 미국은 재난, 재해로부터 주민보호시스템이 가장 완벽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일본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후쿠시마 현 변두리에 있는 오까와 초등학교에 쓰나미 경보가 울렸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울리면 무조건 높은 데로 가야만 합니다. 오까와 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대나무가 우거진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대피할 것이냐를 놓고 선생들끼리 난상토론을 벌이다가 학교 앞에 있는 내를 건너 대피하기로 했습니다. 물이 그리로 들어오는데. 전교생 85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산으로 30M만 올라갔어도 다 살 수 있었는데. 일본사회가 위기관리시스템 완벽을 자랑했으나, 일반 사람들 실핏줄까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문현철 박사가 군사학 교수라고 했을 때 스님 장학금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 하필이면 군사학교수일까?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온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까닭은 국민보호시스템인 군軍이 지켜주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일이 종교가 할 일이라면, 실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다리 쭉 뻗게 만드는 울타리는 군대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이다. 법정 스님이 심어준 긍정과 희망에너지 덕분에 일어선 문현철 교수. 온 국민이 긍정과 희망에너지를 품고 마음 놓고 사는 세상을 꿈꾼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청년의 말 귀 기울여 준 법정 스님
스님 덕분에 마음병 치유한 청년
스님이 긍정과 희망에너지를 심어준
문 교수 꿈은 온 국민 안심하는 세상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일기일경



동국대 선학과 교수

교정에 제일 먼저 가을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 있다. 운동장 축대를 타고 절지동물(節肢動物) 마냥 오르는 담쟁이 덩굴이다. 그들은 만유인력에 저항하며 위로 위로 올라간다. 이제 성장을 멈추고 붉게 물들어 가는 모습에서 고요를 발견하게 된다.

발견이라는 단순한 단어는 형이하학적인 목표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세계까지 추구할 수 있는 힘을 내재하고 있다. 마치 어둠이 공포로만 다가오는 것쯤으로 알았던 사람이 어둠의 미덕이 안식과 평화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희열 같은 신비로움이 아닐까. 어둠을 아랑곳 하지 않고 밤을 지키는 귀뚜라미는 진정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주인공일 것이다. 이따금 그들과 벗을 하노라면 일에 능률이 배가 되고 밝음의 번잡함에 비해 더할 나위 없는 한가함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 무슨 긴 사설을 늘어놓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고요는 고요와 경쟁을 벌이지 않고 아름다움 또한 아름다움과 경쟁을 하려 하지 않는다. 절대 고요와 절대 아름다움은 그들의 극치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자연이 주는 메시지는 천태만상이다.

선어 가운데 ‘일기일경’이란 말이 있다. 〈벽암록〉 제3, 11, 57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기(一機)란 선사가 선을 배우는 학인을 대할 때 자기의 사상을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접득수단(接得手段)이라고 한다. 즉 눈썹을 치켜 올리거나, 눈을 깜박인다거나, 돌아보거나, 살펴보거나, 피식 웃거나, 꽥 소리 지르거나 하는 것이다.

한 두 사례를 들어 보고자 한다. 경허 선사의 제자 혜월(慧月; 1862~1937) 스님이 팔공산 파계사(把溪寺)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일이다. 하루는 객승이 찾아 왔다.

“그대는 뭣 하러 왔는가.”

그러자 객승이 대답했다.

“참선하려고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큰스님의 시절인연을 보려고 왔습니다.”

객승의 대답에 혜월 스님이 대뜸 물었다.

“참선해서 무엇 하려고”

“그거야 부처가 되려고 그러지요.”

“참선은 앉아서 하는 건가, 서서 하는 건가.”

“물론 앉아서 하지요”

그러자 혜월 스님은 깔깔 웃으면서 말했다.

“그 놈의 부처는 다리 병신인 모양이지. 앉아서만 있으니.”

어리둥절해진 객승은 혜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좌선은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앉아만 있는 것이지 부처되는 작업은 아닐세.”

〈유마경〉 제자품에서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등록〉 제 14권에 조주대전(趙州大顚) 선사가 나온다. 대전선사는

“어느 것이 그대의 마음인가.”

“이야기 하는 것이 그입니다.”

이에 할(喝)을 당하고, 자리에서 쫓겨났다. 십여일을 지나 대전선사가 다시 물었다.

“먼저 대답이 틀렸다면 그 밖에 어떤 것이 마음입니까?”

석두가 대답했다.

“눈썹을 번득이거나 눈을 깜박이는 일(揚眉瞬目)을 제하고서 마음을 가져 오너라.”

“가져올 마음이 없습니다.”

“원래 마음이 있는데 어째서 없다 하는가. 마음이 없다고 하면 모두가 비방하는 말이 된다.” 대전이 이 말에 크게 깨달았다.

일경(一境)은 선사가 자기의 사상을 외계의 사물을 빌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곧 꽃을 들어 보이거나,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달을 가리키거나, 지팡이를 세우거나, 물을 가리키거나,

일기(一機)는 선사의 동작이며
일경(一境)은 선사의 표현이다
“이름 받기 전 네 모습이 무엇이냐”

소리를 듣거나 하는 행위이다.

〈오등회원〉 권9에 향엄지한(香嚴智閑) 선사가 나온다. 지한은 위산영우의 제자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도 오랫동안 깨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스승은 나지막한 소리로 향엄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향엄아, 부모님으로부터 향엄이라는 이름을 받기 이전의 네 모습은 무엇이냐?” 이 엄청난 질문에 앞뒤가 꽉 막힌 제자 향엄은 평소에 공부하던 책을 모두 불살라 버렸다.

“이 생에 불교를 공부하여 깨치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대중 시봉이나 하며 후원에서 편히 지내야 겠다”고 다짐하고 위산의 곁을 떠났다. 그 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남양혜충국사의 유적지에 머무르게 되었다. 어느 날 운력을 하다가 돌멩이를 울 너머로 집어던졌는데 그것이 대나무에 부딪치는 소리가 기연이 되어 크게 깨칠 수 있게 된다.

물의 속성은 부드러움이다. 그러나 형태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듯이 광대무변한 마음은 어떤 기(機)와 경(境)을 만나느냐에 따라 불가사의한 힘이 솟는다.

30년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것 총집합
염주, 단주, 금강저, 반지, 목걸이, 핸드폰줄, 자수정, 호안석, 백옥, 청옥





주얼드림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www.jeweldream.co.kr * 책자(카다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농협 356-0460-2307-43 예금주 : 주얼드림
NAVER 주얼드림 검색

2012년 불교달력 특별할인(8월 1일~9월 30일) 판매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2012년 불교카렌다」를 특별할인 기간(8월 1일~9월 30일 까지)에 주문하시면 고급스럽고, 질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를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보급 해 드립니다.



※다양한 종류(벽걸이, 차걸이비닐캡, 미니스프링, 미니수첩, 탁상, 법요집책자, 각종 불교용품 등)의 카렌다 내용과 이미지는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www.samboca.com)에서 확인 또는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카다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삼보불교카렌다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통합검색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하세요
대표전화. 031) 732-9905 | Fax. 031) 732-8972



이현정 소장의 이제는 다문화 시대

한국, 인신매매 실태 10년 연속 1등급

이현정
한국다문화센터 소장

다문화는 총체적인 문화의 전환을 가리킨다. 말 그대로 문화전반적인 요소에 변화가 일어나는 움직임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노동을 위한 이주가 가장 활발하고 가속화되어 이에 따른 여성의 이주노동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여성의 이주형태다. 여성들은 결혼이주와 노동이주, 또는 이 둘의 복합적인 모습을 띠고 이주해오고 있다.

유엔은 1990년대 후반부터 5년간 여성 인신매매가 국제무역의 형태로 급증해 연간 80억 달러규모를 넘어서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무부가 올해 6월27일 공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는 낯 뜨거운 한국의 인신매매 실태가 공개된 일이 있었다.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실태와 관련해 세계 각국 정부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과 예방활동 실적 등을 토대로 조사대상 국가에 1등급, 2등급, 2등급 요주의, 3등급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1등급으로 분류돼 2002년 이후 10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세계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한국만은 전혀 변화가 없으며 나아지지도 않고 제자리걸음의 고집 속에서 세계화, 다문화시대를 맞고 있다"고 표현해 노골적인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유엔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신매매 실태는 지난해와 같이 바닥 수준이었는데 한국은 강제 매춘과 강요된 노동에 처해지는 남성과 여성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종착국이라고 규정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모로코 콜롬비아 몽골 중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지의 남성과 여성들이 취업이나 결혼을 위해 모집되지만, 한국 내에서 강제적인 매춘 혹은 강제 노역에 처해지기 십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유엔은 결혼으로 입국한 이주여성들 중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여권을 빼앗긴 채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조차도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지에서 강제 매춘에 시달리기도 하며, 한국의 10대들이 점점 매춘에 착취당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아동 성 착취의 95% 이상은 인터넷을 통해 중개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듣기만 해도 너무 흉측하고 미개한 국가라는 생각이 스칠 정도로 험악한 내용이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여성이주는 5백만을 넘어섰다. 위의 보고서처럼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주형태는 성매매산업과 국제결혼을 통해 들어오는데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한 이주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순수한 결혼이주로서도 한국남성의 가부장적태도는 여성이 겪어야 할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주여성이든 한국여성이든,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은 오래된 병폐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남아선호에 따른 저출산의 결과와 가부장제도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리의 발달저해를 가져왔다. 이를 개선하거나 전환시키기도 전에 우리는 다문화시대를 받아들이게 됐으며 이에 대한 성숙한 대비 없이 전 세계에 인신매매국가라는 오명을 덧씌우게 된 셈이다.

이런 가부장적 태도에다가 동아시아여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학대, 모욕, 차별 등이 덧붙여져 더 심한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결혼이주여성의 36%이상이 남편의 폭력경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현재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성평등, 세계화, 다문화 문제는 서로가 맞물려 있다. 전체적인 국민의식이 깨어나지 못하면 심적으로나 표면적으로 늘어나는 이주민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단일민족을 내세우며 부질없이 '빽투더퓨쳐(Back to the future)'만 외칠 것이다.

정지천 교수의 건강칼럼

마돈나는 구기자를 즐긴다

중국 여황제였던 측천무후(624~705)가 드라마에 등장하자 사학자와 역사소설가들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비판이 거셌다. 당시 측천무후는 60세가 넘은 나이였는데 너무 젊은 탤런트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측천이 더욱 젊게 보여야 옳은 것이니, 당시로서는 엄청난 나이 82세까지 살았을 뿐만 아니라 40대 정도의 수려한 용모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무측천이 젊게 보인 이유에는 어의(御醫)들이 만들어 올린 미용비방을 항상 얼굴에 발랐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무측천이 상용했던 미용비방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익모초택면방(益母草澤面方)'으로서 '신선옥녀분(神仙玉女粉)'이라고도 불렀다. 익모초(益母草)는 부인병에 상용되는 한약재로서 외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익모초택면방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복잡하다. 매년 음력 5월 5일에 익모초를 뿌리째 채집해 햇볕에 말리고 잘게 썬 다음 가루로 만들고 여기에 적당량의 밀가루와 물을 가하여 계란 정도 크기의 둥근 환약으로 만들고 햇볕에 말린 이후에 황토 진흙으로 만든 화로에 넣는다. 화로는 사방에 한 개씩 구멍이 뚫려 있고 상층과 하층에 탄을 넣고 양 층 사이에 환약을 놓아두고 불을 넣는다. 센 불로 얼마간 끓이다가 약한 불로 낮춰서 24시간 천천히 끓이는데 중간에 불을 꺼서는 안 되고, 최후에 정제된 상등품의 환약은 마땅히 색이 새하얗고 부드러우면서 매끄러운 것이어야 한다. 환약을 꺼낸 다음에 서늘한데 투과시킨 후 자기 그릇에 넣고 구슬 망치를 써서 세밀한 가루로 만든다. 이어서 옥 가루나 녹각 가루를 약 속에 섞은 다음 자기 그릇에 넣고 밀폐시켜 두고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면 된다. 이 약을 얼굴에 바르자마자 손이 매끄럽게 변해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면서 뺨에는 광택이 생기고 이후에 점차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서 뺨이 불그스레해지고 윤기가 있으니, 40~50세의 부인이 사용하면 15~16세의 여인과 같은 젊은 모습으로 나이가 젊어져 보이게 된다고 한다.

다른 한 개의 미용방은 '면지(面脂)'를 바르는 것으로 요즘 쓰이는 얼굴 크림이나 팩에 해당된다. 약재들에 돼지기름을 넣어 정제한 뒤 가늘게 분쇄해 술에 담가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끓여서 만드는데 천천히 응고되게 하면 만들어진다. 위유, 과루인, 돼지기름은 음기를 넣어주고 피부를 윤택



하게 하는 효능이 있고, 세신, 백부자, 신이는 풍기를 없애고 눈, 코, 귀, 입 등 우리 몸의 통로를 잘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으며, 황기는 기를 도와주고 천궁, 목람피는 혈을 소통시키며 습기를 보존하는 약효를 가지고 있다.

미용비방을 얼굴에 바르는 것만으로 동안이 유지될 수 있을까? 피부의 상태는 몸속의 상태와 직결되는 것이니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폐와 신장을 비롯하여 오장육부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피부 자체적인 문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측천무후는 평소 보양(保養)을 매우 중요시하여 어의들로 하여금 최상의 보약을 만들어 오게 하여 지속적으로 복용했다. 그래서 음양이 화합되고 혈기가 충족됨으로써 고운 피부가 되고 외용약의 효과도 볼 수 있었기에 동안이 유지됐던 것이다.

고대로부터 나이가 든 사람이 아이처럼 건강하고 젊은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반로환동(返老還童)'을 위해 먹었던 한약이 많다. 구기자(枸杞子)도 그 중의 하나인데 수년 전 영국의 BBC 보도에 의하면 마돈나, 엘리자베스 헐리, 미샤 바튼, 케이트 모스 같은 연예계 스타들이 즐겨 먹는다고 한다. 그녀들이 나이를 먹지 않는듯하게 군살이 전혀 없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비법이 바로 구기자를 먹는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구기자는 체지방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억제하며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성인병과 노화를 억제하며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입증되었다.



구기자에는 비타민 C가 오렌지보다 훨씬 많고 암 예방에 뛰어난 베타카로틴이 당근보다 많으며 필수 아미노산과 각종 미네랄도 들어 있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兎'일 묵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 〈끝〉

적절하게 수행하기

불교수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을 주는 마음인 어리석음, 탐욕과 성냄 등의 번뇌를 내려놓고 행복을 주는 마음인 알아차림과 지혜, 자비심을 계발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통을 주는 마음과 행복을 주는 마음의 차이를 지혜로써 바로 알고 고통을 주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 '바로 알고 내려놓기'라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한다면 단순하게 줄여서 내려놓음, 놓아버림, 포기, 버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생활 속의 알아차림'은 걸어가거나 일을 할 때처럼 몸을 움직이는 때가 적당하고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은 좌선할 때나 가만히 서있을 때와 같이 몸을 움직이지 않을 때 적당한 수행법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본다.

먼저 몸을 움직일 때는 대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대상을 취사선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을 하는 '생활 속의 알아차림'이 적합한 수행법이다.

움직일 때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번뇌 분화되기 전 즉시 내려놓기
삼매에 드는 것은 철저히 내려놓음

이때는 마음이 다양한 대상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대상을 제한할 수는 없다. 단지 현재 일어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리석음이나 탐욕과 성냄으로 오염된 마음은 온갖 종류의 번뇌들을 일으켜 삶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들뜨게 해 지혜가 계발되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바로 알아차려서 번뇌가 분화되기 전에 즉시 내려놓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마음은 점점 정화되어 가기 때문에 고통은 줄어들고 행복은 커지게 된다.

생활 속의 알아차림을 통해 수행자는 많은 지혜를 기를 수 있다. 다양한 대상과의 만남 속에서 대상과 마음의 특징, 드러나는 모습 등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게 되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이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번뇌에 오염되지 않도록 번뇌를 내려놓는 수행도 능숙해질 것이다. 결국 다양한 대상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려놓기'에 대한 지혜가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내려놓는 방법의 예로 탐욕이나 성냄을 내려놓을 때는 보통 부정관이나 자애명상을 이용한다. 또한 이 세상의 현상들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므로 실체가 없다는 것을 통찰하고 집착하거나 화를 낼만한 대상이 없음을 통찰하고 탐욕과 성냄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다음에 좌선자세나 가만히 서있을 때와 같이 몸을 움직이지 않을 때는 대상을 제한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 하나의 대상인 들숨날숨에만 알아차림을 하여 삼매를 계발하는 것이 좋다. 이때는 오염된 마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아는 마음외의 어떤 마음이라도 내려놓아야 한다. 생활 속의 알아차림은 오염원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지만 삼매를 계발하는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에서는 호흡을 아는 마음외의 어떤 마음의 움직임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좌선을 하기 전에 호흡만을 알아차림 하겠다고 결심한 후 좌선 중에는 호흡외의 어떤 다른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단지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다른 대상으로 가는 마음을 내려놓다보면 마음은 저절로 들숨날숨에만 알아차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삼매에 들 수 있게 된다.

삼매에 드는 것은 철저한 내려놓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염원뿐만 아니라 호흡을 아는 마음외의 모든 마음의 움직임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고 완전하게 고요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의 고요함은 더욱 깊은 지혜가 일어나게 한다. 이는 우리가 걸아가면서 경치를 보는 것보다 가만히 멈추어 서서 경치를 보는 것이 더욱 자세히 보고 음미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또한 지혜가 성숙하면 더욱 쉽게 내려놓을 수 있으므로 마음은 더욱 고요해질 수 있다. 즉 고요함과 지혜는 서로 돕는 관계이며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몸의 자세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 어떤 환경이든지 위의 방법을 활용해 내려놓는 수행을 지속하는 것은 중요하다. 설사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번뇌, 스트레스, 마음이 상처 등의 마음의 짐을 점차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은 점점 행복해지고 마음은 점차 고요하고 순수해질 것이다.



일묵 스님(제따와나 방배선원장)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살아 있을 때는 삶,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죽을 때는 죽음, 그 자체가 되어 죽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도 없게 된다. - 벽암록 -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불샵 02)2004-8215

BCP공간살균기

NO! 이제부터 신종플루·새집증후군·세균걱정 끝!!
보이지 않는다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
- 물을 전기분해하여 사용하므로 환경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 중성에 가깝고, 무색·무취로서 장기보존이 가능합니다.

● 안전성
- 식물첨가물로서 인체에 무해합니다.
- 트리할로메탄 생성과 잔류성이 없어 안전합니다.

● 저비용 고효율
- 소모품 비용이 저렴합니다.
- 모든 병원성 미생물에 대하여 강한 살균력을 갖습니다.

BCP공간살균기

본 제품은 염소가스의 국제환경 허용농도보다 100배 낮은 수준으로 하여 공간시설물에 점착되어 있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각종 유기물과 공중부유균, 낙하균 등을 안전하게 분해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치아염소산 전용 공간살균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살균력과 안정성이 입증된 치아염소산을 3-5마이크론의 초미립자 분무하여, 실내공간의 대류에도 30분이상 부유하게 함으로서, 공기청정기(공기살균기)에서는 할 수 없는 인플루엔자보균자(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을 즉시 차단할 수 있으며, 실내공간 시설물의 점착균 제거도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델 : BCP
• 자연대류식 • 항균필터 • 이온세균시스템 • 물탱크용량 4L
• 소비전력 43W • 분무량 500cc • 물량표시 / 물없음 알림
• 잠금장치 • 현재습도표시

공간살균시스템 50만원(월 살균제 3만 5천원)

현불샵 02)2004-8215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法 법과 果



법과활용(Application)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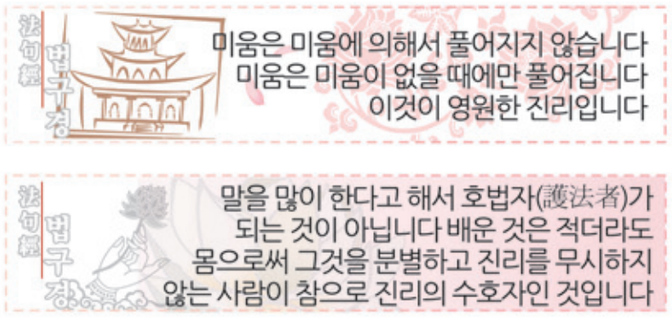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감명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사찰 홍보·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 문의
TEL : 02)2004-8216
FAX :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정의·통일·기득권… 우리시대 화두를 말하다

안철수 · 박경철의 '2011 희망공간 청춘콘서트' 스물두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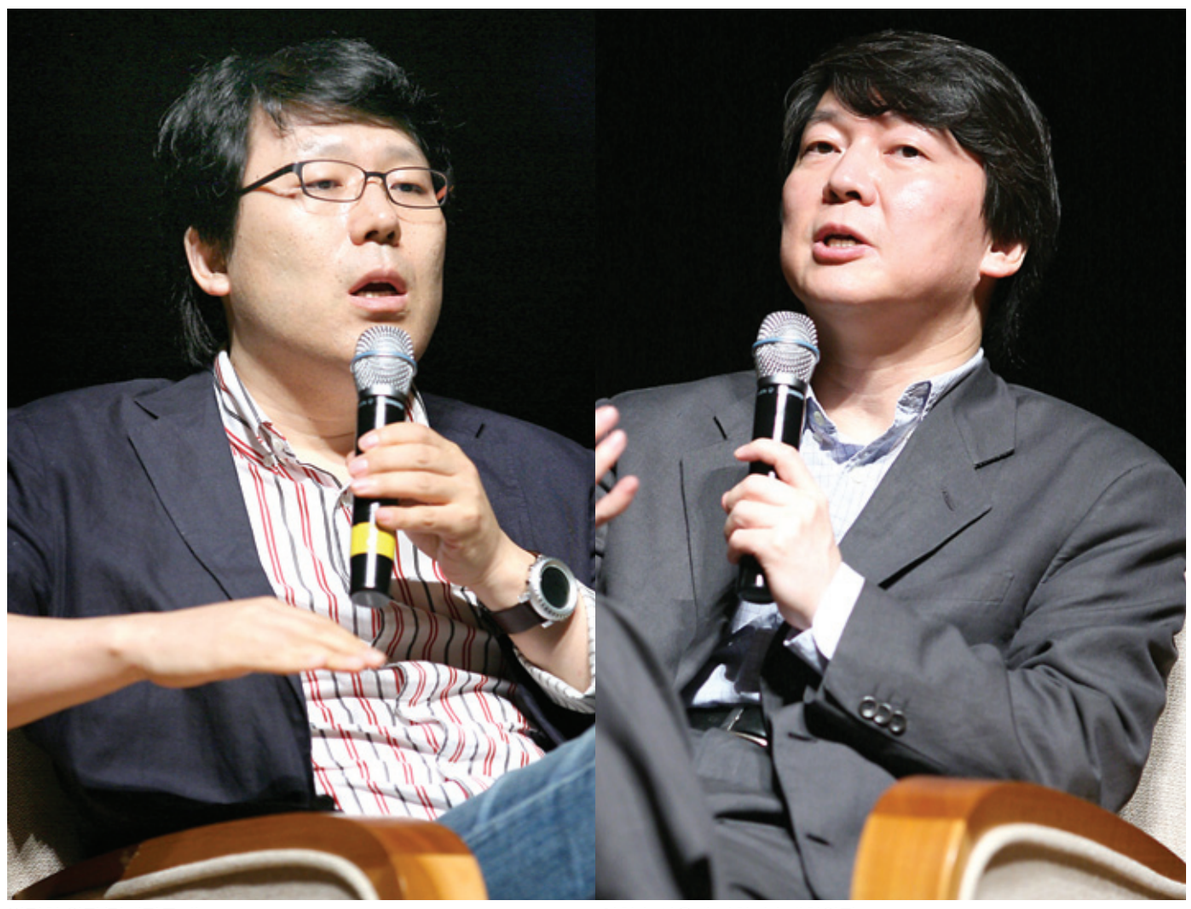
전국 25개 도시를 순회하고 있는 안철수 · 박경철의 '2011 희망공감 청춘콘서트'가 9월 2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렸다.

청춘콘서트는 최근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 특별손님을 초대해 대담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지난 5월 서울 경희대와 부산 KBS홀에서 70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시작돼 타 지역의 요청으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번 행사는 22번째로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2500여 명의 청년들이 자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대중의 관심과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행사에는 최상용 前 주일대사(고려대 정경학부 교수)와 '딴지일보'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총수가 게스트로 출연해 '공정' '정의' '통일' '기득권' 등을 주제로 가벼우면서도 진지하고 웃기면서도 날카로운 대담을 나누었다. 다음은 대담의 요지다.

정리= 이나은 기자

수직적 언어 시용하는 한국
융합시대와 전혀 맞지않아
요즘은 수직 아닌 수평적 시대
리더십은 대중이 주는 선물



박경철 원장(경제평론가) 안철수 서울대 과학기술대학원장

다방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융합'

박경철(이하 박):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하는 주제가 정의, 기득권, 공정을 융합해야 해서 융합으로 정했다.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맡게 됐다. '융합'이 뭔가?

안철수(이하 안): 융합이라는 건 경계면, 접점에 대한 관심이다. 스마트폰이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대기업에서는 "저거 잘 안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히트를 쳤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전자회사들이 부랴부랴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했다. 기업들도 처음에는 하드웨어 분야만 따라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건 큰 착각이다. 외국에서 수입된 스마트폰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컨텐츠, 비즈니스 모델 등 5가지가 완전히 융합 된 형태다. 한 분야뿐 만 아니라 다방면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 중 하나가 계층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 수직적 언어를 쓰다 보니 사고도 수직적으로 변해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연령, 학번, 선후배를 따진다. 이런 게 한국인들의 특성이다. 이것은 융합시대와는 맞지 않다. 서울대 융합대학원을 비롯해 전국에 50여 개의 융합대학원이 생겼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문과 교수 한명, 이과 교수 한명을 한방에 놓고 서로 교류, 연구하라고 하면 융합이 되는 줄 안다. 천만에 말씀이다. 융합이 되려면 분야별 전문가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모래알을 상자 속에 넣어두고 언제 벽돌이 되나 기다리면 절대 안 된다. 벽돌이 되려면 아교를 넣어야 한다. 아교 역할을 할 사람을 투입해야 융합이 된다. 전국은 기업의 CEO들이 아교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우리나라는 전문경영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 · 결정이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 위험, 모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투자해봐야 전문경영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기업 오너들이 있다. 회장들이 직접 투자 · 결정을 하지 사장에게 맡기지는 않는다.

박: 어떻게 학생들은 융합적 사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안: 학부 때부터 융합적으로 공부한다면 난 반대다. 학부 때는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려고 준비하는 시기인데 그때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면 안 된다. 한 분야에서 소양을 깊이 쌓은 뒤 대학원을 진학해 다른 분야와 접목 · 융합해야 한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 〈티핑 포인트〉 등은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도서이다. 이 책들은 소셜네트워크의 기본을 설명한 책인데 경영학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회학이 있고 사회학 안에는 심리학이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심리 말이다. 이 저자는 사회학, 심리학의 시각으로 경영학을 바라봤다.

토마스 프리드먼은 세계적인 석학인데 어떻게 신문기자에서 석학이 됐을까. 처음 그가 뉴욕타임즈 특파원으로 중동지역을 갔는데 그쪽의 역사와 세계정세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하고 뉴욕 월스트리트로 갔다. 언뜻 보기에는 중동지역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은 돈의 흐름에 대해 전문성을 쌓다 보니 두 분야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보았다. 앞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되면 안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대체 가능한(replaceable)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최소한 한 가지 분야가 아닌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양쪽을 접목시키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안철수 연구소를 처음 설립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 7년 동안 무료로 백신을 보급해 왔는데 법인이 된 후에도 무료로 보급하자고. 대신에 기업과 관공서에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 그 여력으로 공익적인 일을 하자고 다짐했다. 요즘 개념으로 치면 사회적 기업이다. 사실 안철수 연구소가 사회적 기업 1호였다. 지금까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정부에서 지원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지원금 받으려고 신청해도 연줄이 없으니 떨어지더라(웃음). 그때 당시 정부에 신청해서 지원금을 타던 회사는 망했고 안철수 연구소는 살아남았다. 정부자금은 독과도 같다.

'정의'는 약자에 대한 배려
(첫 번째 손님 최상용 前 주일대사)

박: 요즘 '정의'가 화두이다. 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최상용 前 주일대사(이하 최): 한마디로 정의를 말해보라 하면 뭔가 망설여진다.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점은 꼭 말하고 싶다. 정의(正義)에 대한 수많은 정의(定義)가 있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인 것 같다. 언젠가 김제동씨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말 할 때 깜짝 놀랐다.

안: 조직에서 정의가 구현되려면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게 시대마다 바뀌지 않을까.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리더라면 어떤 소양을 가져야 합니까?

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정치의 목적은 정의라 했다. 대통령이 된 다음 책 읽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평생 책을 읽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 대체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정의에 학습돼 있고 익숙한 사람이어야 한다. 투표장 가서는 그런 사람을 찍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로운 행위다.

안: 정의와 복지는 어떤 관계인가?

최: 대한민국이 정치 안정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할 필요 없다. 평균적인 국민의 생활이 안정돼야 한다. 가계가 미래를 개벽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은 남북한 문제와 외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삼각형이 튼튼해야 가계와 경제도 잘 돌아간다.

특히 양극화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정하게 배분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또 남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권력을 가진 지도자 보다 인도주의적 철학을 가진 법륜 스님과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많이 해야 한다. 평화적인 통일이 돼야 한다.

신라는 688년에 삼국통일을 이뤘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기기 전까지 1222년 동안 우리 조국은 통일국가를 유지하고 살아왔다. 65년 동안 미국, 러시아 때문에 분단돼 살아왔다. 때문에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일이 된다면 인구는 7000만 명을 넘는데 이는 6000만 명인 영국보다 많은 수다. 문맹률은 영국보다 우리가 낮을 것이다. 가난한 북한 동포도 문맹률이 낮다. 이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다면 영국과도 경쟁할 수 있다. 1222년을 유지해온 통일조국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통일해야 한다.

박: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가. 우리가 일본에게 하는 전략을 보면 구한말시절 강대국을 대하던 외교전략을 보는 것 같다.

최: 20~30대의 일본 선호도가 높다. 67%까지 올랐다. 하지만 그 호감도도 독도문제가 불거지면 20%로 줄어든다. 독도에 해병대와 경찰을 보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독도는 천연기념물이다. 천연기념물 전문가를 보내서 독도를 가꾸는 일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안: 요즘은 수평적 시대로 접어들었다. 20세기까지는 외향적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힘을 발휘하면 사람들이 따랐는데 요즘 사람들은 리더가 생겨도 바로 따르지 않는다. 한번 보고 '따라가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따라간다. 대중이 리더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리더십 같다. 예전에는 리더로부터 리더십이 나왔다면 지금은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대중이 어떤 리더를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첫 번째는 안정감이다. 같은 질문을 오늘, 내일 했을 때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희망이다. '저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다 잘 될 수 있어'라고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공감능력이다. 혼자서 현실에 발을 붙이고 눈을 맞대고 아픔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한 학생이 안철수 원장에게 질문: 청년이 가져야할 덕목 4가지를 말씀해 달라.

안: 같은 학교 나온 동기동창이어도 10~20년 후에 운명이 달라진다. 두 사람이 가진 차이는 뭘까. 첫 번째는 창의력이다. 문제를 시키는 대로 해결하는 사람은 창의력이 떨어진다. 겁이 나서 하던 대로 하고 위험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용감하게 문제에 뛰어드는 사람은 깨지고 부딪히더라도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 김제동씨가 그랬다. "20대에게 실패는 없다. 실수만 있다"고. 실수를 통해 배워 나가는 것이다. 젊을 때는 맷집을 키우는 시절이다. 두 번째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위만 쳐다보면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니 아래를 보고 용기도 얻어야 한다. 그리고 한 번씩 원대한 목표가 사람을 지치게 한다. '3년 뒤에 무엇을 하겠다'를 줄여서 '올해 까지, 이달 말까지' 식으로 계획을 쪼개라. 계획에 성공하면 스스로에게 상을 줘라. 음식점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런 방법을 쓰면서 맷집을 키우면 40대가 넘어서도 웬만한 충격은 견딜 수 있다. 인생이 맷집을 키우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끈기다. '마시멜로우 이야기'는 다들 알 것이다. 5세 어린아이에게 마시멜로우를 주면서 "15분만 참고 먹지 않으면 하나 더 줄게. 하지만 그 전에 먹으면 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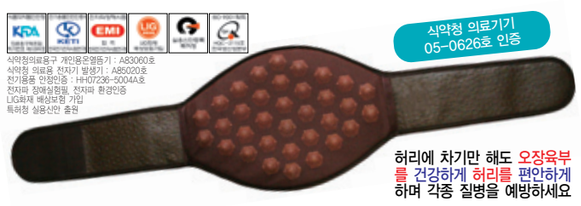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봉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 ~ 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어 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 규 격 8.5×5.2×2.0cm
■ 가 격 34,000 (건전지 포함)
룸비니는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젊은 당신, 누군가로부터 덕 볼 생각 하지말라”

상 없다”고 실험을 한다. 어떤 아이는 끝까지 참아서 하나 더 받고 어떤 아이는 하나 먹어서 보상을 못 받는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어릴 때부터 미래에 대해 기대하고 희망과 꿈을 가지면서 참을 줄 아는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잘 된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반드시 잘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살면 된다.

네 번째는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이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한 분야에 있는 사람은 몰입을 할 수 있겠지만 박사를 전공하면 다른 분야는 잘 보이지 않게 된다. 시야가 좁으면 큰일을 하지 못한다. 타인의 의견과 상식에 대한 포용력은 나이가 들수록 커져야 한다. 한 분야에 매몰되면 안 된다.

또 다른 학생이 최상용 교수에게 질문: 청년들에게 조언을 준다면?

최: 우리민족의 저력을 신뢰한다. 우리민족은 개성이 뚜렷하다. 그러나 개성이 뚜렷하면 모래알 개인주의가 된다. 2002월드컵을, 광우병 소 촛불집회 등 중요한 국가적인 일이 있을 때 마다 보여준 응집력을 봐라. 이건 설명하기가 힘들다. 문제는 그 개성이 모래알 개인주의로 가면 공동체가 위태롭다. 집단주의가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간다면 타국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 중용·중도적인 입장에 서주길 바란다.

나는 꼼수다의 철학은 ‘덕 볼 생각을 하지말자’
(두 번째 손님 김어준 총수)

박: 요즘 〈나는 꼼수다〉가 라디오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다운로드 세계 1위라는 엽기적인 기록을 올렸다. 그 열광적인 환호의 원동력은?

김어준(이하 김):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가카(이명박 대통령)’를 들 수 있다. 도와주신 가카께 모든 은공을 돌린다.

박: 김 총수를 초청한 이유는 기득권에 대해 강고한 저항을 해 오셨기 때문이다.

김: 저항한 게 아니라 저를 써주지 않아서 놀고 있는 것일 뿐이다.(웃음) 기득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먼저 기득권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 흔히 목소리가 큰 사람이 기득권인 줄 착각한다. 아니다. 구조를 장악한 게 기득권이다. 너무 진지했나?(웃음) 기득권과 싸우는 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딪쳐서 깨는 거고, 둘째는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난 후자 쪽이다. 예를 들어 조중동과 방송3사가 장악한 메시지 유통 구조가 있다. 그걸 자본도 인력도 없는 내가 깰 수는 없다. 하지만 전혀 다른 유통 구조를 만들 수는 있다. 10년 전에는 그게 딴지일보였고 지금은 ‘나는 꼼수다’이다.

나는 꼼수다가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와 스마트폰의 결합이다. 인터넷은 책상 앞에서만 한시적으로 온라인이었다면, 인터넷과 스파트폰의 결합으로 손바닥 위에서 24시간 온라인이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에선 정보를 게재하고 방문자를 기다려야 하는 피동적 전파였다면 여기 SNS가 결합되면서 수용자가 매우 손쉽게 능동적 전파자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컨텐츠가 스스로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멋진 말을 내가 하다니.(웃음) 그래서 ‘나는 꼼수다’는 절대 광고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첫 방송을 하고 딴지일보에 나는 꼼수다를 시작했다는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 가치 없는 컨텐츠라면 죽는 것이 당연하고 가치 있다면 스스로 유통될 것이니까. 광고하면 스팸이고 전파되면 정보인 거다.

박: 이건 단순히 플랫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김: 두 번째 요인은 가카다(웃음).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는 게 우주의 원리다. 가카가 찍어 누르면 그만큼의 힘으로 찌그러져 있던 반대 목소리가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있다. 우리는 가카가 누른 만큼의 반작용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 다음은 컨텐츠의 힘이다. 정봉주 전의원의 경박하나 예리한 분석(웃음), 주진우 기자의 취재력과 팩트, 김용민의 감각과 프로듀싱 능력 그리고 이 모두를 결합하고 간파한 지식인의 혜안(웃음). 하지만 전 스마트폰도 SNS도 하지 않는다(웃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귀찮아서. 두 번째는 뒤처지는 게 두렵지 않아서. 트렌드를 좇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변명하지 않으려고. 특히 나는 꼼수다를 하는 동안은 가능한 한 SNS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꼼수다는 논쟁적인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진보는 논리적 정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논리적 정합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진보의 성찰이 일어난다. 하지만 지금 난 그럴 여력이 없다. 논리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논리로는 이길 수 없는 대상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SNS를 안 한다.

박: 보통 저런 말을 하면 세무조사, 해킹, 미행 등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것들이 따라온다. 뭐 세무조사 받을 만큼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웃음)

김: 기득권 구조에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 모두 생활인이기 때문이다.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나쁜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에게서 받을 수도 있는 이익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기득권은 구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줄 게 많은 거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덕 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나꼼수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누군가로부터 덕 볼 생각을 하지말자는 거다. 이게 놀라운 지식인의 혜안을 가진 저의 철학이다. 저의 놀라운 외모도 잊지말아주시고. (웃음)

박: 이렇게 웃게 해주면서 카타르시스 시켜 준다. 카타르시스뿐만 아니라 기득권 구조의 해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김: 카타르시스만 주어서는 안 된다. 위로가 돼야 한다. 과거에는 물리력으로 눌렀으나, 지금은 생활로 옥죈다. 밥줄을 끊거나 소송을 해서 생활을 망가뜨린다. 밥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리력으로 때리면 힘이 약한 사람은 당연히 피해야 한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피하고 나서 뒤에서 X발 X발하면 되지.(웃음) 그런데 밥줄을 쪼였을 때 입을 다물면 스스로가 비겁해지고 우울해지고 자괴감이 생긴다. 그래서 자꾸 위축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게 위로다. “쫄지 마! 떠들어도 돼! 떠들다 잡혀가면 뭐 어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된다.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를 주고 싶었다. 이게 내가 기득 구조에 저항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두 번째는 구조를 해체한다고 했는데 별거 아니다. 조중동과 방송 3사의 자본과 규모로는 싸움이 안 되지만, 새로운 플랫폼과 그 플랫폼에 적합한 컨텐츠와 그것을 전달해내는 사람들과 가카가 누른 힘만큼의 반작용이 결합하면, 그 제작과정이 아무리 허접하더라도, 메시지는 스스로 폭발력을 가지고 전파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새로운 메시지 유통 구조의 탄생이다. 물리적 구조만 구조가 아니다. 기존 메시지 유통 구조에 좌절할 게 아니라 그에 버금가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두 번째로 싸우는 방법이며 그 구현이 나는 꼼수다이다. 그래서 난 나는 꼼수다를 조중동과 방송3사, 검찰, 청와대 전부와 1:1로 싸우고 있다는 생각으로 만든다.

(안철수 원장은 9월 6일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 9월 2일 진행된 청춘콘서트에서 김어준 총수는 안철수 원장에게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물었고 좋은 정치인의 자세에 대해 언급했다.)

안: 나는 항상 선택을 할 때 의미를 느낄 수 있느냐,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느냐, 실제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나. 이 세 가지만 고려한다.

김: 이건 좋은 정치인의 기본자세다. 지난 10년 동안 유력 정치인 중 안 만나 본 사람이 없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왜 내가 안 돼? 나라고 못할 이유가 뭐야?” 가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사실 출발점은 “왜 나여야 하는가” 그거여야 한다.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를 되묻는 것은 좋은 정치인의 첫 번째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세가 되는 사람을 최근 딱 두 분 만났다. 문재인과 안철수이다.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른다
국민 억압할수록 반발만 커져
구조를 장악해야 진짜 기득권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운데)가 청춘콘서트 특별손님으로 초대됐다.

‘나는 꼼수다’는?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는 딴지일보가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으로 네티즌과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나꼼수는 아이폰으로 방송을 받아 듣는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나꼼수는 김어준 씨와 정봉주 前 국회의원,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모여 ‘수다’를 떨고, 이를 라디오PD 출신의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편집해 아이튠즈와 딴지일보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한 ‘나는 꼼수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결혼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본인이 여러 신랑을 맞선을 보고 자유선택
2. 일본은 인건비가 비싸 안마사, 지압사, 피부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면 월 5~6백만원 수입 절대보장
3. 기술은 1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음
4. 기숙사 완비 되어 있음
5. 뜻이 있는 분 상담 받으세요
6. 불자님 절대 우대 넓은 세상을 보라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 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초혼·재혼자 신청하여 주시면 궁합을 보아 좋은 배필을 선정하여 맞선을 보도록 알선함. 년월일시는 음력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부처님 찾아 떠나는 여행

(주)에스컷 마하연투어

단 2회, 출발일 : 11월 8일, 11월 29일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640,000 추가 경비 없음

✻ 9월 ~ 11월 출발 : 불교성지 단체 문의는 날짜에 상관없이 출발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특급 139만원, 품격 149만원, 고품격 159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특급 149만원, 품격 159만원, 고품격 169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특급 169만원, 품격 179만원, 고품격 189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특급 169만원, 품격 179만원, 고품격 189만원)
* 불포함 : 유류세 200,000 , 가이드+기사 팁

※ 60일전 조기예약 할인
※ 미얀마에서 하시고자 하는 행사 지원합니다.

■ 지장/관음 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7일 1,290,000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5일 990,000원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 항공일정 티벳 6일 1,590,000원
* 불포함 : 유류세 가이드+기사 팁



♧ 인도 골드트라이 앵글 완벽 8대성지 13일 초특급 259만원
♧ 인도 베스트 상품 완벽 8대 성지 9일 초특급 239만원
♧ 부탄 왕국 시컴 다르질링 11일 요금문의
♧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천문산 5일 요금문의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컷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전 세계 거장들의 극작품 한국에서 본다

국립극장 10월 30일까지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동국대 만해관 일대에서 전야제 퍼포먼스 펼쳐



①동국대 명진관 건물 외벽에 첨단 영상 퍼포먼스 미디어 캔버스가 펼쳐졌다. ②프랑스 극작품 '상상병 환자' 중 한 장면. ③중국 국가브랜드 작품인 '마지막 황제'





②, ③=사진제공/국립극장

프랑스·중국·인도 등 9개 나라
30여 개 극작품을 2달 간 공연

동국대 만해관 앞 주변일대가 예술의 장이 됐다. 만해관 앞에서는 가상의 소년과 실재 소녀가 만나는 연극이 공연됐고, 명진관 건물 외벽은 미디어 캔버스가 돼 LED조명으로 소녀를 태운 코끼리의 여행이 그려졌다.

국립극장(극장장 임연철)과 동국대(총장 김희옥)은 9월 7일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5주년을 기념한 전야제를 동국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배우가 등장하는 라이브 공연예술과 첨단 테크놀러지가 결합된 4D 퍼포먼스로 국가 간 문화교류의 장을 기념·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에서는 10월 30일까지 두 달간 프랑스 체코 중국 스페인 인도 등 9개 나라의 대표적인 30여 개의 극작품들을 볼 수 있다.

셰익스피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작품인 프랑스 '상상병 환자'부터 영화로 유명한 '마지막 황제'의 중국 발레작품, 그리고 우리나라 '수궁가' '화선 김홍도' 이야기까지 다양한 극작품들을 풍성하게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가장 눈에 띄는 공연은 개막작인 '수궁가'. 국립창극단은 9월 8~11일 창극의 세계화를 위해 판소리의 다섯 바탕 중 하나인 '수궁가'를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 아힘 프라이어(Achim Freyer)에게 맡겼다. 막이 오르면 높이 3m의 치마 자락을 휘날리는 '마담 판소리(도창, 명창 안숙선)'가 등장한다. 그녀의 치마를 통해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토끼와 별주부외에도 광대, 호랑이, 도사, 코러스 등 개성 가득한 캐릭터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연기하며 노래한다. 환상이 가득한 무대와 과장된 기법의 가면을 쓴 이 등장인물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노래하면서 춤을 추거나 저글링을 하는 등 관객으로 하여금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올해 해외초청작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작품은 프랑스 극작품 '상상병 환자'이다. '상상병 환자'는 세계 연극사에서 최고의 희곡작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몰리에르의 작품으로 1673년 프랑스 초연 이후 2000여 회 이상 무대에 올려졌다. 17세기 당시 학설에만 치우친 의학과 의사에 대한 풍자를 다루고 있다. (10월 14~16일, 해오름 극장)

중국 국가브랜드 작품인 '마지막 황제'는 중국 랴오닝 발레단과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이 합작한 대형 발레극이다.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가 3세 때 왕위에 오른 후부터 자금성을 떠나 최후 보통 국민이 되기까지 50여 년의 이야기를 130분간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담아 드라마틱하게 무대화 시켰다. (9월 20~21일, 해오름 극장)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에서 빠질 수 없는 것 하나는 18여개의 국내작품들. 무용, 연극, 음악,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됐다.

극단 드림플레이는 걸쭉한 입담과 긴장감 있는 구성으로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故김소진의 '장석조네 사람들'을 통해 도시빈민들의 가난과 폭력성마저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휴머니티로 표현한다. (9월 14~17일, 달오름 극장)

극단 마고는 우리 민족의 전통 설화인 바리공주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 전통적 시각에서 '바리'라는 뮤지컬을 탄생시켰다. 20여 명이 넘는 배우들이 출연해 보여주는 스펙터클한 연기와 안무와 무대장치에서 한국 뮤지컬의 진수를 엿볼 수 있다. (9월 21~23일, 달오름 극장)

퓨전국악 밴드 아나야는 전통민요, 판소리, 굿소리 등 한국의 전통음악 중 '노래'에 주목해 한국 전통예술, 나아가 월드뮤직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그룹이다. 이들은 오래된 선율과 노랫말을 대금 장구 기타 건반 드럼으로 연주해 판소리 랩과 비트박스, 가요보컬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하모니를 선사한다. (9월 24~25일 별오름 극장)

이 밖에 국립극장은 10월 25~29일 폐막작으로 국가브랜드 공연 '화선 김홍도'를, 체코 연극 '마크로푸로스의 비밀(9월 30일~10월 1일)', 불가리아 민속무용 '네버엔딩 스토리(9월 23~24일', 벨기에 현대무용 '파지나 비앙카(10월 21~22일)', 극단 드림플레이 '장석조의 사람들(9월 14~17일)' 등을 선보인다. (02)2280-4114

글=이나은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문화부 찬불가합창곡 악보집 발간

쉬운 노랫말로 20여 신곡 수록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가 찬불가를 개발하고 한국불교음악인협회(회장 이달철)가 제작을 맡아 2011 신작찬불가합창곡 악보집을 발간했다.

악보집은 기존 찬불가 노랫말의 틀에서 벗어나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으며 불교문학 스님들과 노랫말 작가, 작곡가, 합창단 지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최영철 원로 작곡가를 비롯한 찬곡가 작곡에 매진해온 20명이 발간위원으로 위촉돼 새롭게 만든 찬불가 20여곡을 담아 악보집을 제작했다.

악보집에 실린 신작 찬불가는 불교용어 중심의 가사가 대부분이었던 기존 찬불가와 달리 쉬운 노랫말로 친근감을 높였다.

신작 찬불가합창곡 개발은 불교 음악인들의 숙원으로, 불교 음악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불교 음악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매년 문화부가 발간해 온 악보집은 불교음악 작곡가들에게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불교합창페스티벌과 전국 불교합창제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어 찬불가 대중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문화부는 "신작찬불가 합창곡이 불교합창페스티벌 뿐만 아니라 사찰에서의 법회, 문화 행사 등 많은 곳에서 불려지기를 바란다"며 "종단 차원에서 불교음악의 미래를 위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작찬불가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깨달음의 돌을 던져라

카툰과 에세이로 엮은 진리
일상을 깨우는 작은 울림
텅 빈 마음자리, 내면의 평화 발견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
용정운 저 | 나무생각 펴냄
1만2800원

단순한 선과 색으로 표현된 카툰 하나가 우리의 잔잔한 일상에 돌을 던지며 말을 건낸다. 소중한 일상을 익숙하단 이유로 방치하지 않았는지, 일상 속 깨달음의 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불교를 소재로 한 카투니스트 용정운이 일상의 깨달음을 에세이와 카툰으로 엮어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을 펴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들의 삶과 수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의 고뇌와 깨달음이 카툰 속에서 진한 향기를 전하고 있다. 카툰 속 주인공은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방황하고 상처받으면서도 다시 희망과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은 각 장 마다 같은 주제로 에세이와 카툰 한 편으로 구성돼 있다.

'나는 무엇인가' 편 에세이에서 용정운 작가는 이런 물음을 시시때때로 내 안에 던져보라고 말한다. 그리고 수행이란 결국 이것을 알기위한 지난한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카툰에서는 스님이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가거나 잠을 잘 때도 계속해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 쉼 없이 고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무심' 편에서는 기쁨, 슬픔, 성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며 그 감정은 내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감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것이다. 동시에 카툰에서는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맘껏 웃고, 화가 날 땐 소리도 치는 스님의 모습을 재미있게 보여준다.

이처럼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은 에세이를 통해 제시된 깨달음의 진리가 카툰을 통해 다시 한 번 쉽게 정리되고 있다.

카툰을 따라 '나는 무엇인가'를 되뇌이다보면 자신의 텅 빈 마음자리와 내면의 평화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의미 없이 보내던 일상이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다.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은 무거웠던 삶이 결국 '내려놓음' 하나로 가볍고 자유로워진다고 말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바쁜 삶 속에서 잠시 잊고 있는 지혜를 다시 깨우쳐 주는 것이다.

용정운 작가는 "이 책의 카툰이 독자들의 일상을 깨우는 작은 울림이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바라보면 모든 게 특별하게 다가와 원래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닌 내 존재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책에는 '불교TV'에서 방영된 32편의 카툰이 담긴 DVD가 함께 포함돼 용정운 작가의 카툰을 다양하게 만나 볼 수 있다.

박기범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3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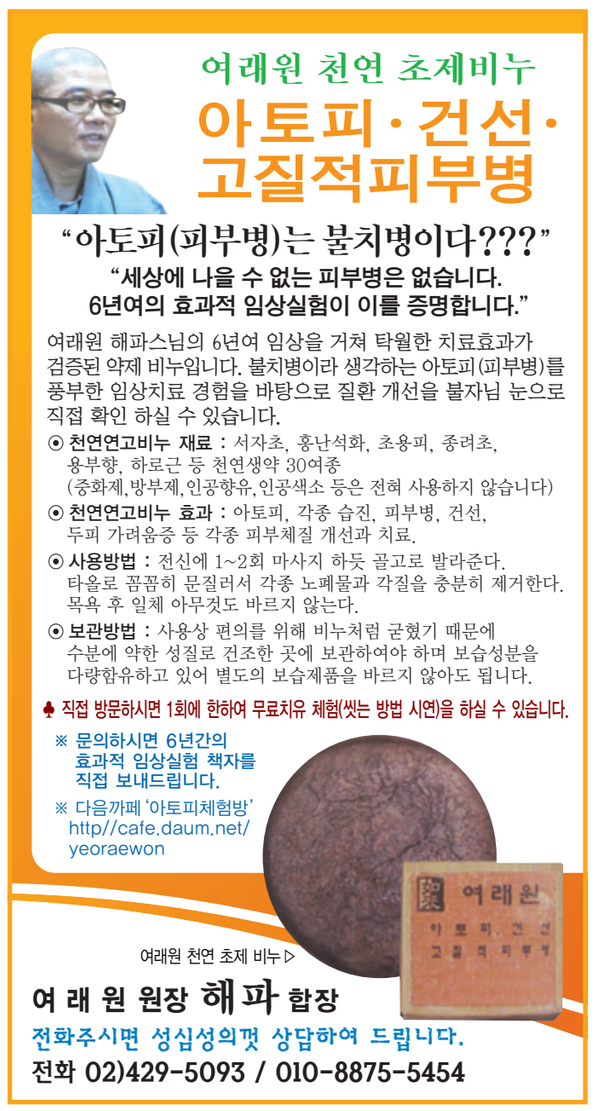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슬픔에 더 깊숙이 젖어라 (42장경)	보경	조계종출판사
2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3	기도	법륜	정토
4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방경일	운주사
5	하루 한 가지 마음공부법	우학	조화로운삶
6	힘내라 청춘	법륜	정토
7	현재 이 순간에 머물기	인경	명상상담연구원
8	산승불회	유철주	불광출판사
9	선어사전	혜민	운주사
10	경전숲길 (한 권으로 읽는 경전)	정운	조계종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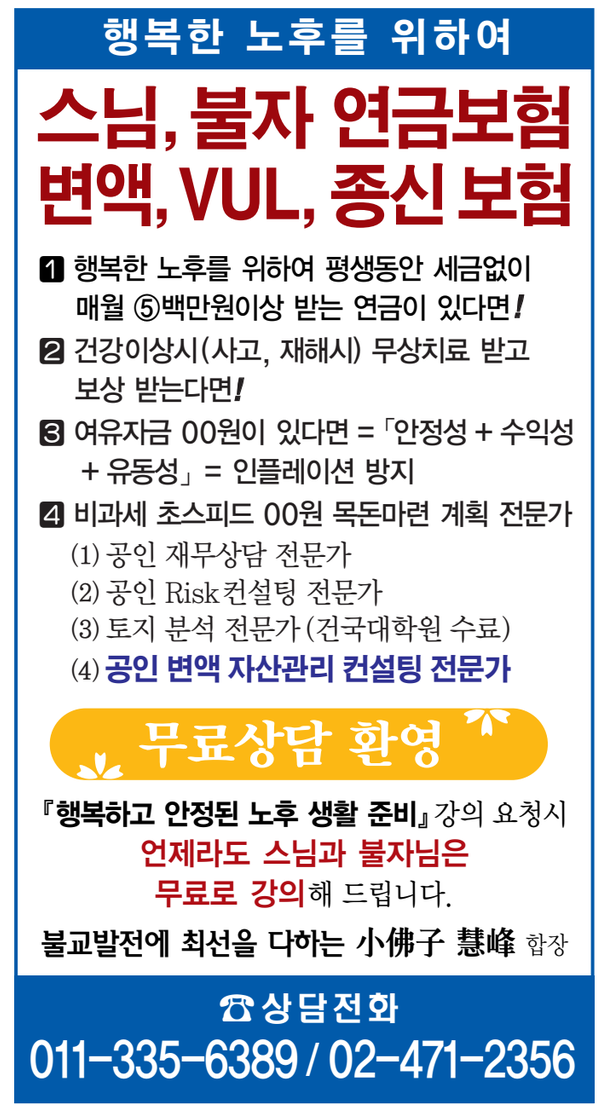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한국구술인물사 / 최 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 민중불교운동에 불을 지피다

박정희 타도에 허탈감 밀려와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불교운동사에 있어서 최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그는 불교인으로서 70년대 중반 그리고 80년대의 격동기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 그의 활동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 첫째는 1975년 대불련 기획국장으로서 사전 구금당했던 전재성 회장을 대신해 대불련을 이끌었고, 이듬해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 때 '민중불교운동'의 이론 정립과 실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군 제대 후 1981년 다시 한 번 대불련을 주도하려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여익구 선생을 대불련 사무총장으로 영입시키면서 8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세 번째 사원화운동이다. 종로 묘각사를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한 이른바 야학운동이다.

'엄혹'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듯이 70년대 중반은 유신 쿠데타에 이어 긴급조치 남발과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 판문점도끼만행 사건 등 국내외적으로는 물론 사상적 대립으로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던 시절이었다. 이 시기 민중불교운동을 주도했던 최연은 1976년말 대불련 회장의 임기가 다하자 허탈에 빠졌다.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련이 다가왔다.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 현실적인 현실고도 있지마는 또 1975년부터 해온 엄혹한 시기에 있어서 (당국이) 더 옥죄어 오고 있는 데서 더 이상 학교 다닌다는 것은 뭐 죽음을 각오해야 될,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절망 속에서 군대를 간 거죠 사실은. 절망 속에서."

1977년 입대해 그는 군 생활을 시작한다. 학생 시절 최연은 활발한 학생운동을 펼쳤지만 군에서는 조용하게 보낸다. 최연이 학생시절 주동했던 과거를 군 지휘관들이 알고 있었던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연히 만난 선배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제대하는 날까지 눈 감고 귀 막고 벙어리로 3년을 채우라는 것이었다. 1979년 11월초 제대와 함께 그는 다시 격정의 한국역사 한 가운데 서게 된다. 최연을 맞이한 것은 10.26 박정희 시해 사건과 이후 이어지는 격랑의 한국 사회였다.

"뭔가 했더니 아고 박정희 죽었다는 거야. 아~ 얼마나 그러고 나서 (제대를 위해) 5일 동안 기다리는데 시간도 길었지만은 자괴감이 아주 많았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박정희 타도에 얼마나 많은 젊음을 걸었나요. 그 박정희 군사독재 타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또 군대 와서 막 개같이 살다가 이제 내일 모레 나가는데 어? 그것도 지 소위 말해서 지 부하한테 죽었다 하니 얼마나 허탈합니까? 이 대상과 목표가 없어지고… 그러다가 그 대상과 목표가 없어졌을 때 오는 허탈감 아~ 환장하겠더라고."

박정희 타도 즉 유신독재에 항거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최연은 허탈해 했다.


종로구 숭인동의 묘각사. 이 곳에서 여래사운동 즉 불교야학운동이 펼쳐졌다.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부처님 만나기 전 인드라는 잔혹했다

레아가 준 약초를 먹은 크로노스가 구역질을 하자 그의 입에서 그동안 그의 뱃속에서 살아있던 아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숨어서 이것을 지켜보던 제우스는 재빨리 형제들과 힘을 합쳐 아버지에게 맞섰다. 혼자서는 크로노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공의 적'인 아버지를 향해 형제들이 합동작전을 펼친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간의 숙명적인 대결

한편 제우스처럼 인드라 역시 태어나기 전 이미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샀고, 태어나서는 곧바로 어머니로부터 버림 받았지만 이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다. 암암리에 인드라에게 동조하고 있던 다른 신들이 그를 도와주었다.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인드라는 곧바로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하며 눈 깜빡할 사이에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가로채 힘을 키웠다. 그리고 이 힘으로 아버지 드야우스로부터 번개와 벼락을 내리는 무기 바주라를 빼앗았다. 바주라를 잃은 드야우스는 인드라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 인드라는 힘을 잃은 아버지 드야우스의 발목을 붙잡은 후 땅으로 내던져 죽였다. 프리트비는 아들에 손에 숨을 거둔 남편을 보며 탄식했지만 인드라를 막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부터 자유를 찾은 인드라는 그 후 바주라로 악마 브리트라를 쓰러뜨리고 그가 묶어 놓았던 구름을 풀어 인간 세계에 비를 내려 주었다. 그러자 인간은 메마른 땅에 물을 제공한 인드라를 숭배하기 시작했고 인드라에게 제물과 숭배를 바치기 시작했다. 이 제물들을 통해 인드라의 힘은 점점 더 커졌다. 이제 모든 신들은 모두 인드라를 두려워하게 되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항하지 못했다. 이런 무언의 동의 속에서 인드라는 자연스럽게 신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수라와 제석천의 전쟁

아버지의 무기를 빼앗은 뒤 손수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인드라의 모습은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 한 치의 망설임도


인드라 삽화=김영수

없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인드라에게는 한 조각의 자비심도 없다. 넘치는 젊음과 패기, 의기양양함 등이 가득할 뿐이다. 하지만 불법에 흡수된 후 인드라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 바뀐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도리천의 주인 자리를 놓고 전쟁을 벌인 숙적 아수라와의 한 판 승부이다.

헤아릴 수 없는 '겁'의 세월을 살아가는 천인(天人)들과 팔부신장들도 세대가 바뀌면 왕도 바뀐다. 제석천와 아수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은 '비마질다라' 아수라 왕 때였다. 아수라 족은 원래 자신들이 살던 도리천을 되찾기 위해 제석천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왔던 터였다. 그때마다 인간 세상에도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아수라와 제석천의 전쟁에 대한 해석은 자연재해로 겪는 피해의 원인을 신들의 전쟁탓으로 돌리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동양인들의 사고방식이 빛을 발하는 장면 중 하나이다.

하여튼 아수라의 군대가 무기를 들고 수미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비마질다라 아수라왕은 천 개의 무기를 손에 들고 가장 앞에 서서 군대를 이끌었다. 제석천 역시 두 마리의 붉은 말이 이끄는 보배 수레를 타고 사천왕을 앞세워 도리천 수호에 나섰다. 수미산 중턱에서 만난 두 군대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 도리천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이은정 기자의 뻔뻔(Fun Fun)한 레시피

잡채

잡채는 잔치 상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 중 하나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잡채는 크고 작은 행사의 음식상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한다.

대학교 재학시절에는 한 학기가 끝나면 '종강파티'를 열어 동기들끼리 자축파티를 자주 벌였다. 항상 같은 과 동기생 끼리들만 모여 파티를 벌였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좀 더 특별한 파티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당시 학교에는 우리나라 학생 뿐 아니라 외국인 교환학생들도 많이 재학중 이었다. 기숙사에 생활하던 그 친구는 같이 기숙사 방을 쓰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는 자취를 하는 친구 집을 빌려 외국인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다.

당시 파티에는 각 나라의 대표음식들로 한 상 가득히 차려졌다. 우리나라 대표음식으로는 김밥, 떡볶이, 잡채, 김치찌개 등이 상에 올라왔다. 각 나라의 음식을 맛보고, 평소 잘 어울리지 못했던 외국인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기회에 모두들 들떠 있었던 하루였다.

특히 잡채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온 친구들은 우리가 차린 한국 음식 중에서 잡채를 가장 잘 먹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약간 달달하면서도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그들의 입맛에 잘 맞았던 모양이다.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줄곧 '맛있다'고 말하던 그 친구들은 순식간에 잡채를 담은 그릇을 비워 버렸다. 한 일본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잡채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해 한참 진땀을 뺐다. 생각보다 잡채가 그리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그렇게 우리는 '잡채'로 인해 국경을 넘어 진한 우정을 나누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알고가기 잡채에 주재료로 사용되는 당면은 당질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잘 맞는다. 당면은 열량이 높고, 칼슘과 인을 함유해 포만감을 줘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또한 위에 머무는 시간이 적어도 소화도 빨리 된다. 하지만 당면은 열량이 다소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적게 섭취해야 한다. 당면을 요리할 때에는 찬물에 20분 정도 담가뒀다 요리하면 쫄깃한 맛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삶을 때 식용유를 넣어주면 빨리 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당면 100g, 시금지 80g, 표고버선 30g, 당근 40g, 양파 30g, 식용우, 소금, 간장, 설탕, 참기름

음식 만들기

① 시금치는 데친 후, 물기를 짜고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무친다.
② 당면은 찬물에 불린 후, 끓는 물에 삶아낸다.
③ 양파, 당근, 표고버섯 등은 가늘게 채썰어 놓은 후,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소금을 간한 뒤 볶아낸다.
④ 삶아낸 당면에 ①과 ③을 넣고 간장, 참기름, 설탕을 넣고 버무린다.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선원총림의 법전(法典)

청규(淸規)의 역사와 그 의미

'청규(淸規)'란 청정한 대중들이 모두 함께 준수해야 할 규칙·규율이라는 뜻이다. 곧 선종사원의 운영방침과 생활규칙, 그리고 규율 등을 제정한 정관(定款)으로서, 한 도량에서 수행 정진하는 구성원이라면 상하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지켜야할 공통된 규약[共住規約]이다.

선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청규를 집대성해 총림 운영의 법전(法典)으로 성문화(成文化)한 이는 당(唐) 중기의 선승으로서 마조도일의 제자이자 황벽희운의 스승인 백장회해(百丈懷海; 720~814) 선사이다.

총림의 법전인 〈백장청규〉는 청규의 비조이다. 역사가들은 후대의 여러 청규와 구분하기 위하여 〈고청규(古淸規)〉 또는 〈백장고청규〉라고 부른다. 중당(中唐) 정원(貞元) 연간(785~804), 대략 백장의 나이 70세를 전후한 시점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고청규〉는 황소(黃巢)의 난(875~884)으로 야기된 당말 오대(五代)의 전란과 풍한 등으로 인하여 산실(散失)되고, 지금은 전해 오지 않는다(흔히 말하는 〈칙수백장청규〉는 원대에 편찬한 것임).

다행히 송초의 한림학사 양억(楊億, 楊文公; 974~1020)에 의하여 그 내용이 요약되어 〈전등록〉(1004년) 6권 백장회해장(章) 끝에 부록(명칭 '禪門規式')으로 전해 온다. 또 장로종색의 〈선원청규〉 10권에도 〈고청규〉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백장규승송(百丈規繩頌)'이 수록되어 있어서 대강이나마 〈백장고청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다음은 각 청규에 대한 개요이다.

1. 〈백장청규〉 : 〈고청규(古淸規)〉 또는 〈백장고청규〉라고 부름. 백장회해가 인도의 율장과 중국 유가의 예의 및 법도를 절충해서 제정한 최초의 청규. 승당의 규칙 등 선종교단의 여러 제도와 기구 등을 정한 것으로 당 중기 정원연간(785~804)에 성립됐을 것으로 추정. 현재 원본은 산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다만 그 내용을 요약한 '선문규식'이 〈전등록〉 6권 백장회해 장(章) 끝에 수록돼 있다. 이 청규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선불교가 율종사원의 더부살이로부터 독립해 하나의 종파로 성립하는 계기가 됐다.

2.〈선원청규(禪苑淸規)〉 10권 : 장로 자각 종색(長蘆慈覺宗賾, 미상, 송초)이 편찬. 송(北宋) 숭녕(崇寧) 2년(1103년)에 성립. 4만8000여 자(字). 숭녕 연간에 편찬됐다고 하여 '숭녕청규(崇寧淸規)'라고도 함. 〈백장고청규〉에 이어 두 번째로 성립한 청규로서 현존하는 청규 중에는 가장 오래된 청규. 〈고청규〉의 법도를 지키는 한편, 널리 여러 총림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만들었음. 자료적 가치가 가장 높은 청규로서 당, 북송 때 총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후의 청규들은 이 청규를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우리나라 〈고려본 선원청규〉는 이 청규의 복간본이다.

3. '입중일용(入衆日用)' 1권 : 남송(南宋) 가정(嘉定) 2년(1209)에 무량 종수(無量宗壽)가 편찬함. '무량수선사 일용소청규(無量壽禪師 日用小淸規)'라고도 함. 3400여 자(字).

4.〈입중수지(入衆須知)〉 1권 : 편찬자 미상. 남송 경정(景定) 4년(1263년) 경 편찬. 약 1만7000여 자(字). 앞의 '입중일용'과 함께 선원총림의 초심자를 대상으로 편찬된 계몽적 성격의 청규이다.

5.〈총림교정청규총요(叢林校定淸規總要)〉 2권 : 남송 함순 10년(1274년)에 유면(惟勉)이 편찬함. 3만6000여 자(字). 〈교정청규(校定淸規)〉, 함순연간에 편찬됐다고 하여 흔히 〈함순청규(咸淳淸規)〉라고 한다. 이 청규의 특징은 종래 총림의 규칙에 대해 그 폐단과 예방(豫防), 시정해야할 사항



2004년 해인사 스님들이 청규 정신에 따라 김장 울력에 참여하고 있다.

백장회해, 청규 첫 집대성
당말 전란과 풍한으로 산실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예컨대 지금 제방의 연수당(열반당)은 무용지물이라고 꼬집고 있다. 그 밖에도 많다.

6.〈선림비용청규〉(禪林備用淸規)〉 10권: 원(元) 지대(至大) 4년(1311)에 택산일함(澤山日咸)이 편찬. 지대청규(至大淸規)라고도 함. 6만6000여 字. 앞의 청규들에 비하여 매우 체계적으로 편찬된 청규이다. 따라서 자료적 가치도 높다. 비교적 완비된 청규이다.

7.〈환주암청규(幻住庵淸規)〉 1권 : 원(元) 연우(延祐) 4년(1317)에 중봉명본(中峰明本)이 환주암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함. 2만9000여 자(字). 문도들을 위한 청규로서 널리 이용된 청규는 아님. 줄여서 '환주청규'라고도 한다.

8.〈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淸規)〉 8권 : 원(元) 지원(至元) 2년(1338)에 당시 백장사의 주지인 동양덕휘(東陽德輝; 1336~1338)가 칙명을 받아 편찬, 간행함. 그래서 〈칙수(勅修)백장청규〉라고 함. 7만6000여 자(字). 또 지원연간에 편찬, 간행되었다고 하여 〈지원청규(至元淸規)〉라고도 함. 매우 체계적이지만 원대의 국가주의적 색채가 농후하다. 원(元) 황제 순종(順宗)은 이 청규를 중국의 모든 사찰에 배포하여 준수토록 했다. 제목이 〈칙수백장청규〉여서 마치 백장 당시에 성립된 〈백장고청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나라 때 편찬된 청규다. 총 8권 9장(부록까지 합하면 10장)으로서, 앞의 장로 종색선사가 편찬한 〈선원청규〉에 비하면, 황제의 수명장수를 비는 축리장과 보은장 등이 들어가 있는 등 잡스러운 것이 많다.

9.〈총림양서수지(叢林兩序須知)〉1권 : 명(明) 숭정(崇禎) 12년(1639)에 행원(行元)이 편찬함. 명대(明代)에 편찬된 소(小)청규로서 6두수와 6지사의 소임에 대하여 서술했다.

10.〈영평청규(永平淸規)〉 : 일본 조동종의 개조 도원(道元)이 가정(嘉禎) 3년(1237)부터 관원(寬元) 4년(1246)까지 약 9년에 걸쳐 편찬한 청규. 〈영평원선사청규(永平元禪師淸規)〉라고도 함. 이 청규의 특징은 상당한 지면을 전좌(典座; 음식 담당)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전좌교훈). 판도화(辦道話), 부죽반법(赴粥飯法; 공양법), 감원(監院) 장(章) 등 4장이다.

이상 10여 종의 청규 가운데 중국 청규로서 중요한 것은 〈선원청규〉·〈교정(校定)청규〉·〈선림비용청규〉·〈칙수백장청규〉이다. 이 4가지 가운데 성립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은 송초(1103년)에 장로 종색이 편찬한 〈선원청규〉이다. 그리고 가장 후대의 것은 원대(1338년)에 동양덕휘가 편찬한 〈칙수백장청규〉이다. 이 두 청규의 비교를 통하여 시대에 따른 청규의 변천사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칙수백장청규〉는 원나라 말기에 편찬된 청규로서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원청규〉와 비교하면 잡스러운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 무엇보다도 맨 앞에 있는 축리장(祝釐章)과 보은장(報恩章)은 장로종색의 〈선원청규〉에는 없는 장이다. '축리'란 황제의 축수(祝壽, 수명장수)와 복을 비는 장(章)으로, 당시 총림에서는 황제(천자)의 생일과 즉위일, 그리고 황태자 생일날에는 대중 모두가 불전(대웅전)에 올라가 황제 일가(一家)의 수명장수와 복을 비는 의식을 올렸다.

사찰에서 황제의 수명장수를 축원하는 것은 당 현종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선종사원에서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 청규에서도 "이날 축성(祝聖)하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고작해야 삼팔(三八) 염송 등 특정 행사 때 축원문에서 포괄적으로 "황풍(皇風) 길이 불어서 멀리까지 융창하고, 불일(佛日)은 더욱 밝아지고 법륜은 상전(常轉)하여지이다(선원청규)" 정도였는데, 〈칙수백장청규〉에 와서는 한 장(축리장)을 두어 규정화한 것이다. 또 당시 총림의 모든 대중은 매일 같이 아침공양과 점심공양이 끝나면 불전에 올라가서 축수했다[每日祝讚. 齋粥二時下堂. 僧衆必須登殿. 維那擧無量壽呪三. 回向云, 諷誦秘章, 所萃洪因. 端爲祝延, 今上皇帝, 聖壽萬安. 金剛無量壽佛云云]. 그리고 기청(祈晴: 날이 맑기를 비는 것)·기우(祈雨)·기설(祈雪), 일식(日蝕), 월식에 속히 해와 달을 돌려달라고 비는 보은장도 〈선원청규〉에는 없는 것들이다.

또 하나 '능엄주'에 대한 문제이다. 능엄주는 선원에서 대비주(신묘장구다라니), 소재주(消災呪)와 함께 가장 널리 독송되는 다라니이다. 참선 중에 나타나는 마장을 없애고 용맹스럽게 정진하는 힘을 얻기 위하여 독송했는데, 이는 남송 말기부터 시작된 (선림비용청규에도 있음) 풍습으로서 안거기간 중에는 능엄회라고 하여 매일같이 능엄주를 독송했다. 한국 선승들도 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장로종색의 〈선원청규〉에는 그 어디에도 선원에서 '능엄주'를 염송하라는 말이 없다. 당대는 물론 북송 때까지도 선원에서는 밀교의 다라니나 주문(呪文) 같은 것은 처다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남송과 〈칙수백장청규〉 시대 곧 원대에 와서는 마치 능엄주를 화두를 들듯이 수지독송한 것이다. 〈칙수청규〉에는 능엄주를 하라는 대목이 17회 정도 나온다(현재 중국에서는 아침 예불에 능엄주·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소재길상다라니·준제진언 등 10小呪를 염송한다).

참선수행에서 '마(魔)'란 선에 대한 잘못된 이해(신통력 같은 것 등), 잘못된 수행에서 오는 정신적 착란과 착각 현상으로서, 일종의 선병(禪病)이다. 정견(正見)과 정안(正眼) 등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겪는 정신적 오류와 오판이다. 자신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인 환영(幻影)·환청(幻聽)·환시(幻視) 등으로, 이는 어리석기 때문에, 정도(正道)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그리고 화두삼매, 화두참구를 통하여 돈오(頓悟)에 이르고, 이른바 살불살조, 확철대오를 외치는 간화선에서, 마(魔)를 해결하지 못해서 능엄주를 외우고, 화두삼매가 되지 않아서 편법으로 능엄삼매법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간화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다. 총림에서는 당연히 선(禪)의 경전인 〈유마경〉이나 반야지혜의 경전인 〈금강경〉을 독송해야 한다. 다라니를 독송한다는 것은 선의 정신과 본질을 망각하는 짓이다. 선의 정신은 이 때 다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림의 법전(法典)인 청규는 선종교단의 율장으로서 참선 학도(學道)의 생활을 규율로 정한 것이다. 그 취지와 의의는 참선수행자를 부처나 조사로 만드는 데 있다(成佛作祖). 부처가 되기 위한(견성성불) 공동 수행규칙으로서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를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칙이다.

총림에 법도와 질서가 정연하면 몇 백명이 함께 수행해도 적정(寂靜)한 것이 마치 한명이 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질서가 없으면 성불은커녕 心身의 교통사고가 빈발할 것이다. 송대의 성리학자 정명도(程明道; 1032~1085)는 어느 날 수백 명이 수행하고 있는 총림에 가서 무언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공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감탄 왈(曰)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 예악(禮樂, 즉 道)이 모두 여기에 있구나"라고 했다고 한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大관음사 행자모집

1. 만 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수행위주의 교육
3.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4.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5.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53-474-8228
010-9562-8228

도심사찰 납골 시설을 갖춘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고(古) 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인비록(人秘錄) 죽어서 가는길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목 차)
1부. 신도神道를 닦다
2부. 죽어서 가는 길
3부. 전생과 현생
4부. 내가 본 신의 세계
5부. 기도·수도 체험기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 정가 15,000원
도서출판 대도대한 / 063-643-7285
인터넷 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베스트셀러

"이제는 신을 바로 알고 자신의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신은 비물질인 기로 이루어진 생명체이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사람은 자신을 뒤덮은 업과 살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 사람은 죽을 당시 모습으로 사후세계에 1,000년을 살아간다!
- 사람이 죽으면 조상신으로 후손의 몸과 주변에서 살아간다!
- 조상의 병과 업이 후손에게 연결되어 그 고통을 받는다!
- 조상의 병이 후손에게 이어지는 유전병은 유신병이다!
- 유산된 태아신은 엄마의 뱃속에서 원한을 갖고 살아간다!
- 병의 원인이 되는 신을 해결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 가위눌림, 귀신들림 등도 악신들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 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인술치유와 신술치유를 같이 해야 한다!

(도서판매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부산)영광도서, 부산)세기서림, 부산)고려불교원, 인천)대한서림, 대구)세원출판 대전)보문불교, 대전)계룡문고, 대전)중앙출판, 대전)KG북+, 광주)충장서림 광주)초원문고, 수원)율전문고, 안양)중앙문고, 안양)대동문고, 안산)대동서적 군포)자유문고, 구리)동원서적, 부평)부평문고, 부천)경인문고, 원주)동아서관 춘천)광장서적, 제천)제일서적, 강릉)영동서적, 공주)백제불교, 청주)일선문고 청주)홍문당, 충주)문학사, 구미)춘양당, 포항)포항문고, 김해)가야서점 창원)창원서적, 진주)진주문고, 남해)해양당, 전주)홍지서림, 익산)대한서림 군산)군일서점,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양서점, 목포)국제서림, 제주)탐라도서 등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영풍·반디앤루니스·인터파크·알라딘·예스24에서 구입 가능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50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500만원
· 효사육임강의(CD100개 정가 120만원
·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
이미 최고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함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식 의학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 찰 행 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석청 필요하신 분
성분 분석 완료
(정품 1kg 100만원)
010-2693-6295
농협 351-307-8912-13 생명방생

각종 천도재
집전해
드립니다
011-9370-4043
청산스님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종단을 좀더 활성화하고자
입종을 안내합니다.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분 환영)
부산 사하구 감천동 567-2 (성불사)
법화종 051)204-8494
총무원 011-885-8989

뻔헷 치유요법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수년간 피공, 뻔헷 치유요법사 스님
- 병원에서 못고치는 불치병
- 병명없이 고통 받는분
불사에 도움 주시면
어디라도 출장 가능함
010-5509-7696
월정 토굴 스님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불교단체 양도
종단 양도
011-412-8040
법 광

여법하게 염불하실
50대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안양
031)471-6675

7박8일 36만원
- 중국 맹자, 공자, 유명사찰
- 만 65세 이상, 항만
- 비자여권 별도
- 매월 2회 평택항 출발
- 여행자 전원 4.8 1년등 무료
- 현지 자취, 숙식. 밑반찬 한가지 준비

우체국 310433-01-000955 / 조계종 만불교
041)544-4441

경북 청도 약초골 알프스
원룸식 신축건물
암 회복중, 당뇨, 혈압 있으신 분.
공기좋고 물좋은 곳에서
많은 체험 하고 감. 선착순
용호산 달마선원
011-6301-39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관악구
010-9406-455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
010-2896-8108

사찰 관리하면서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강원도 삼척
010-9416-7743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어려움이 없으면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과
오만한 마음,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보 왕 삼 매 론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 (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1-545-5060

아주 특수한 기도법
• 때를 기다리지 말고 만들어서 잡아라
☎ 032)664-0048 / 011-741-0867

사찰 운영하실 분
사찰관리하시면서 노스님
시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환영, 60세 이상)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전북 김제
063)543-5551
010-4427-2256

공양주 구함
가족같이
지내실 분
▷ 경기 마석
010-4748-10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5세 미만)
제주 서귀포 한라산
자비도량 정방사
010-5219-7021

행자
모집
▷부여 미암사
011-424-5555

사 찰 건 축 전 문
▶ 평생 단 한번의 중요한 일
▶ 불사(佛事)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실행한다면
사찰 內 도량(道場)은 빛날 것입니다.
人 安 고 건 축
031)637-8886 / 063)643-1373

양파엑기스 1박스(50개) 판매가 3만원, 2박스 5만원
효능 : 혈당낮춤,고지혈증,혈소판응집억제,거담,합심증,이뇨작용,피로회복,혈액순환촉진작용,알콜해독,
아토피살균작용,소화촉진,해열, 진해,관상동맥확장작용,항콜레스테롤(콜레스테롤 상승 억제작용),
방부작용, 항암작용,고혈압,불면증,항혈전,당뇨병,만성폐병,괴혈병,피부질환, 백내장예방,신경질환,
신체허약,주름살,탈모증,기관지염,코감기,건위,피부병,궤양성 피부염, 발모촉진, 장무력증, 장염,
이뇨, 빈혈, 소화촉진, 두통완화, 감기, 후두염, 죽상경화증,관상심장질환,천식,기침,비타민결핍증,
창상,궤양,부인질병,트리코모나스질염,설사,변비,동맥경화,기억력향상,대장염에 효험
부처골 지장선원에서는 양파엑기스를 노란껍질속에 퀘르세진성분(고지방분해)
함유를 보존하기위해 껍질채 내렸습니다 (배살이 빠집니다)
보급처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지장선원 054)383-8553. 011-9585-4908
농협 703088-51-013554 지장선원 www.jijansw.com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월 보시금 120만원, 울산
010-9318-3230
백련암

조계종 노승이 오랜 수행에 상좌가
없어 본종 비구승30~40대의 은사없는
인연 건당 상좌 두고자 조건은 계행
청정하고 물욕이 없는 출가 본연의 수행
정신으로 오직 일생동안 수행정진 도량
으로,삼고 은사를 부모처럼 섬기고
불심으로 시봉하며 사원을 계승 관리
운영 할 비구승을 찾음(상담 후 결정함)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한국불교대학 편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 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佛教儀式 (범음, 범패) 學人모집
효타암에서 불교의식 전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약간 명 • 원서접수 :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사진 3매0
불교의식 교육원 효 타 암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경북 군위군 부계면 금륜사
051)524-9406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26 | 853호 | 전면광고

2011년 9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2004-8215,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20평
- 요사 : 80평
- 부지 : 3,000평
- 가액 : 16억
- 즉시법회가능함

- 위 치 : 경남
- 법 당 : 25평
- 요 사 : 70평
- 부 지 : 1,000평
- 가 액 : 8억

- 위 치 : 경기외곽
- 법 당 : 30평
- 요 사 : 100평
- 부 지 : 2,500평
- 가 액 : 1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2,400평(100%평지)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주차장 200평
- 총금액: 6억 8천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 310평
- 법당 3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7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 안내

- 대구 남구 봉덕1동 봉덕시장 내
- 2층, 3층 각70평씩, 합 140평
  2층 : 공양실,휴게실, 찜질방,
  강의실, 화장실
  3층 : 법당, 삼존풍불, 종무실,
  주지방1,부전방1,보살방1
- 시설최상, 단청되어 있음
- 보증금 1천5백만원,월100만원
  합5500만원

010-2878-3380

사찰명당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인근 총평수 637평
- 전건축물목조 대웅전 30평, 요사채 20평,
  공양간 10평 해우소 4평
- 청룡암반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 CC카메라시설, 사찰경내지계곡물흐름,
  잔디 및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고속도로IC 5분거리, 1호선 국도 8분거리
- 순수한 개인소유 사찰,
- 가액: 5억(조정가능)•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6375-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 입구(선암교) 신어산자락 낙동강변
- 전망 최상 (버스종점 바로 앞 98번 97번 창원-김해)
- 경전철 5분거리 (부산) 5분거리
- 대웅전, 산신각, 관음입상, 방사 5개, 창고 3개
- 샤워실 3개, 친견실, 공양간 남여 화장실 각각
- 승용차 30대 주차가능(감로단, 칠성단)

055)333-7612

010-4485-88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1천3백만원,월100만원
  시설비 5천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중심가
- 평수 : 41평 (4층)
  법당, 친견실, 삼존불
- 5층 : 주택 약 30평
  큰방 4, 공양간
- 시설비 : 상담후 절충
  현재 법회중
- 보증금 1천만원,월 50만원

010-4840-3939

포교원 안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법당, 방 1개(친견실), 주방
- 평수 : 40평
- 전세금 : 1,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주세요)

010-7533-4488

사 찰 안 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기타참고,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에어컨 2대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2천만원중 조금만

010-4099-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13분거리,진천에서
  15분거리. 병천에서 15분거리(아우내장터)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 1층건물 3동 (방 많고 큰절)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2억(절충가능)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최고 시설

010-4668-73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금천면
- 대지 150평
- 법당 15평, 산신각
- 대중방2. 공양주방
- 주방, 스님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조정가능)

010-8585-138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대명5동 . 2층
- 평수 60평
- 방3, 주방1, 화장실1,
  다용도실1, 공양간
- 시설 A급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010-3381-0800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소재
- 대지 150평, 전 170평, 건물 18평
  (조립식 심야전기)
- 특징: 산세수려 산 아래 마을 끝 제일 높은 곳
- 바다보임, 교통편리, 마당 차량진입 가능
- 비구니 스님 수행처 적합
- 가액: 9000만원

054)787-2697

아담한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선산
- 총 약 200평, 실용가능 면적 약 400평
- 토굴內아파트식으로 올수리
  (방2개, 넓은거실겸 부엌, 욕실, 붙박이장)
- 창고, 토굴앞 텃밭, 비닐하우스2동, 주차장
  산자락끝에 위치하며 앞으로는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명당자리토굴비어 있어 즉시 입주 가능
- 가액: 6천 5백만원

054)457-4367

010-7163-0800

토 굴 터 안 내

- 위치 :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 중간마을에서 500m
- 현재 묵은 논 2필지
- 1017평, 남향
- 해인사 뒤편
- 깊은 산속, 시원한 계곡물
- 가액: 1800만원

011-9393-4965

영천 토굴터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시내에서 10분 이내
  2차선에서 100M 이내
-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 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곳
- 기와집 1동, 황토집 1동, 대지 500평
- 가액: 8천만원

011-505-65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 임야 2만 3천 6백평
- 도량터, 약 1천평
- 현재 임법당 사용중
- 건물 조립식판넬(약 30평)
- 물소리 졸졸 납니다
- 현재 불사중
- 가액: 2억 4천만원

010-2055-8506

도심포교원안내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453번지 의창빌라 상가 2층
- 평수 54평, • 방3, 및 주방 화장실
- 시설 A급, 모든시설완비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호신불100불
- 비구니스님도 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8211-8590

010-8602-39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 평수 : 약 400평
- 법당 1동, 요사채 2동,
  황토방 1동
- 전세및계약기간은상담후결정

010-9325-7286

임법당(토굴)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 대지 약 150평
- 건물 2동, 방 3개, 삼존불 모심
- 시설집기일체
- 총가액: 5500만원

010-9545-9444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건천읍 산자락
- 건천 톨게이트 맞은편
- 평수 150평, 40년 된 토굴, 집2채
- 현재 비어있음.
- 가액 : 7천만원
- 사찰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051)513-5791

017-516-0773

암 자 안 내

- 위치 :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599번지
- 평수 : 300평
- 요사채 기와 20평
- 기와 법당 15평
- 가액: 6억 (가격절충)

011-846-168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 대지 약 220평
- 법당 20평 .삼존불
  요사채(가건물) 창고
- 가액 : 7천만원

010-4786-825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 대지 : 300평
- 법당, 요사채,방10개
- 주변산세수려
- 가액 : 3억5천만원

010-5158-445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중방동
- 법당 24평,2층(극락보전)
  3층(대웅전)
- 정리하면 즉시법회가능
- 1년 삭월세 3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7284-2003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 반성 수목원 옆
- 총평수 : 약 300평
- 법당, 산신, 용왕각,
  요사채, 방 4개
- 앞에 연못,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사찰
- 가액 : 2억 5천만원

010-3875-6305

단독주택(인법당)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4동
- 대지 39평
- 단독주택 23평
- 가액 7천5백
- 시설비 2천만원

053)624-3691

010-5385-36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덕천동,
  지하철 1분거리
- 평수 약 20평
- 삼존불, 인등
- 가액: 8천 5백만원

010-3403-0052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현풍면
- 건물 62평
- 법당 30평
- 공양간20평,방2,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5백만원

053)611-2929

010-5040-272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엄궁동
- 평수 40평(4층)
- 보증금 1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 A급 상담 후 절충

011-592-959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간현역 10분거리
- 부지 3000평 (법당 한옥), 요사채, 대중방
- 화장실 (실내)4개, 세면장 별도 3개
  실외 화장실 3개
- 법회 즉시 가능 상담후 결정
- 서울 원주KTX 30분(개통예정), 전철 1
  시간거리 , 사찰에서 서원주역 승용차
  5분거리 마을과는 동떨어져서 고요함
- 가액: 3억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0-9767-4109

조그마한 암자
인수하실 분

- 위치 : 밀양시 부북면
- 전세 100만원 월세 13만원
- 시설비 500만원(절충가능)
- 즉시 인수가능

010-3045-1713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원군 미원면
  176-1번지 청석굴
- 대지 220평, 법당 25평
- 요사, 산신, 해수관세음보살
- 임야 168평, 밭 754평
- 가액: 3억 7천만원

010-8801-3837

사 찰 안 내

- 위치: 영천시 북영천 IC 5분거리
- 부지 390평(종교용지) 137평(전)527평
- 법당: 33평(철근콘크리트조)단청
-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신, 용왕, 약사, 지장, 십대왕
  요사채: 40평(방3, 거실1, 실내다용도실2)
- 기타: 10평(야외화장실, 차고, 창고)CCTV설치
- 가액: 2억 8천만원 . 스님 건강 관계로
  저렴한 가액으로 인연있는 스님께 양도

010-5488-33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팔도시장 입구
- 상가 건물 3층 중 2층. 33평
- 삼존불, 시설완벽
- 법당, 방2개, 홀 겸 주방
- 전세 1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700만원

010-7307-95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합포구 산호1동 324번지
- 3층 건물 중 3층 , 평수 : 28평
- 삼존불, 후불탱화,
  집기일체, 주방시설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8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9720-9901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 위치 조건이 좋은 대로변
- 평수 약 30평
- 3층 건물 중 2층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결정
-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051)645-6426

010-3572-8426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13억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1억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장호원시장
- 단층. 27평 . 살기 편함, 깨끗
- 비구니 스님, 보살님
- 방2, 법당 10평, 입구 일주문과 대문
- 2500만원 전세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NO

031)641-1159

017-253-689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토 굴 안 내

- 위치 :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비산비야 지대
- 부지: 대지 198평, 전답 2056평, 임야 2938평
- 건물: 현대식 30평 2채, 방8개, 큰주방 1개
- 방5개는 취사실, 화장실 병설 곳간 1개
- 환경: 춘양시장 2km반, 풍수학적으로 동향이고
  좌청룡 우백호 뚜렷, 주변 조용 인근무
- 가액: 2억 4천만원 예정 . 꼭 하실 분 전화요망

010-3875-719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서면
  지하철 출구 앞
- 4층에 3층, 법당 4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부처님 삼불 청동, 시설완비
- 즉시법회가능

010-8126-1525

새롭게 꾸며진 법당으로 포교에 원력을 갖고 개원하실 비구니스님, 보살님 환영합니다

- 위치 : 대구시 비산동 서문시장지구
- 2층건물중 2층 (약 40평)
- 법당 주방 다용도실 욕실
- CCTV 등 보안시설 갖춤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3381-0800

전원주택 및 토굴 안내

- 인제원통 터미널에서15분거리. 산중턱
- 전원주택겸 토굴로 사용가능
-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 이중 흑벽돌, 심야보일러
- 총 1,400평, 대지 300평
- 건평 25평, 밭 잘가꾸어져 있음
- 앞에는 큰강 산세 수려
- 가액: 3억 500만원(전세가능)

010-3337-9736

요양시설, 팬션, 식품공장 터

- 위치: 경남 합천군(대구에서 40분거리)
- 총평수:3500평(계획관리지역임)
- 합천호인접 계곡경관 수려한 지역
- 경내동굴있음(폭,넓이 180센치,
  길이 350미터),포장도로와 동력전기 설치
- 요양시설, 팬션,식품공장등..운영
  기타 건축허가가능 지역임
- 가액 2억 5천만원(조정가능)

011-848-2452

무익한 천 마디의 말보다는 들어서 마음이 안정되는 한 마디가 더 유익하다. - 법구경 -

“늦어, 너무 늦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수리아의 검-Ⅳ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철의 산 차크라발라 (6)



삽화 · 김흥인

‘무니는 이 동굴 속을 어떻게 걸어갔지.’ 난다는 어두컴컴한 동굴 속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무니는 종이버터로 등불 피우는 방법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런 암흑 속을 빛 없이 걸어갔단 말이 된다. 걱정으로 난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얼음의 성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후로 무니는 어둠에 대해 강한 두려움을 보여 왔다. 난다는 얼른 호주머니에서 휴대용 등잔을 꺼내 종이버터에 불을 붙였다. 화르륵 크게 타오르던 불꽃이 손가락으로 톡톡 매만지자 조금씩 작아지며 적당한 크기의 불꽃이 되었다.

불빛에 비친 동굴 안은 희귀한 식물로 가득했다. 음지에서만 자란다고 알려진 것들이었다. 난다는 무니 걱정에 빠르게 걸으면서도 눈에 들어오는 다양한 식물들에 감탄했다. 구하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책에서만 보던 식물과 약초들이 가득했다. 채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일단 무니를 찾는 일이 급했다. 그런데 아쉬움의 한숨을 내쉬며 걸음을 재촉하는 난다의 눈에 오묘한 색의 식물이 눈에 들어왔다. 등불을 움직일 때마다 다른 색깔을 띠며 반짝이는 식물이었다. 긴 줄기에 아기 손바닥만한 크기의 잎이 대 여섯 개 나 있고, 그 잎 하나하나가 여덟 갈래로 갈라져 특이해 보였다. “저건!” 난다는 펄쩍 뛰듯 그 식물이 모여 자라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정말 팔색초잖아!”

팔색초는 여덟 색깔을 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워낙 여러 곳에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은 약초였다. 내상 및 외상의 치료제에 약초를 더하면 그 효능이 배로 증가하며, 양을 조절하여 불면증이나 기면증 치료에 이용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정령을 불러내는 주문에 꼭 필요한 약초로 특히 나크라는 정령이 팔색초를 아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난다는 정신없이 팔색초를 뜯어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순간 주위가 컴컴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이 꺼지고 만 것이다. 난다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주머니를 뒤져 종이버터를 꺼내 다시 불을 붙인 다음,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동굴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깊지 않은 모양이었다. 난다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라색 빛이 새어나오는 끝에 도착했다. 그는 일단 동굴 끝 부분에 발을 걸치고 바깥을 살펴봤다. 동굴 밖 하고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온통 회갈색의 산이 둘러싸고 있기는 했지만 풀이 보였고, 무엇보다 농사를 짓고 있는 밭도 있었다. 바랜 연회색의 집들은 각각 크기가 달랐지만, 마치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벽들이 쭉 연이어 붙어 있었다. 작은 창과 드나드는 출입구가 집마다 있지 않았다면, 하나의 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이 살던 마을을 생각하면 역시 황량한 풍경이었지만, 반나절을 철로 이루어진 산만 쳐다봤더니, 마을의 모습이 훈훈하게 다가왔다. 잠시 잊고 있던 갈증도 다시 느껴졌다.

난다는 발을 살짝 아래로 내딛었다. 낮은 계단 하나 쯤 되는 높이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한참을 아래로 떨어졌다. 이윽고 바닥에 닿았을 때, 난다는 어리둥절해 뒤돌아 동굴을 쳐다봤다. 등잔이 저만치에 뒹굴고 있었다. 다시 봐도 분명 출구는 지면과 별로 떨어져 있는 않은 곳에서 자리한 것처럼 보였다. 고개를 갸웃하던 난다는 자리에서 엉덩이를 털며 일어났다. 희한하게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다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었다.

“뭐야. 결계라는 건가?”

난다는 갸웃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다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던 조와 눈이 마주쳤다. 예상치 못한 마주침이었다. 난다는 깜짝 놀라 다시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때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맑고 높은 목소리였다.

“거기 누구야?”

난다의 말을 알아들은 것인지, 조의 뒤에 가려져 있던 한 사람이 얼굴을 내밀었다. 석양빛을 등지고 있기는 했지만, 낯익은 얼굴이었다. 까만 눈동자, 하얗고 가지런한 이, 하나로 높게 묶은 머리까지.

“쎄라야?”

“쎄라?”

소녀는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 발음해 보며 난다를 쳐다봤다. 난다 역시 빤히 그 소녀를 바라봤다. ‘아차! 여기선 잠부어를 쓰지 않지!’ 난다는 이마를 쳤다. 동굴 안에서 팔색초를 뜯어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팔색초를 좋아한다는 나크가 바로 통역을 도와주는 정령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팔색초 잎 하나를 꺼내들었다.

“가만! 그 주문이 뭐였지?”

그런데 정작 주문이 생각나지 않았다. 설마 팔색초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미처 제대로 봐놓지 않은 까닭이었다. ‘일단 외워놓을 걸 그랬어. 그랬다면 이럴 때 쓸모가 있었을 텐데!’ 난다는 자신을 탓했다. 소녀는 이미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었지만 전혀 눈치 채지도 못했다. 난다는 주문을 생각하는 데만 온 정신을 쏟고 있었다. 자신의 머리 위로 다른 어른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을 둘러싼 어둠을 눈치 챘을 때는 한참 후였다.

난다가 어른들에게 끌려 들어간 곳에는 예상했던 대로 무니와 칸타카가 있었다.

“늦어, 너무 늦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난다는 이 와중에도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무니를 보니 피식 웃음부터 나왔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너도 겪었을 거 아냐. 또 갇히다니! 또! 도무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난다는 다시 “아!”하며 주머니에서 팔색초를 꺼냈다.

“그게 뭐야?

“후후. 이게 뭐냐 하면 말이지.”

난다는 팔색초 몇 잎을 잘게 손으로 찢은 후, 칸타카가 등에 지고 있던 가방에서 사전을 꺼내며 말했다.

“아주 재미난 풀이거든?”

무니는 시큰둥한 얼굴로 친구의 모습을 지켜봤다. 난다는 완전히 그 풀과 책에 정신을 뺏긴 것 같았다. 잠시 후, 난다는 책을 탁 덮더니 찢어놓은 팔색초를 엄지와 검지로 비비면서 주문을 외웠다.

“브라바투, 브라바투, 아르탐!”

그러자 두 손가락 사이에서 연기 같은 게 나는 듯했다. 난다는 기대에 찬 눈빛이었고, 무니도 그제야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난다의 손끝에 연기만 좀 났을 뿐, 별 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에게? 도대체 뭐가 재미있다는 거야?”

“좀 기다려봐.”

무니는 난다의 손끝을 다시 쳐다봤다. 역시 별 다른 변화는 없었다. 힘이 잔뜩 들어갔던 난다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아닌가?”

“응. 뭔지는 몰라도 아닌 거 같은데…. 어! 이거 뭐야? 꼬물꼬물 거리는 거.”

난다는 무니가 가리키고 있는 곳을 쳐다봤다. 아지랑이 같아 보이는 것이 피어오르면서 어떤 형체를 만들어 내는 게 보였다. 아지랑이가 점점 잦아들자 형체는 더 뚜렷해졌다. 언뜻 보기엔 사람 같았다.

“재미있다는 게 이거야?”

난다는 무니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금방 그 형체가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형체의 생김새는 정말 사람하고 비슷했다. 난장이처럼 아주 작은 키, 보통 사람의 2배는 되어 보이는 큰 귀와 그 안이 훤히 비칠 것처럼 투명해 보이는 피부를 제외하면 말이다. 순간, 그 형체가 입을 열었다

“뭘 봐!”

마치 심술궂은 노인의 얼굴 같아 보였다. 그 소리에 놀란 칸타카는 펄쩍 뛰었고, 아이들은 그한테서 멀찌감치 몸을 떼었다.

“어린 녀석들이, 어디서 뭘 읽고 장난질이냐! 정령무서운 줄 모르는 게로구나. 고얀 놈들!”

그 말에 무니가 발끈해 소리쳤다.

“이 희한하게 생긴 게 뭐라고 지껄이는 거야?”

난다가 무니의 손목을 붙잡았다.

“쉿! 조용히 해! 내가 이야기해볼게.”

난다가 자신이 불러낸 존재 곁으로 다시 다가갔다.

“당신이 혹시 나크인가요?”

“에헴. 그렇다. 내가 나크지.”

“나크…? 나크? 나크라구!”

무니가 깜짝 놀라며 난다를 쳐다봤다. 난다는 무니에게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뭐냐. 너희 녀석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불러냈다는 게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난다는 얼른 손을 내저었다.

“도움을 청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바쁘신 줄 알지만, 이렇게 실례를 하게 됐습니다.”

나크는 “흠” 하는 소리를 내며 자신의 큰 귀를 만지작거렸다. 금방 화를 냈다가 또 금방 가라앉는 편인 것 같았다. 난다는 자신들의 사정을 간단히 그에게 전했다.

“그래? 그랬구만. 차크라발라 사람들이 쓰는 말은 매우 단순하지. 사용하는 단어도 풍부하지 않고 말이야. 그래서 썩 재미있는 말은 아니야. 하긴 워낙에 환경이 이러니까 그렇겠지만. 잠부어는 구석구석 방언까지 많아 훨씬 재미난 말이고.”

나크는 생각에 빠지는 모습이었다. 많은 정령들이 그렇듯이, 나크 역시 아주 오래 전엔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른 정령들이 기기묘묘한 요술을 부리거나, 인간계에 가끔 나타나 행패를 부리는 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그는 꽤 고상한 취미의 소유자였다.

853호 | 불자정보

TEL 02)2004-8215(直) FAX 02)737-0696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 임야 전답 총 15000평
- 법당 25평 , • 요사채 10평
- 가액 1억 9천만원

010-9967-9832

명 당 절 터
-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 대지 537평, • 임야 568평
- 가액: 1억 3천 2백만원
- 지하수 수질 최고

016-849-3858

토 굴 안 내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 철학하신분 적합
- 건물 35평, 행랑채 8평
- 가액: 6천만원

010-8396-4338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 찰 화 재 보 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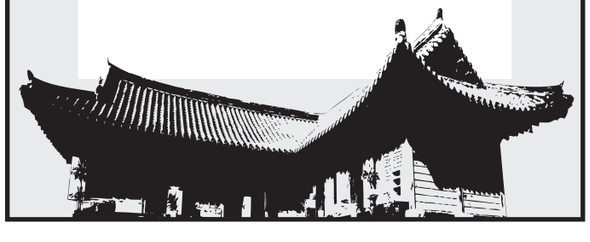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지혜의 샘

자타카 이야기 15

-분노하는 뱃사공-



구성-김흥인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대행 스님

다 놔야 다 얻을 수 있고 다 줄 수 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5(여): 큰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올라온 신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제 경험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작년 12월 초쯤 됐는데요, 제가 여성의류 대리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처사하고 둘이 집에 들어가면서 가게 문을 열어 놓고 들어갔어요. 홀딱 열어 놓고, 그것도 셔터 문도 올린 상태에서 안에 들어가는 출입구 문까지 완전히 열어 놓고 둘이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 사이에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차를 타고 휙, 문 열어 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저희집 처사하고 애들이 공부하는 뒤에 앉아서 저녁 늦게 아이들이 공부다 하고 들어갈 때까지 늘 관을 하면서 수행을 해 왔어요. 그날 저녁에도 관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데, 제 그 마음자리에서인지 그 때는 그것도 잘 모를 때였는데요, '무엇을 관하고 앉았느냐. 네가 나를 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를 지키고 있다.' 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난 그런 생각을 안 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날까?' 하다가 저희집 처사가 주방에서 따로 관을 하다가 들어왔기에 "아니, 이상하게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네가 나를 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금 지키고 있다.' 고 하는 게 느껴진다." 그랬더니 "둘로 보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그걸 반복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소상하게 얘길 했더니 "그럼 주인공하고 대화를 한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제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랬는데 히죽이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셔터 문이 활짝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문도 열려 있고 안에 들어가는 출입구 문까지도 다 열려 있고. 아, 그래 놀라서 둘이서 막 뒤져 보고 금고도 열어 보고 그랬는데 전혀 아무 이상이 없고, 들어가는 출입구에만 신문이 세 부가 던져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집 처사 첫마디가 "주인공, 밤새도록 지키느라고 애썼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제 자신이 느꼈어요.



그림 · 최주현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정말 진정한 공부로 들어간 건지, 작은 체험뿐 아니라 이러저러한 체험을 제가 아주 피부로 느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돌아가고, 넉넉한 거는 없어도 마음들은 모두가 편안하게 서로 인정해 주고 아껴 주는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제가 공부가 잘된다고 신나라 했거든요.

또 큰스님 법문 테이프를 생활처럼 늘 들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생활을 위해서 수행을 했는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어느 사인가 모르게 제가 수행을 위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수행하는 데 지장만 없으면 어떠한 문제도 나한테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는데,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큰스님 법문 테이프를 늘 눈만 뜨면 듣고 잠자기 직전까지 관하면서도 듣고, 관 안 할 땐 안 하는 대로 또 듣고 일을 하면서 듣고 그렇게 해 나왔는데, 요 근래에 테이프를 들으면서 제가 뭔가 모르게 아주 묘하게 터득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자꾸 와서 닿는데 그게 잘 안되고, 그거를 자꾸 터득을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답답하고 머리도 무겁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진실하게 그것조차도 그 자리에 맡겨야지만 순리대로 이게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거기에 자꾸….

큰스님: 이거 봐요. 다 놔야 다 얻을 수 있어요. 다 얻을 수 있어야 다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명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문을 열어 놓고 자기도 하고, 때로는 잠가야 할 때는 안 잠그고 또 잠그지 않아야 할 때는 잠그고 들어가는 수가 많아요. 이거를 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 그 말이, '네가 나를 지켜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급하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기막힌 자기의 보배입니까? 자기 앞에 보배를 두고 딴 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바로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자기 불성인 뿌리죠. 그 뿌리만이 바로 자기의 그 마음을 통해서 일러 주기도 하고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급하니까 그런 거지, 댁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죠. 하하하….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밉다, 잘못한다 하더라도, 급할 때는 당기는 것이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거기만을 의지하고 거기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믿으면, 진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제 나무에서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낼 수가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질문자5(여):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막 차를 타고 오면서 옆에 앉아 있는 처사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우리 한테 지금 현재 닥쳐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큰스님 법회에 참석해서 우리 둘이 똑같이 한마음으로 관을 해 보자.' 이렇게 전달을 하고 올라왔는데 여기 와서 첫 질문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큰스님 말씀에 '댁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한마음 자리에서 다 알았다.' 그랬으니까 저도 다 안 걸로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 다행이구먼요. 하하하….

질문자6(남): 춘천에서 왔습니다. 제가 직장일 등으로 큰스님을 자주 뵙진 못하지만, 큰스님 비디오하고 한마음 회보를 수시로 보고 큰스님께 말씀 들은 거를 한량없이 받아가서, 그걸 심봉 삼아 주인공에 맡기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 가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쭈려고 하는데 첫번째는, 제가 〈반야심경〉을 공부한 지 만 5년 만에 나름대로 뜻이 다 와 닿더라고요. 그 다음에 뜬구름을 보고 '마음 법이 뜬구름과 같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큰스님 죽비소리에 '닦을 마음도 없구나.' 하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 가서 주인공한테 관하고 맡기고 하는 것을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심봉을 잡고 공부를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전에 관세음보살 정근을 사무실에서 혼자 조용할 때 했었는데, 정근을 해 나가다가 불현듯 큰스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홀연히 대자유인임이 느껴지면서 '열반의 경지라는 게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느낌이 와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중생계를 넘어서는 듯한…, 그때 제 눈에 저도 중생이면서 중생들 삶을 보니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듯이 전부 다가 처처(處處) 부처님이신데, 단지 자기 본래 면목이, 여래장(如來藏)이 여래장임을 모르고 오색무지개를 떠다가 집안에 갖다 둘러놓은 그 일체 유위법을 환상으로 보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서들 울고불고 야단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큰스님 앞에 앉으면 꼭 이렇게 떨립니다, 허허허….

그런데 매일 예불을 드리거나 그러면 주변에 있는 병든 이, 미혹한 이, 이런 사람들이 저와 공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자기 앞에 보배를 두고 딴 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 29면에서 계속

부를 같이 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도도 하고 관하고 계속 마음을 내고 그럽니다. 큰스님께서 그전에 '하늘을 보면 웃고 땅을 보면 눈물이 나온다.' 그러셨는데, 제가 그 주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상당히 많이 흐릅니다. 여름철 한낮 나서 울다 가는 매미는 천지가 여름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살이는 낮만 있고 밤과 새벽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물 안 개구리는 천지가 우물 뚜껑만하다고 주장하면서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온 습과업의 그 독 속에 파묻혀 가지고 그 시각에서 세상을 보면서 울고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힘이 없어서 그런지 고집 세고 자기주장을 강변하는 사람들을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제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질문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수능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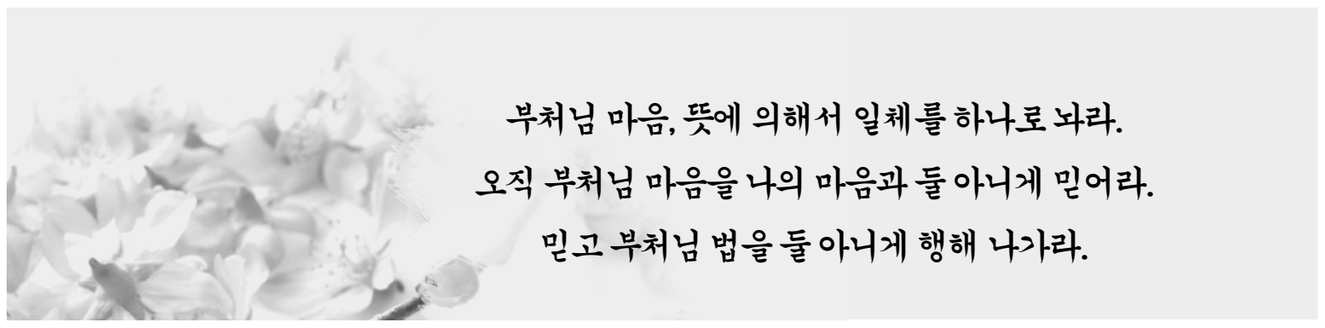
큰스님: 뭘 보니깐요?

질문자6(남): 〈수능엄경〉이요. 거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여래가 멸한 후에 말법시대가 되면 고기 먹고 다 하면서도 소위 도를 깨쳤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볼 때에는 효봉 스님이나 경허대선사 같으신 분은 걸림이 없이 행을 하셨는데, 저는 재가불자지만 마음은 스님같이 끝없이 닦아 나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직장에서 어울리고 하다 보면 뭐, 매운탕도 먹을 때가 있고 술 한 잔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마귀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때때로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허 스님이나 효봉 스님의 그 걸림 없는 행을 보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이 항상 걸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제가 이후에 공부를 어떻게 해 가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하고요, 두번째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하고, 세번째는 재가불자라고 하지만 제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매운탕 먹고 이러는 것이 공부를 진정으로 해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큰스님께서 법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큰스님: 첫째는 자기를 자기가 이끌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자기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을 제도를 못했기 때문에, 조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셋째는 남들에게 보이는 이 모습이 부처님 모습 같지가 않으니깐 그렇고. 하하하…. 어때요? '모든 것을 알기만 해도 아니 되느니라.' 하는 거는 '천차만별로 찰나찰나 바뀌고 찰나찰나 나투는데,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내 도량 아님이 하나도 없고, 하다못해 곤충에 이르기까지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는 그 뜻을 모르게 되기 때문이죠. 천차만별로 내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제도를 못했기 때문이지. 어디로 가, 그게? 그 속에서 나오는 게 그냥 그렇지.

그러니 아는 것만 많고 지식이 많고 모든 걸 달달달달 외워서 이 세상이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를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다리병신이 돼서 요만큼 한 발짝을 떼어 놓지 못하고, 귀머거리가 돼서 듣지 못하고, 눈 한쪽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헛거야, 전부!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통을 한다 하더라도 했다고 하지 마라. 모두 오신통 안에 조복을 받고 오신통을 벗어나야만이 오신통을 굴리고 그 응신이 화해서 천백억으로 나투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천백억이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는 거를 다 놓으면 혹시 모르지. '아이고 이것이 열반경지가 아닌가. 이 세상이 다 그런 게 아닌가. 이게 내가 홀연히 깨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 안다 하더라도…, 이 물 컵에 물이 들어 있는 거를 보고 알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 물 컵을 들어서 목마른 사람을 먹일 수 있고 내가 (물을 마셔 보이시며) 이렇게 먹을 수 있어야만이 그게 도 아닌 도예요. '도'도 이름일 뿐이지, 도 아닌 진실한 도! 그러니까 그 아는 거를 다 좀 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아는 거를 그 나오는 구멍에, 보고 듣고 알고 이러는 거를 나오는 거기다가 다시, '아는 것도 네가 아는 거지 내가 아는 게 아니니까, 또 듣는 것도 네가 듣는 거지 내가 듣는 게 아니니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니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되놔야만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건 남이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속 시원히 털어놓고, 진짜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그래서 '공덕이다' 하고 쉽게 말을 하지만, 공덕은 사무사유(四無四有), 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 천체가, 우주 전체, 삼라대천세계가 한데 합쳐져서 천차만별로 돌아가고 나투는 그 법을 알고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 즉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올려놔도 공양(供養)이라고 하지 밥이라고 안 그러죠? 공양, 공양을 올린다 그러죠. 이 세상 생명을 가진 것들은 전부 공식(共食)이니까요. 공식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공식이 될 수 있어야만이 여래도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는 거지, 공생(共生) 공심(共心) 공용(共用) 공체(共體) 공식(共食)이 아니 되면 그건 공덕이 될 수가 없어. 너, 나가 따로 없이 나투니깐 말이야.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든 악한 사람을 보든, 그것을 '너는 악해.' 이렇게 보질 마라, '너는 참 잘났어.' 이러지도 마라, 이러는 겁니다. 그건 왜? 나쁜 사람도 금방 좋아질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좋게 하는 사람도 금방 언짢은 일을 하고, 사기도 칠 수 있어!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든 것이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거를 직시하고, 나는 항상 근본을 믿고 근본에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맷돌이 돌아가는데 그 심봉은 힘만 배출해 주지 움죽거리진 않는다. 그러나 맷돌은 쉴 사이 없이 돌아간다.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데다가 내가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갈아먹으려고 하는 재료를 갖다 넣는다. 그래서 갈려 나오면 그걸 받아먹는다. 그러니까 그 힘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그 심봉만을 진짜로 믿고, 거기다가 심봉을 똑바로 꽂아야 갈려 나온다는 걸 미리 알고, 갈려 나오는 것도 거기를 믿어야 하고, 갈려고 놓을 때도 거길 믿어야 하고, 감사하게.' 그런 거와 같다 이 소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러한 의문을 담담하게, 내 안으로부터 모든 걸 자아내서 내가 지혜롭게 알도록 생활을 그렇게 하시면서 진행해 나가다 보면 생활이 그대로 법이에요.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에요, 그냥. 그리고 부처님의 몸이자 우리들의 몸이고요. '일체제불의 마음' 그것을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더운 거 찬 거 가리지 말고, 더우나 차나, 잘살든지 못살든지, 모든 생활은 우리가 무대 위에 올라서서 탤런트 생활을 해 가면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가는 것이라는 그 생각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탤런트로서 맡은 소임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것이 요다음 생에도 오는 거니까요.

질문자6(남):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금생에 부처님 법을 따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인공 자성(自性) 부처님과 큰스님, 그리고 시방 제불보살 마하살님께 그 한량없는 감사함을 항상 느끼면서, 세세생생 시방 제불보살 마하살님들, 그리고 대행 큰스님 곁에 있기가 원입니다. 그걸 항상 발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도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가장 사람답게, 그리고 눈을 감을 때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큰스님: 너무 많어. 너무 많이 알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덮여요.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듯하게, 응? 그냥 무지하게, 그냥 들어가라구. 부처님의 마음을 나와 둘 아니게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따르면서 부처님의 행을 둘 아니게 하면서, 삼합이 둘이 아니게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이렇게 관하고 들어가게끔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 한국의 불교가 부처님의 마음을 둘 아니게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따르고, 부처님의 행을 둘 아니게 하게끔 종지를 세워서 전체 불자들을 이끌어 간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종지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모아 놨다가 벌겨서 헤쳐 놓고, 헤쳐 놨다 벌겨 놓고 이렇게 야단들을 하니, 제가끔들 그냥 그냥 모두 흩어지죠, 불자들이.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하나로 뭉쳐놨어요, 타의에서 구하는 기도지마는. 그런데 깨치진 못할지언정 질서는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佛) 종지를 '부처님의 마음 뜻에 의해서 일체를 하나로 놔라. 오직 부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둘 아니게 믿어라.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행해 나가라.'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각자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돌아가는 믿음이 될 텐데, 그렇지를 않거든요.

이거를 모시면 또 다르게 보고, 요거를 모시면 다르게 보고, 요런 염불을 하면 다르게 보고, 저런 염불을 하면 다르게 보고, 요런 선사는 옳고, 저런 선사가 그르고 이렇게 선사 타령들을 해 가면서 그런단 말입니다. 딱 이렇게 종지를 해 놓으면, 그거는 수만 명이 깨쳤다 하더라도 부처님 한 분이지 두 분도 아니에요.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수만 개의 마음이 한데 합쳐져도 그건 여래일 뿐이지! 그리고 부처님일 뿐이고!

그리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몸뚱이 속에 지금 잔뜩 들어 있는 생명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벗어나지 않는 생명들이 모두가 한데 합쳐서 공생으로 살고 있고, 공용을 하고 있고, 공식을 하고 있고, 공체로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여래거든요.

그러니 심사숙고해서, 내가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그 아만과 아상, 모두를 다 놔서 내가 깨달아 가지고, 즉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생활하는 데 그대로 응용한다면 좋죠.

질문자6(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큰스님 말씀 하나도 빼먹지 않고….

큰스님: 관세음보살 따로 찾고 뭐 따로 찾고 이런다면 어떻게 부처님이 여래가 될 수 있어요? 보세요. 한 부처님이 마음을 내면 아촉이 될 수도 있고, 아미타도 될 수 있고, 관세음도 될 수 있고, 지장도 될 수 있고, 칠성 부처도 될 수 있고, 산신도 될 수 있고, 용신도 될 수 있고 모두가 한 부처 속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용신이란 법을 말하죠? 생각을 내는 거를 바로 용신이라고 해요.

질문자6(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회자: 이것으로써 오늘 큰스님의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오늘 통역 법문까지 하시느라고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오늘같이 이렇게 행복감을 느껴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저희 공부가 소홀한데 저렇게 타국 만리에서까지 저희 큰스님을 뵙고 마음공부를 하려고 온 오스트리아 비엔나 청년, 상당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 (대중 박수)

큰스님: (합장하시며) 저분이 좋아하시는데요. 하하하….

사회자: 저희 합창단이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노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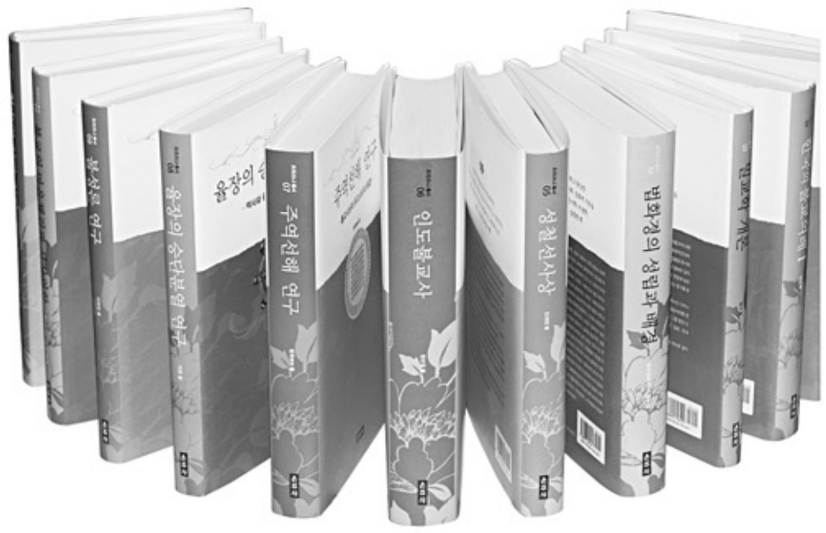
큰스님: 어디 얼마나 늘었나 봅시다. 하하하…

※위 법문은 94년 9월 4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 새로운 시각, 다양한 주제!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D.J. 칼루파하나/김종욱 옮김/신국판양장/544쪽/25,000원
불교 철학의 역사 전체를 붓다 본연의 가르침에 따라 정리한 역작!

2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 저/신국판양장/460쪽/23,000원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의식 및 의례의 역사와 절차, 의미 등을 규명한 책!

3 밀교학 개론
종석 저/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밀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종합불교·현실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塚本啓祥 저 · 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
법화경 성립의 배경을 문헌학, 고고학, 미술사, 고문서학, 비명학, 고대화폐학에 의거하여 실증한 책!

5 성철선사상
도대현 저/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돈오돈수와 중도로 집약되는 퇴옹 성철의 선사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한 최초의 책!

6 인도불교사
정순일 저/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인도 불교의 중요 불교교리와 인물, 핵심 개념과 경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7 주역선해 연구
청화 저/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명말 고승인 우익지욱이 『주역』을 고도의 불교사상으로 재해석한 『주역선해』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 저/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붓다 당시 승단분열의 역사적 과정을 제바달다의 파법륜승, 파승가를 중심으로 객관적이면서 생생하게 추적한 책!

9 불성론 연구
최현민 저/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본성론적 불성 이해에 기반한 수증관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새로운 불성론과 수행론을 제시한 도겐의 사상을 궁구한 책!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
불교의 수행론인 마음챙김과 한의학의 치유론인 사상의학 간의 다양한 융섭과 그것이 가져오는 창발효과를 규명한 책!

11 청송의 선과 철학
소광희 외 저/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선의 세계』라는 저서를 통해 동양적 사유의 결정체인 선과 서양철학의 회통을 추구한 청송 고형곤의 사유세계를 정리한 책!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인터넷 검색창에 「붓다북」을 검색해 주세요.
「붓다북」에서 총서를 구입하시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붓 다 북 바로가기 QR코드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 www.unjusa.com

불자 세상보기

스마트 시대, 승가부터 스마트하자



이백규
전남대 대학원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경북 청암사 스마트캠퍼스는
승가교육의 혁명이자 변혁
스마트세대에게 포교하려면
소설웹속 붓다 진리 인정해야

최근 청암사 승가대학에서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하였다. '승가대학에서 웬 스마트캠퍼스?' 할 수도 있지만 분명 이것은 승가교육의 혁명이자 변혁이다. 문제 제기는 간단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소통하고 대화한다. 일명 소셜웹(Social WEB) 세대이다. 우리 강원의 학인 스님들이 승가대학 과정 중에 이러한 스마트 세대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과연 강원 졸업 후 대중들과 어떻게 소통할까?

청암사 승가대학 · 율원의 스마트 캠퍼스는 '스님들이 아이패드를 잘 사용한다'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청암사 승가대학 · 율원 스님들이 사회에 나와 대중과 소통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승가대학과 전 세계가 소통 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겠다.

'아이들이나 사용하는 스마트기기를 학인스님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는 지금 스마트 세대들과 소통은 불가능 할 것이며 그러한 불통은 한국불교의 고립을 자초할지도 모른다.

청암사 승가대학 · 율원 스님들이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한 후 모두 아이패드2를 지급받아 스마트 소셜에 입문하게 되었다. 한 스님이 "방학기간에 서울에 올라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스님이 아이패드2를 가지고 자료를 검색하니 모두 의아하게 쳐다보는 눈길이 재미있었다"라는 말을 했다. 이것은 대중들의 인식에 스님들은 산속에서 목탁을 치시면서 염불만 하는 분들이라는 그들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님들의 모습과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수양하시는 스님이 계시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스님, 스마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중들과 대화하시는 스님들도 계시다는 것을 대중들도 인식하게끔 해주어야 한다.

'청암사승가대학스마트캠퍼스' 는 누구에게 보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스님들이 적극 의견을 피력하고 사회적 모범을 보이는 것이 현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사바세계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청암사 승가대학 · 율원에서 공부하셨던 스님들이졸업 하신 후 대중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때 대화에서 뒤쳐지지 않고 적극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감회가 깊었었다.

스마트캠퍼스가 청암사 승가대학 · 율원에서 오픈 된 후 스님들은 학인스님들 간의 소통이 원활해 졌다고 했다. 승가대학 특성상 각 학년별 스님들의 소임이 있고 바쁘시기 때문에 학년별로는 대화가 있으나 선후배 간에는 소통이 적었다고 한다. 스마트캠퍼스가 도입된 후 소셜웹 기능을 통하여 자유롭게 학년을 넘어서 스님들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주제토의도 이루졌다고 하였다. 바로 이것이 소셜웹(Social WEB)의 소통인 것이다.

대중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스님들 간에 소통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가끔가다 종단내의 어떤 이슈를 보면 서로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도 많은 것 같다. 이제 강원에서 공부하는 단계에서부터 소통을 가르쳐야 하고 몸소 소통을 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캠퍼스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러한 소통을 몸소 체험한 스님들은 대중들과 교감도 어떤 형식의 교감이든 충분히 몸과 마음으로 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소셜웹(Social WEB)이 바다 속에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세상 만인들의 대화가 담겨있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社說

'상생과 공존' 의 실천 따라야

남북 불교계의 노력이 5 · 24대북제재 조치 후 첫 만남으로 회향됐다. 대장경판각 1000년을 기념해 남북이 함께 묘향산 보현사에서 9월 5일 합동법회를 봉행한 것이다.

행사에서, 또 방북단의 방북기간 중 화해와 협력, 단합과 연대, 평화와 통일이 언급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봉행사와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위원장의 환영사, 남북이 함께 읽어 내려갔던 고불문과 합동발원문 등은 물론이고 남북 관계자들의 대화에서 수없이 반복됐다. 이 단어들은 분단 이후 반세기 넘도록 '남북' 하면 '통일' 이 연상되듯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들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그래야 하고 해야 하기에 민족의 의무로써 써 온 까닭이다. 분단이라는 공업의 과보를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의 과제요, 민족의 아픔을 청안함으로 되돌릴 묘법인 까닭이다.

우리는 무척 오랫동안 이 말들을 구호로만 되풀이해 왔다. 그러는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화해와 협력은 꼼수와 야합으로, 단합과 연대는 패거리와 끼리끼리로 변질됐다. 평화는 강자(가진 자)에 의해 약자(못가진 자)가 침묵하는 상태를, 통일은 개성이 말살된 획일을 뜻하게 돼버렸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이 '상생과 공존' 이라는 대북교류 원칙을 천명했다. '상생과 공존' 은 생경한 구호의 나열 속에 진부해져 가던 남북관계에 물수제비 같이 톡톡 튀는 단어가 아닐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조계종은 남북 어휘집(vocabulary)에 단어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교구본사주지회의 등을 통해 대북지원 사업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자칫 '퍼주기' 라는 비판과 좌절에 빠질지 모를 이 계획이 상생과 공존의 진정한 방법인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다. 그래도 혀끝에 맴돌지 않고 손끝에 새겨지길 바란다. 세상은 실천하는 자에 의해 바뀐다.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

남북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이 된 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제2기 화쟁리더십 아카데미가 열렸다. 행사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은 "사회 화합과 화쟁을 위해서는 각자의 치열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이런 가운데, 前 거조암 주지 현소 스님이 은해사 A스님을 출가 이후 승려 신분으로 혼인한 사실이 있다며 폭로한 사건이 있었다.

물론 은해사 A스님의 혼인사실은 진정을 접수한 호법부가 밝힐 일이다. 당사자들에게 종헌종법에 어긋남이 있다면 마땅히 처벌할 일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떠나 범인들의 입에 오르는 동안이라도 조계종 출가자 전체의 문제로 확대 · 폄하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설사 A스님의 혼인사실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해도 그것이 실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아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우 스님은 "너와 내가 하나라는 절대적 · 근원적 사고에 입각한 행위가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말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조계종 구성원 각자가 독신비구의 그늘에서 나태하고 방만한 출가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성하고 쇄신할 계기가 된다면 '날마다좋은날' 이다.

사부대중 칼럼

아이를 보면 어머니를 알 수 있다



강선희
중앙신도회 교육위원

마음을 잘 써야 건강하고
자연환경도 보존할 수 있어
가정은 마음씀씀이 배우는 곳
어머니가 가정을 바로 세운다

참 많이 변했다.

필자가 학교를 다니던 때 버스를 타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그 주변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방을 다 받아 안아야했다. 물론 윗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어린아이들이 타면 으레 귀여워하는 행동을 취하고 아이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요즘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런 현상은 자칫 시빗거리가 되고 법정까지 가기도 한다.

사람의 인심만 변한 것이 아니다. 자연환경은 기록을 갱신하며 사납게 가고 있다. 오랜만에 찾은 해운대는 필자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예전의 모래사장은 거의 없어지고 그 자리는 물이 가득했으며, 여름 마지막 대목손님을 맞기 위해 외부에서 모래를 퍼 날라 붓느라 밤을 새우고 있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의 눈이 녹아들면서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고 따라서 태풍이 거세지면서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태양열과 폭풍과 비로 지구는 날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재앙의 회오리가 어떻게 이어질지 천안통을 가진 신통력자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심신이 환경을 만들어 간다고 하셨다. 다시 말해 마음을 잘 써야 몸이 건강하고 자연환경도 보존할 수 있으며 결국은 중생들도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한데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 가야할지 막막할 정도로 윤리도덕과 질서 그리고 자연환경이 파괴 된 것 같다. 필자는 그 문제와 해답을 늘 가정에서 찾는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면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어머니' 다.

'어머니' 는 그 집의 바탕이고 거울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 어떤 '어머니' 와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여성들에게 바른 호흡과 함께 마음이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 늘 들여다보고 중심이 흔들리지 말것을 강조한다. 어떻게 마음의 중심(마음의 힘)을 잡을 것인가?

강한 자아집착과 그로 인한 끝없는 욕망으로 지금 우리 몸통은 온갖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 욕망은 어리석음과 증오를 낳고 부정적인 번뇌는 우리의 몸을 장악하면서 숨길을 방해 한다. 호흡이 제대로 들고나지 못하면 몸을 병투성이로 몰아가고 결국은 지구의 숨통까지 조여가게 된다.

호흡은 우리의 몸과 의식을 연결하는 다리로써 바른 숨(에너지)은 그대로 영혼의 결정체이며 의식의 척도를 가늠케 한다. 막힌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가 숨만 제대로 쉴 수 있어도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다. 숨을 제대로 쉬면 몸이 이완되고 편안한 몸은 모든 부정정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전환해 주면서 여유가 생긴다. 또 깊은 호흡으로 늘 자신의 안을 들여다 볼 줄 알 때 마음이 고요해 지고 흔들림이 없다. 이렇듯 동요함이 없을 때, 남편과 자식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인다. 보여야 수정하고 변화가 가능하다.

'어머니' 의 마음이 평화롭고 이타심이 있다면 아이들도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이해와 사랑, 양보와 누군가를 늘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며, 그렇게 사는 삶은 언제나 축복뿐일 게다. '어머니' 가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더욱 튼튼할 것이며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뒤따라 올 것이다.

어머니들이여! 숨을 제대로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라. 그런 다음 내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라. '어머니' 의 변화는 그대로 가정의 변화이고 사회의 발전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지난 28년간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해 온 "DX-707 마이크"를 사용해 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DX-707 명품 마이크" 는 40대 만을 추가 제작을 끝으로 부처님전에 다시는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재가 다 되었기 때문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이 사라지는 "名品 DX-707 마이크"를 마지막으로 구입해, 소장을 원하시는 스님 35분의 주문을 받습니다
세상에 단 한번밖에 없을_____
DX-707 마이크를 구입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주문방법 : ① 입금 후 주소, 사찰명 전화번호를 Fax, 전화, 등으로 알려주세요
② 입금 순서대로 발송 해드립니다
③ 스님 35분께만 공급 해 드립니다
송금 우리은행 구 좌 : 1002-610-963886
예금주 : 김문화
대 금 : 25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왕비의 극락왕생까지도 바랬던 태조 이성계의 사랑

왕의 사랑으로 창건된 흥천사(興天寺)

벌써 50년 가까이 서울과 그 주변에서 살았다. 60년대 서울은 전철이 다녔고, 한강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70년대 고궁과 왕릉은 단골 소풍지였다. 왕릉에 가선 누구의 능인지 모른 채 김밥을 먹었고, 궁궐에 가선 언제 창건된 궁인지 모른 채 사생대회를 했다. 서울에서 살면서 서울이 어떤 곳인지 몰랐던 것이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았던 서울은 옛날부터 수도로 꼽혀온 길지였다. 오죽하면 신라 진흥왕이 100년이 넘게 지속된 백제와의 동맹을 깨면서까지 이곳을 차지하려 했을까. 또한 고려사에, "북쪽으로 화산[삼각산]을 의지하고 남쪽으로 한강에 임했는데, 토지가 평평하게 펼쳐졌으며, 백성이 많고 물산이 풍부하며, 번화하다"고 적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서울이 실제 수도가 된 것은 조선이 세워진 뒤이다. 태조 이성계는 1392년 개경에서 즉위했으나 분위기를 쇄신할 겸 천도를 계획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고 싶었을 것이다. 아무리 역성혁명이라 하지만 승리자가 있다면 패배자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 패배자를 따르는 무리와 민심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힘에 눌려 잠자코 있지만 언제가 폭발할 수 있는 것이 민심이다. 그런 힘을 피해가고 싶었을 것이다. 태조는 즉위 3년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한성부(漢城府)라 했다. 이렇게 시작한 서울은 수도로서 6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왔다.

조선은 고려와 달리 불교를 배척했다. 불교계는 그런 수모를 온몸으로 견디어야 했다. 힘든 역경도 많았지만 민심 저변에 자리한 신앙심은 찬란하지 않아도 담담하면서 성숙된 불교문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시대 탓인지 몰라도 어지간히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서울에 존재하는 불교문화가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지 상세히 알기 힘들다. 그리고 오랜 세월 무관심으로 그 가치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미천한 지식이지만 붓을 들어 불교문화의 가치를 적어보려 한다.



흥천사는 600년 넘는 조선시대 서울의 불교문화의 상징으로 지금도 남아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흥천사 극락보전

조선 건국 4년만에 왕비 잃고
애절함에 정릉 조성한 이성계
도성안에 흥천사도 지었으나
방화로 전소됐다가 이전·축소돼



흥천사 일주문

서울이 600년이 넘는 수도인 까닭에 불교문화가 곳곳에 존재한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흥천사를 꼽은 것은 창건에 담겨진 왕의 사랑 때문이다. 조계사나 봉은사와 같은 큰 사찰은 아니지만 이곳에는 심금을 울리는 사랑이 있다.

사랑이 무엇인가. 인류가 생겨난 이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눈물을 자아낸 테마가 아닌가. 대중가요 제목에도 사랑이 가장 많은 것도 대중들의 마음이 사랑을 열망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청춘들이 사랑이란 두 글자에 자신의 인생을 던질 만큼 폭발력이 있지 않은가.

그런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방법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 그리고 평민이던 귀족이던 이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왕이라고 없었을까. 여염집 사람처럼 또는 현대인들처럼 내놓고 사랑을 말할 수 없었지만 분명 남자인지라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무인이다. 함경도에서 여진족을 상대하며 성장했고, 왜구들을 물리치는 전장에서 생활한 백전노장이다. 그런 그에게도 애절한 사랑이 있었다. 그에겐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姜氏)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 첫째 부인은 즉위 한 해 전 죽었고, 둘째 부인만이 조선왕조 최초의 왕비가 되는 행운을 얻었다. 그녀는 건국이란 힘든 시기를 함께 해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큰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왕비가 된지 4년 만인 태조 4년(1395)에 죽었다. 조강지처를 잃은 태조는 안타까운 마음에 능을 경복궁 서남쪽 가까이 조성하고 정릉(貞陵)이라 했다.

능을 조성한 다음 태조는 왕비의 극락왕생을 위한 원찰을 창건했다. 그것이 흥천사이다. 태조의 원찰 창건은 정치적 모험이었다. 자신이 세운 왕조의 이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불교계에 반감을 가진 인물들이 세운 조선은 유교를 숭상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도성 안에 사찰을 세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실제 대단한 인물의 원찰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도 어제까지 있었던 신앙심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흥천사는 태조 6년(1397) 낙성됐다. 처음부터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조선 최초의 원찰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책임자 김사행(金師幸)이 임금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호화롭게 했다. 흥천사는 170여 간이나 되는 대가람이었다. 능조차 도성 안에 두려했던 태조의 지극한 사랑이 담겼으니 당대의 최고였을 것은 당연하다. 그 가운데 압권은 정종1년(1399) 10월에 조성된 사리전(舍利殿)이었다. 5층으로 지어진 사리전은 크기도 웅대하고, 그곳에 올라가면 경복궁이 잘 보였다고 한다. 세종 5년(1423) 사신이 흥천사를 구경하고 사리전 높은 곳에 올라 경복궁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산세나 물 흐름이 모두 음양의 이치에 맞으니 참으로 하늘을 만든 도읍이라"한 것을 보면 말이다.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지만 흥천사는 어디쯤이었을까. 기록에 의하면 절은 서부 황화방(皇華坊)에 세웠졌다고 한다. 황화방이 어딘가. 그곳을 알려면 영조 때 기록을 참고해야 한다. 영조 45년(1769) 11월 임금이 황화방 명례궁(明禮宮)에 거동했다고 전해진다. 명례궁은 인조가 즉위한 곳으로 본래의 이름은 경운궁(慶運宮)이었다. 이곳이 고종이 순종에게 선위하고 머물면서 덕수궁이라 했다. 정릉과 흥천사 모두 이곳에 있었던 것이다. 현재 그곳이 정동(貞洞)인 것도 능 이름에서 연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 흥천사와 지금 탑골공원인 원각사가 중부 경행방(慶幸坊), 그리고 교종사찰 흥덕사가 동부 연희방(燕喜坊)에 있어 세 사찰이 트라이앵글을 형성했다.

임금의 사랑으로 크고 화려하게 시작한 흥천사이지만 조선조의 배불의 세파만은 피해갈 수 없었다. 종파 축소, 참배 금지 등이 계속됐다. 그런 조치로 폐사에 이르지 않았지만 화마에는 어쩔 수 없었다. 연산 10년(1504) 법당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급격하게 쇠락해졌다. 그나마 화마를 모면했던 사리전은 중종 5년(1510) 3월 28일 흥천사의 보물과 경문을 훔치던 유생들의 방화로 전소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중종은 가슴 아파하면서도 7년(1512) 성 안의 흥덕, 흥천, 원각 등 세 폐사의 땅을 사대부들에게 갈라주자는 대간의 건의에 흥천사 땅을 나누어준 것을 보면 역시 배불의 군주이다.

흥천사는 정릉의 원찰로 지어져 화재로 사라졌지만 정릉 때문에 다시 생겨날 수 있었다. 왕후는 자신의 막내를 세자로 책봉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하는 것을 지하에서 지켜봐야 했고, 자신도 파헤쳐 도성 밖으로 옮겨지는 수모를 당했다. 태종은 자신과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왕후를 9년(1409) 삼각산으로 옮겼다. 그리곤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아 정릉은 오래 동안 방치됐다. 그런 정릉이 제 모습을 찾은 것은 선조 때였다. 즉위 9년(1576) 정릉을 복구하고 왕후의 제사를 지냈다. 이후 현종 10년(1669) 송시열 등의 청원으로 왕후의 제삿날을 새삼 기리면서 자연히 원찰도 논의됐다.

당시 정릉 앞에 있는 신흥암이 능과 너무 가깝고 작아 조금 떨어진 함취정(含翠停)터로 옮기고 신흥사(新興寺)라 했다. 이름은 달랐지만 원찰은 복원된 것이다. 정조 18년(1794)에 성민(聖敏)과 경신(敬信) 두 스님이 현재의 위치로 옮겨 중창했다. 이후 신흥사로 불리다가 고종 2년(1865) 흥선대원군이 중창불사를 지원하면서 원래 이름인 '흥천사' 편액을 내렸다. 지금 만세루에 걸려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흥사로 불렀다.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 주변 식당은 회갑잔치가 빈번하게 열려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요릿집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요즘 지역안내서와 인터넷에 흥천사로 소개되고 부르는 것을 보니 비로소 본래의 이름을 찾은 듯하다. 지하에서 온갖 역경을 겪은 왕후도 600년 만에 살포시 미소 지을 것 같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New 디자인특허 출원번호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 칠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 스텐레스 받침 1개 / 크리스탈 받침 7개
P.C 컴밀납초 7개 /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New



디자인특허 출원번호 제 30-2011-0034559

• 원기둥초 (7.5Ø×29cm)

PC바람막이

용도 : 허공기도,
천신기도시 바람막이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신제품 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구성되어 있어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제품입니다. 특히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 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인 특허 :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 파라핀 오일
국내산 원액
제조 삼환양초



• 도자기 인등
小 가로 13Cm 세로 17Cm
大 가로 15Cm 세로 19Cm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제품문의 :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